



2013 총회보고서



|일시| 2013. 2. 19(화) 13:00

|장소| 종교교회

KD

Korean Diakonia

코리아안 디아코니아

110-736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9(연지동) 한국기독교교회관 705호

TEL. 02-747-1225 FAX. 02-764-1225

www.servekorea.org servekorea@servekorea.org

목 차

● 2013 총회개회예배 순서	3
● 이주민선교기초조사 발표 및 세미나 순서	4
● 2013 정기총회 순서	5
A. 조직	
1. 회원명부	6
2. 법인이사명부	8
3. 임직원명부	8
B. 회의록	
1. 총회	11
2. 이사회	12
C. 2012년 사업보고	13
D. HAITI 사업보고	34
E. 결산보고	
1. 감사보고서	37
2. 결산보고서	39
F. 2013년 사업계획	43
G. 2013년 예산(안)	46
H. 부록	
1. 정관	47
2. 회칙	54
3. 보도자료 및 스크랩	59
● 이주민선교기초조사	96

개회 예배 순서

■ 일 시 : 2013. 2.19(화) 13시

■ 인 도 : 최이우 목사(KD상임단장)

목 도 다 같 이
 찬 송 <382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다 같 이

1.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는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 하시네
2.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 도 정정섭 장로(KD공동대표)

성경봉독 <에베소서 2장 11-22절> 이은화 권사(KD기사협이사)

¹¹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¹²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¹³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¹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¹⁵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¹⁶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¹⁷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¹⁸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¹⁹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²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²¹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²²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 씬 <벌어진 틈새를 메워주기> 한태수 목사(KD상임단장)

찬 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다 같 이

1.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그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2. 주모습 내눈에 안보이며 그음성 내귀에 안들려도
 내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배우도다
 3. 가는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4. 주예수 세상에 다시오실 그날엔 못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형상을 다함께 보며 주찬양하리
- 후렴 :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축 도 박종삼 목사(KD공동대표)

이주민선교기초조사

■ 일 시 : 2013. 2.19(화) 13시 30분

* 좌장 : 김성이 교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KD기사협 이사)

- 발제 책임 연구원 황홍렬 교수(부산장신대 선교학)

- 토론 1 김해성 목사(지구촌사랑나눔)
- 토론 2 박천웅 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 토론 3 서기원 목사(DMN/Diaspora Mongolian Network)

- 질의 응답

정기총회 순서

□ 일시 : 2013. 2. 19(화) 오후2시 30분
□ 의장 :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

- 1. 의장인사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
- 2. 회원점명 서 기 지형은 목사
- 3. 회순채택 다 같 이
- 4. 2012-2013 사역 영상 보고
- 5. 동역기관 및 동역자 소개
- 6. 2012년도 사업보고(p.13) 사무총장 김종생 목사
- 7. 2012년도 감사보고(p.37) 감 사 김광한 장로
- 8. 2012년도 결산보고(p.39) 회 계 이창연 장로
- 9. 2013년도 사업계획(안) 보고(p.43) 총 무 최희범 목사
- 10. 2013년도 예산(안) 보고(p.46) 총 무 최희범 목사
- 11. 기타안건 회 원 중
- 12. 광 고 사무총장 김종생 목사
- 13. 폐회기도 말 은 이

<소개> 동역기관 및 동역자

-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 김봉대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제정연대회의 고문 / 한정순 원폭2세환우회 회장
- 이성호 장성금천농장
- 이충연 외 4명 용산참사 특별사면 석방자
- 이태현 동자동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이사장
- 박홍순 (사)참된평화를만드는사람들 사무총장
- 유미호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정책실장
- 나경원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

A. 조직

1. 회원명부

강명순(세계빈곤퇴치회)	김요셉(선린교회)	박광석(일산벤엘교회)
강영만(진흥교회)	김요셉(원천(침례)교회)	박권배(상도교회)
강용규(한신교회)	김용상(원주제일교회)	박귀영(한영신대사회복지학과)
강인석(시흥평안교회)	김원광(중계충성교회)	박동찬(일산광림교회)
장준모(남성교회)	김원교(참좋은교회)	박래창(예장통합총회사회봉사부)
강춘길	김원호(석삼침례교회)	박명성(성신교회)
고경환(순복음원당교회)	김윤석(좋은이웃교회)	박삼열(송월교회)
고명성(추점교회)	김은섭(도봉교회)	박상완(신갈백향목교회)
고미란(푸른잎사귀봉사단)	김은호(오륜교회)	박상철(예일교회)
곽주환(베다니교회)	김인기(성장교회)	박순영(장충단교회)
구자영(안성성결교회)	김인중(안산동산교회)	박용호(복수원교회)
권오륜(발음교회)	김정규(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박원호(주님의교회)
권태경(영동은혜교회)	김정서(제주영락교회)	박유철(충주서남교회)
권태경(백합노인복지센터)	김정석(광림교회)	박응순(주안중앙교회)
김경수(안동벤엘교회)	김정일(한국노인대학총연합회)	박정근(부산영안침례교회)
김광본(연합총회)	김중엽(가현교회)	박종연(예장합신 총무)
김광석(㈜참존 회장)	김중웅(부평제일교회)	박종천(가나안의 집)
김근상(서울주교좌성당)	김중준(꽃동산교회)	박지대((재)장기재산기증협회)
김근중(수원늘푸른교회)	김중훈(월곡교회)	박진구(안디옥교회)
김대근(숭실대학교)	김준수(천안하늘중앙교회)	박진석(기쁨의교회)
김덕주(기독교선교햇불재단)	김준수(성덕중앙교회)	박창환(꿈꾸는교회)
김득린(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찬곤(안양석수교회)	박천웅(안산이주민센터)
김득연(동성진흥)	김창배(영광교회)	박천일(전 CTS사목)
김명현(이천순복음교회)	김철봉(부산사직동교회)	박현식(대길교회)
김문훈(포도원교회)	김치성(통합교육부총무)	박흥철(분당매일교회)
김병민(충남동산교회)	김한중(연세대학교)	방수성(시흥교회)
김병삼(만나교회)	김형준(동안교회)	방원철(성광교회)
김봉태(수원영원교회)	김혜경(백석대 사회복지학과)	배성식(수지영락교회)
김상길(기하성총회협동총무)	김호민(대전권능교회)	배숙한(종교감리교회)
김상복(소망교회)	나진균(월곶제일감리교회)	배윤규(한국기독교사회복지관협회)
김상현(부광교회)	노태철(제일성결교회)	배진기(포항안디옥교회)
김성식(순복음부흥교회)	류두현(나사렛교회)	백광진(잠실동교회)
김성원(광주중흥교회)	류영모(한소망교회)	백인범(새사랑교회)
김성철(백석대 사회복지학과)	류종훈(한세대 사회복지학과)	백종윤(청학영락교회)
김수용(한국기독교실업인회)	림형석(평촌교회)	서도형(홍은교회)
김영수(영일교회)	명성훈(순복음성서교회)	서임중(포항중앙교회)
김영진(민주통합당)	모상련(목포주안교회)	서정오(동승교회)
김영철(장수마을교회)	문강원(원천교회)	서호석(창천교회)
김영현(은평감리교회)	박경배(송촌장로교회)	성열준(부산디지털대학교)

성창용(충무교회)	이근수(홍성교회)	정 권(예가원)
손달익(서문교회)	이기우(감람교회)	정근두(울산교회)
송귀옥(목포영락교회)	이만식(장로회신학대학교)	정덕훈(영광교회)
송기식(수원성결교회)	이문희(맑은샘광천교회)	정명철(도림교회)
송태근(강남교회)	이상일(삼선교회)	정명호(혜성교회)
신동현(영락사회복지재단)	이성우(미국LA우리민족돕기)	정무성(숭실대 사회복지학과)
신상현(울산미포교회)	이수영(새문안교회)	정연철(양산삼양교회)
신성남(예수가족교회)	이순천(안중양교회)	정영교(산본양문교회)
신용환(국제기독실업인회)	이승영(새벽교회)	정영환(기독교IPTV)
신정호(동신교회)	이승희(반야월교회)	정우겸(완도성광교회)
안강희(GAP 국제대표)	이영식(분당영광교회)	정우담(예성총회 사회복지부)
안기성(거리의천사들)	이인선(열림교회)	정재우(순복음교회)
안요셉(글로리아교회)	이재욱(화평교회)	정철옥(아름다운교회)
안용운(온천교회)	이재원(종로종합사회복지관)	정필도(수영로교회)
안희목(공주꿈에교회)	이재훈(은제교회)	정현구(서울영동교회)
양인평(로고스법무법인)	이정우(지구촌교회사회복지부)	조경열(아현교회)
양재성(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제훈(어린이재단/한국자원봉사협의회)	조남선(베푸는공동체)
양해규(굿월스토어)	이종관(울산시민교회)	조상돈(시온성교회)
어덕선(열방교회)	이종윤(서울교회)	조석인(사랑과행복나눔재단)
엄신형(중흥교회)	이종현(기독교연합봉사회)	조성철(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엄현섭(기독교한국루터회)	이주형(오정성화교회)	조원근(아현교회)
여성삼(천호동교회)	이준성(역촌교회)	조이철(기성사회복협의회)
오영택(월드비전교회)	이준우(강남대 사회복지학과)	조재호(고척교회)
오진석(하나성결교회)	이철호(강성교회)	조철한(영락교회 사회봉사부)
원준희(강남교회)	이치우(합동)	조한권(전하리교회)
유관재(성광교회)	이태훈(수원동부성폭력상담소)	조홍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유기성(선한목자교회)	이학영(한국YMCA)	주경선(밀알의집)
유만석(수원명성교회)	임석영(고덕중앙교회)	주현신(과천교회)
유성희(대한YWCA)	임영섭(수원은혜교회)	지관해(서울복음교회)
유인석(과천소망교회)	장경덕(가나안교회)	지성업(대전산성교회)
유재필(순복음노원교회)	장덕만(동암교회)	차정규(신양교회)
육순중(성북교회)	장덕순(이리신광교회)	채영남(본향교회)
윤재철(대구중앙교회)	장봉생(서대문교회)	채이석(비전교회)
윤지환(안보와경제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장 빈(동광교회)	최대석(일산소망교회)
윤희구(창원한빛교회)	장영일(범어교회)	최동복(쉽터교회)
이강호(봉천성결교회)	장운제(한국복지목회협의회장)	최병국(총회세계선교회복지위원장)
이건영(인천제2교회)	장희열(순복음부평교회)	최부옥(양무리교회)
이경림(부스리기사랑나눔회)	전삼광(인천내동교회)	최성재(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
이경희(윤영노)(하늘중앙교회)	전성원(한기총 공동회장)	최완규(영천감리교회)
이규석	전숙희(한국민족문화교육원)	최용준(보성읍교회)
이규왕(수원제일교회)	전운원(석천광명교회)	최일도(다일복지재단)
이규환(부천목양교회)	전현표(상동사랑교회)	최임곤(신일교회)

최중천(분당중앙교회)	하상훈(생명의전화)	홍문수(신반포교회)
최충하(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무)	한기채(중앙성결교회)	홍향표(경목총회사무총장)
최한주(푸른숲교회)	한준석(세종제일교회)	황문찬(세검정교회)
최홍규(가리봉교회)	한진환(서문교회)	황선엽(구세군대한분영)
추연호(은파교회)	허태성(강변교회)	황영일(기독교IPTV)
하금석(예랑교회연안선교회)	현해춘(등마루교회)	황우여(한나라당)

(*가나다 순)

2. 법인 이사 명부

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	박종삼(한국글로벌사회봉사연구소)	장경준(선한이웃네트워킹)
김동배(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손인웅(덕수교회)	조규환(엔젤스 헤븐)
김삼환(명성교회)	오정현(사랑의교회)	지형은(성락성결교회)
김성이(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우창록(범무법인 율촌)	최희범(한국교회희망봉사단)
김수지(서울사이버대학교)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한태수(은평성결교회)
김중생(한국교회희망봉사단)	이은화(경신복지재단)	
박은조	이규학(인천제일감리교회)	

3. 임직원 명부

상임고문(06)

방지일(영등포교회 원로목사)	김선도(광림교회 원로목사)	조종남(장충단교회 명예목사)
김장환(FEBC 극동방송)	조용기(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이윤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고 문(17)

길자연(한기총, 왕성교회)	김동권(진주교회 원로목사)	김명혁(강변교회 원로목사)
김상복(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	박경조(대한성공회 광구장 주교)	박종순(충신교회)
손봉호(서울문화포럼표)	신경하(감리사회복지재단)	안영로(광주서남교회)
윤석전(연세중앙교회)	장차남(온천제일교회 원로목사)	전광표(구세군대한분영)
전병금(강남교회)	전병호(군산나운복음교회)	정근모(한국전력공사 고문)
최성규(인천순복음교회)	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 남북나눔)	

지도위원(34)

김경철(CTS기독교TV)	고용수(대구제일교회)	고 훈(안산제일교회)
김은기(극동방송)	노승숙(국가조찬기도회)	신화석(안디옥성결교회)
이동원(지주촌교회)	이용호(서울영천교회)	이재천(CBS기독교방송)
이정익(신촌성결교회)	이종복(은혜감리교회 원로목사)	최낙중(해오름교회)

현직교단장

고신, 구세군, 기감, 기성, 기장, 기침, 기하성, 나사렛, 대신, 루터교, 백석, 성공회, 예성, 합동, 통합, 합신, 중앙, 개혁총연, 개혁, 합동개신, 합동중앙, 합동개혁A

대표회장*

김삼환(명성교회)

공동대표(31)*

강승삼(한국세계선교협의회)

김동배(연세대사회복지대학원)

김유수(광주월광교회)

박성철(신원그룹)

박종화(경동교회)

송기성(정동제일교회)

원팔연(진주바울교회)

이신웅(신길교회)

이철신(영락교회)

최이우(종교교회)

한태수(은평성결교회)

권태진(군포제일교회)

김수지(서울사이버대학교)

김인환(성은감리교회)

박은조

서재일(원주영강교회)

양병희(영안교회)

이봉관(서희건설)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정정섭(국제기아대책기구)

최홍준(호산나교회)

김경원(서현교회)

김양원(신망애복지재단)

단필호(기독교연합봉사회)

박종삼(한국글로벌사회봉사연구소)

손인웅(덕수교회)

오정현(사랑의교회)

이성희(연동교회)

이재창(수원순복음교회)

정주채(향상교회)

피영민(강남중앙침례교회)

상임단장(07)*

김경원(서현교회)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한태수(은평성결교회)

양병희(영안교회)

이철신(영락교회)

오정현(사랑의교회)

최이우(종교교회)

사업단장(07)*

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

오정호(새로남교회)

정성진(거룩한빛광성교회)

박홍자(맛샘캐터링)

윤성원(삼성제일교회)

소강석(새에덴교회)

윤호균(화광교회)

공동단장(16)*

권창영(전주예수병원)

박성민(한국CCC)

서철(상동교회)

신정환(하늘담은교회)

유영완(하늘중앙감리교회)

황형택

김봉준(구로순복음교회)

박윤석(청주우암교회)

소강석(새에덴교회)

오정호(새로남교회)

윤성원(삼성제일교회)

김홍규(인천내리교회)

박철규(새마음교회)

송종완(수원삼일교회)

옥성석(충정교회)

진희근(승리교회)

기획위원(0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CBS기독교방송

한국기독교총연합회

CTS기독교TV

교단장협의회

국민일보

총무*

최희범(한국교회희망봉사단)

공동총무(04)*

조성기(WCC준비위원회)

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

정성진(거룩한빛광성교회)

최길학(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

교단총무

교단 현직 총무

협동총무(14)

김민섭(한국의료복지선교회)

김범곤(예수사랑선교회)

김성수(예장대신사회부)

김일환(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김해성(성남외국인노동자교회)

박원영(서울나들목교회)

서경기(한아봉사회)

양세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육광철(예장합정사회복지위원회)

이상화(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이승열(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

이효상(미래목회포럼)

정신천(한국장로교복지재단)

한상업(기독교연합봉사회)

서 기(02)*

지형은(성락성결교회)

정승룡(늘사랑교회)/부서기

회 계(02)*

이창연(스포츠서울INB)

박홍자(맛샘캐터링 한국급식협회)/부회계

감 사(02)*

김광한(김광한세무사회계사무소)

김명옥(전 한국에스터 구국기도회)

사무총장

김종생

사업위원회(08)

재해구호, 사회복지, 학술, 국제, 자원봉사, 북한지원사업, 홍보·출판, 사회복지엑스포

지회(12)

강원남부, 경기남, 경기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 부산경남, 서울, 울산, 인천, 충남, 충북

B. 회의록

1. 총회 회의록

□ 2012년 2월 6일(월) 11:00~11:40 / 사랑의교회 은혜채플

■ 1부 개회예배(11:00-11:20)

상임단장 한태수 목사의 인도로 묵도 후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를 제창하고 법인이사 정정섭 장로의 기도와 법인이사 박홍자 장로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성경봉독 후 법인이사장 손인웅 목사가 '통전적 선교'를 제목으로 설교하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를 제창한 후 인천은혜교회 이종복 감독이 축도하다.

■ 2부 총회(11:20-12:40)

1. 의장인사

사랑의교회 실내악단과 중창단의 축하공연 후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가 의장인사를 하다.

2. 회원점명 및 개회선언

사회자가 회원을 유인물대로 점명하니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하다.

3. 회순채택

사회자가 회순채택의 가부를 물으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4. 2011년도 사업보고

사무총장 김종생 목사가 2011년 사업을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2011년도 감사보고

감사 김광한 장로가 2011년도 감사보고를 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6. 2011년도 결산보고

회계 이창연 장로가 2011년도 결산을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7.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총무 최희범 목사가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하니 그대로 받되, 사안에 따라 일부 가감하는 것을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8. 기타안건

사회자가 기타안건 여부를 물으니 충남지회 이기선 목사가 지역활동의 강화를 건의하매 2012년 사업에 반영하기로 하다.

9. 광고 및 폐회

사무총장 김종생 목사의 광고 후 상임단장 김경원 목사가 폐회기도하니 같은날 11시 40분이었다.

2012년 2월 6일

대표회장 : 김 삼 환
이 사 장 : 손 인 웅
서 기 : 지 형 은

2. 법인 이사회 회의록

□ 2012년 2월 6일(월) 10:00~10:55 / 사랑의교회 접견실

■ 회의

1. 인사나눔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누다.

2. 회원점명 및 개회

이사장 손인웅 목사의 사회로 회원을 점명하니 참석 8명, 위임 9명, 배석 1명으로 정관 24조 의결정족수에 의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니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다.

○ 참 석 : 김동배, 김삼환, 박종삼, 손인웅, 오정현, 장경준, 최희범, 김광한(감사)

○ 위 임 : 고명진, 김성이, 우창록, 이규학, 이은화, 장현승, 조규환, 지형은, 김명옥(감사)

○ 배 석 : 김종생(사무총장)

3. 개회사

이사장 손인웅 목사가 개회인사를 하다.

4. 기도

박종삼 이사가 기도를 하다

5. 전회의록 낭독

오정현 이사의 동의와 박종삼 이사의 재청으로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6. 감사보고

감사 김광한 장로가 2011년도 감사보고를 하다.

7. 안건심의

가. 김종생 목사가 2011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를 하니 장경준 이사의 동의와 김동배 이사의 재청으로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나. 김종생 목사가 2012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보고하니 오정현 이사의 동의와 김동배 이사의 재청으로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다. 기타안건

직체개편은 초안을 기준으로 하되 연구하여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8. 폐회

오정현 이사의 기도 후 폐회하니 같은 날 오전 10시 55분이었다.

2012년 2월 6일

이사장 : 손 인 웅 / 서 기 : 지 형 은

C. Korean Diakonia 2012년 사업보고

1. 2012 설날사랑큰잔치

- 가. 일 시 : 2012년 1월 22일(주일)-24일(화) <설날 연휴 기간>
- 나. 장 소 : 서울역 광장 특설부스 및 인근 급식시설
- 다. 대 상 : 서울역 광장 주변 노숙인 및 쪽방촌 거주자 1천5백여 명
- 라. 내 용 : (1) 연인원 1만명에게 명절연휴 3일간 9끼 식사 제공
(2) 3일간 떡과일·한방차·민속놀이·노래자랑 등의 부스 운영
(3) 설날선물 증정
(4) 설날(23일) 오전 11시에 기독교긴급구호센터에서 한교봉 임원 배식봉사 참여
- 마. 주 최 : 한국교회희망봉사단
- 바. 주 관 : 구세군브릿지센터,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전국노인노숙인사랑연합회, 기독교긴급구호센터, 해돋는마을, 나눔공동체

2. 한국교회희망봉사단 2012 총회 및 월드디아코니아 창립총회

- 가. 일 시 : 2012년 2월 6일(월) 11:00
- 나. 장 소 : 사랑의교회 은혜채플
- 다. 참 석 :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임직원 및 성도 5백여 명
- 라. 내 용 : 첨부 회의록 참조

3. 서해안 생태학교 교육

- 가. 2012-제1기
 - (1) 일 시 : 2012년 2월 24일
 - (2) 장 소 : 충남 태안 신두리, 의항리, 만리포, 안면도 등 원유유출사고 현장과 그 일대
 - (3) 대 상 :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 주민 35명
 - (4) 내 용 : (가) 천연기념물 신두리 사구 탐방
(나) 서해안 기름유출 방제현장 및 사료관 견학
(다) 만리포 방제현장 해변기행
(라) 안면도 수목원 견학 및 천수만 철새 기행
- 나. 2012-제2기
 - (1) 일 시 : 2012년 7월 30일(월)-8월 1일(수)
 - (2) 장 소 : 서해안기름유출사고 현장 일대
 - (3) 참 가 : 청소년 50여 명
 - (4) 주 최 : 한국교회희망봉사단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5) 주 관 : 서해안살리기생태학교
 - (6) 내 용 : 가로림만 갯벌탐방, 태안 방제길 걷기, 서해안사료관 탐방, 두웅습지·신두리 사구탐방, 해미읍성 순교성지 탐방, 친환경 생활물품 만들기, 어울림공동체 체험 등

4. NCCJ 총회 참석 및 동일본대지진 보고회 패널 참여

가. 일 시 : 2012년 3월 26일(월)-27일(화)

나. 장 소 : 동경 성앤드루교회

다. 참 석 : 사무총장 김종생 목사

라. 내 용 : (1) 총회 참석

(2) 동일본대지진 보고회 패널 참여

(3)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지 방문 및 후속조치 논의

5. 장애인주일 선언문 발표

가. 발표일 : 2012년 4월 22일 장애인 주일

한국교회 장애인주일 선언문

4월은 우리사회 대표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뜻 깊은 달이다. 1989년 정부가 제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올해로 24회를 맞이했으며, 아울러 한국교회는 4월의 한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키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는 많이 달라졌다. 정부는 장애인 복지법을 비롯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 장애인 관련 12개의 법률을 제정했고, 지금도 새로운 법률을 준비 중이다. 법률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변화는 최근 비장애인 전문가에 의한 법률 제정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법률 제정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한국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총회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세례지침서와 극히 일부 교회에서 운영되는 장애인부서 그리고 일 년에 한번 장애인주일을 지키는 것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인식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기 보다는 교회 바깥에 있는 구제의 대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교회의 물리적 환경은 장애인의 접근을 가로 막고 있으며, 장애인 목회자는 교회의 담임목회자가 되기 어렵고 장애인 교회나 장애인 부서의 책임을 맡도록 요구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장애인은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규정되고, 설교나 대화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호칭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교회는 장애인 단체 혹은 장애인시설을 찾아가는 것 정도로 장애인을 향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아직도 장애인은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소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당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읽고, 교회를 향해 이들을 보살피도록 명령하셨음을 기억하며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소외는 항상 존재했다. 사람들은 성전 바깥에서 지체장애인이 구걸하도록 방치하였고(행2:2), 회당 안에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은 사람들로부터 외면 혹은 소외당하였으며(눅13:11), 나면서 시각장애인 된 사람의 장애는 죄의 결과로 간주했다(요9:2). 수많은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지 못하고 베데스다 못 주위에 집단적으로 거주하였고(요 5:3-5), 한센인은 부정환 자(눅5:12-16), 말 못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자(눅9:3)로 낙인화했다.

2000년 전의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장애인 차별의 모습은 오늘날 장애인 차별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나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각은 이와는 전혀 대조된다. 중도 시각장애인이 된 삼손(삿16:28-31)을 통하여 블레셋을 멸망시킬 뿐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축복을 하도록 하고(창27:1, 21-23), 중도 지체장애인이 된 야곱을 통하여 비로소 ‘이스라엘(창 32:24-28)’이라는 축복의 이름이 주어진다. 나아가 마지막 날에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바로 장애인(사35:6)임을 선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이러한 장애로 인한 차별을 해소할 뿐 아니라 장애인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임을 선포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골3:11, 갈3:28, 롬10:12, 행15:9). 예수님은 차별을 하기 보다는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또한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으며,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그 누구보다 먼저 들어갈 사람이 장애인임을 선포하셨다(눅14:21-23).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의 증거로 장애인 사역을 몸소 실천하셨으며(눅7:19-22),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존재로 장애인을 이해하셨다(요9:2-3). 사람들 사회에서는 장애가 존재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장애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장애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우선하여 사랑과 인격으로 대하셨다. 예수님에게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각기 다르게 창조하신 독특한 존재일 뿐이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하셨다. 또 성전 바깥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성전 안에서 소외당한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인정하셨으며, 오히려 소외시킨 이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예수님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종교적·사회적 장애를 경험한 이를 치유하심으로 인하여 장애를 없애셨고, 도리어 신체적·정신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증명하셨다. 또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여주시되 장애인이라 칭하는 이들과 그들을 장애인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하며,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장애’는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다.

한국교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하는 성경적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장애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로 고백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장애인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하나, 한국교회는 장애인이 장애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장애를 경험하게 하는 모든 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장애인이 우선되는 교회 공동체를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장애인이 없는 교회를 비정상적인 교회라고 고백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만이 성경적인 교회임을 선포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실천해 나갈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한다.

하나, 우리는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의 영역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한국교회는 교회의 직제·직분 등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해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우리는 설교 등에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용어 사용을 중지하고 장애에 대한 바람직한 용어 사용을 통하여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계몽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하나, 한국교회는 장애인 선교에 대하여 우선할 뿐 아니라 신학대학 교육과정에 장애인 관련 과목을 가르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하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의하여 금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민간 종합공연장과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인구 30만 명 이상 지자체 운영 체육시설로 확대되었다. 한국교회는 예배당과 각종 교회시설에 엘리베이터,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및 경보 시설과 점자 자료 및 수화 통역사의 배치 등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물리적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 전국교회에 전자·비전자 정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운영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음성인식, 수화, 점자자료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하나, 22만 청각장애인들의 복음적 접근을 위하여 수화성경 제작과 보급에 기도와 지원을 요청한다.

하나, 장애가 아닌 질병으로 분류되어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루게릭병 등 난치성 호흡불능 환우들에 대해 기도와 지원을 요청한다.

하나,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3년 1월에 평창에서 열리는 지적장애인들의 잔치인 2013 스페셜 올림픽 세계 동계대회를 계기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이 행사에 교회적 지원과 참여를 요청한다.

2012년 장애인주일에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희망봉사단 / KOREAN DIAKONIA

6. '교회사회사업' 및 '해설서' 재출간

- 가. 서 적 명 : (1) '교회사회사업' / 곽안련 (Dr. Charles Allen Clark) 著
(2) 곽안련 著 교회사회사업의 조명(가제)
- 나. 원본출간 : 1932년, 조선예수교서회
- 다. 체 제 : (1) 국배판 167쪽
(2) 국배판 283쪽
- 라. 발행부수 : 각 500부
- 마. 출 판 사 : (1) 대한기독교서회 (10,000원)
(2) 한들출판사(15,000원)

7. '교회사회사업' 재출판 기념 학술세미나

- 가. 행 사 명 : 곽안련 박사 著 '교회사회사업' 재출판 기념 학술세미나
- 나. 일 시 : 2012년 5월 25일(금) 10:30-13:00
- 다. 장 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강당
- 라. 내 용 : (1) 1부 감사예배
인도 - 김종생 목사(KD 사무총장)
성경 - 박홍자 장로(KD 부회계)
설교 - 한태수 목사(KD 상임단장) '나를 넘어 너에게로!'(빌립보서 2:1-11)
축도 - 최희범 목사(KD 총무)
축사 - 차홍봉 회장(한국사회복지협회)
(2) 세미나
좌장 : 김동배 교수(연세대)
총평 : 이만열 교수(전 숙명여대)
박종삼 목사(전 월드비전 회장)
발제 : ① 최원규 교수(전북대) - 사회복지사적 의미
② 이승열 목사(예장통합) - 디아코니아신학적 의미
③ 유장춘 교수(한동대) - 교회사회사업적 의미

8. 교회와 지역자원봉사센터 연계활성화를 위한 협력모형 개발 연구

- 가. 연구기간 : 2012. 6. 15 - 11. 14
- 나. 연구기관 : (사)한국자원봉사포럼
- 다. 연구내용 : (1) 한국교회가 처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분석
(2) 해외 기독교 자원봉사활동 현황 비교분석
(3) 교회와 자원봉사센터 연계협력 모델연구 및 향후 발전방안 제시
- 라. 연 구 진 : (1) 책임 연구원 : 김경동 교수(카이스터 테크노경영대학원 초빙교수)
(2) 부책임연구원 : 이금룡 교수(가족복지학)
(3) 공동 연구원 : 이범성 교수(신학) 정재영 교수(사회학) 이화옥 센터장(강남구자원봉사센터) 신정애 사무총장(한국자원봉사포럼) 김종생 목사(한교봉)
(4) 연구보조원 : 한세리 대리(한국자원봉사포럼)

9. 제1032차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

- 가. 일 시 : 2012년 7월 25일(수) 12:00
나. 장 소 : 평화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다. 주 최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라. 주 관 :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희망봉사단
마. 내 용 : 사 회 / 김종생 목사(한국교회희망봉사단 사무총장)
함께 여는 노래 / 바위처럼
연 주 / 권병호(피리 연주자)
개회인사 / 손인웅 목사(한국교회희망봉사단 이사장)
경과보고 / 김동희 사무처장(정대협)
메 세 지 / 김삼환 목사(前NCCCK회장, WCC제10차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
연대발언 / 홍성완 목사(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 - NCCJ 메시지 대독
이덕주 교수(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쉽터 '우리집' 개소 보고 및 섬김선언
-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소재
- 대지 315㎡ / 건평 210.58㎡(64평)
- 지하1층 지상2층 단독주택 / 방 7개
합 창 / 원폭피해자환우회 씨알 합창단
연대발언 / 한정순(원폭피해자2세환우회장)
성 명 서 / 유수상 목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경남지부)

10. 태풍피해 농민돕기 <낙과 구매> 캠페인

- 가. 기 간 : 2012년 9월 1일-30일
나. 내 용 : (1) 한국장로교총회설립 100주년기념대회 참석자 낙과 구매
일 시 : 9월1일(토) 13:00
장 소 : 잠실실내체육관
판매량 : 배 440봉지 / 2,200,000원
(2)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임직원교회 낙과 구매
사랑의교회 : 23,500,000원(배 2,500봉지 사과 2,200봉지)
은평성결교회 : 10,000,000원(배 2,000봉지)
분당한신교회 : 2,500,000원(배 500봉지)

1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관련 성명서 발표

국민을 위한 사행산업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국내 사행산업의 규모가 최근 급속하게 증가되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사행산업의 매출은 지난 1998년 3조6천억원 규모에서 2011년 18조 3천억원으로 무려 5배 이상 증가되었다. 합법 사행산업과는 별도로 불법도박이 53조원 규모이고, 해외 2조원 규모의 해외 원정도박까지 합치면 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에 충분하다.

사행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도박중독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도박중독 인구가 265만 여명에 이르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약 7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행산업의 규모 증대와 그 피해는 이미 우려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재앙으로 다가 오고 있는 현실이다. 사행산업은 땀 흘리는 노동을 통해 정당한 소득을 올려야 하는 노동의 신성함에 비추어 그 존재 자체가 문제시 되는 사업이다. 다만, 사행성 도박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 근절되지 않은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합법의 틀에서 관리 감독하기 위해 국가가 사행산업의 주체가 되는 점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국가 주도 사행산업의 목적은 수익률을 높이고 매출을 신장시키는 것이 아닌, 불법 도박 등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도박중독의 피해자가 있다면 마땅히 그 모두를 구제하고 치유하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와 사행산업체의 마땅한 의무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 지난 5월 23일 개정되어 사행산업의 통합 관리 감독, 중독예방과 치유 기능이 강화된 점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아직 미진하지만 과거보다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사감위법 개정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가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감위법은 여러 사업주체로 나누어져 시행되고 있는 사행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특히 사행산업체들이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부담금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사감위법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사행산업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해당 정부 부서 간의 입장 차이와 사행산업체간의 부담금 비율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으며 결국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해 사감위법이 11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사문화될 위기에 놓여있다.

사행산업의 규모를 키워놓은 정부가 그에 따른 피해자인 도박중독자의 치유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부서 간 이기주의로 인해 정작 중요한 사감위법 시행령이 폐기된다면 이는 국민 앞에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사행산업의 주체의 입장에서 사감위법과 그 시행령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행산업의 피해자들인 265만명의 도박중독자의 입장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 일반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경영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에 정부가 운영하는 사행산업체가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한 도박중독자 치유를 외면하는 상황은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를 넘어 심각한 도덕적 헤일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우리는 사감위법의 정상적인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사행산업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사감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감위법이 법 개정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 정부는 사행산업체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법이 정하는 최대의 금액으로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하여 도박중독예방과 치유에 앞장서라.
- 정부는 사행산업 감독과 관리 기능을 통합·강화하여 국민을 사행산업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 우리는 한국교회와 더불어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2. 9. 25.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희망봉사단

대표회장 김삼환(명성교회)

공동대표 강승삼(한국세계선교협의회) 권태진(군포제일교회) 김경원(서현교회) 김동배(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김수지(서울사이버대학교) 김양원(신망애복지재단) 김유수(광주월광교회) 김인환(성은감리교회)
단필호(기독교연합봉사회) 박성철(국가조찬기도회) 박은조(은혜샘물교회) 박중삼(한국글로벌사회봉사연구소)
박중화(경동교회) 서재일(원주영강교회) 손인웅(덕수교회) 송기성(정동제일교회) 양병희(영안장로교회)

오정현(사랑의교회) 원팔연(전주바울교회) 이봉관(서희건설) 이성희(연동교회) 이신웅(신길교회)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이재창(수원순복음교회) 이철신(영락교회) 정정섭(국제기아대책기구)
정주채(향상교회) 최이우(종교감리교회) 최홍준(호산나교회) 피영민(강남중앙침례교회)
한태수(은평성결교회)

상임단장 김경원(서현교회) 양병희(영안장로교회) 오정현(사랑의교회)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이철신(영락교회) 최이우(종교감리교회) 한태수(은평성결교회)

사업단장 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 박홍자(맛샘캐터링) 소강석(새에덴교회) 오정호(새로남교회)
윤성원(삼성제일교회) 윤호균(화광교회) 정성진(거룩한빛광성교회)

공동단장 권창영(전주예수병원) 김봉준(구로순복음교회) 김홍규(인천내리교회) 박성민(한국CCC)
박윤석(청주우암교회) 박철규(새마음교회) 서철(상동교회) 소강석(새에덴교회) 송종완(수원삼일교회)
신정환(하늘담은교회) 오정호(새로남교회) 옥성석(충정교회) 유영완(하늘중앙감리교회)
윤성원(삼성제일교회) 진희근(승리교회) 황형택

총 무 최희범(한국교회희망봉사단)

공동총무 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 정성진(거룩한빛광성교회) 조성기(교단장협의회)
최길학(여의도순복음광명교회)

서 기 지형은(성락성결교회)

부 서 기 정승룡(늘사랑교회)

회 계 이창연(스포츠서울INB)

부 회 계 박홍자(맛샘캐터링)

감 사 김광한(김광한세무사회계사무소) 김명옥(전 한국에스더구국기도회)

사무총장 김종생(한국교회희망봉사단)

12. 2012년 추석 사랑의선물 나누기

가. 기 간 : 2012년 9월 17-30일

나. 개 요 : 11개 대표적 사회적 약자 및 사회적 위로 대상자 그룹
6,890여명 대상 추석 사랑의 선물 나누기

- (1) 다문화 이주 여성 쉼터 (가정폭력 피해 여성 응급 보호 시설)
 - 전국 7개 쉼터 108명 대상
 - 추석 과일 선물 전달 *전북이주여성쉼터 김치냉장고 전달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연계
- (2)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 전국 피해할머니 60명 대상
 - 파스 및 과일 선물 전달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연계
- (3) 원폭피해자 2세 환우
 - 대구 경북, 경남지역 원폭피해자 2세 환우 61명 대상
 - 멸치 선물 세트 방문 전달
 - 한국원폭피해자2세환우회 연계
- (4) 쌍용자동차 희생자(자살자) 유족
 - 쌍용자동차 희생자 22명 중 방문가능 가정 4가정 대상

- 추석 과일 선물 방문 전달
- 심리치유상담센터 '와락' 연계
- (5) 용산참사 희생자 유족
 - 유가족 6명(경찰희생자 가족 포함) 대상
 - 오찬모임 및 멸치 선물 세트 전달
- (6) 논현동 고시원 참사 희생자 유족
 - 유가족 5명
 - 추석 과일 선물 전달
 - 지구촌사랑나눔 연계
- (7) 천안함 희생자 유족
 - 희생자 유족 46가정 대상
 - 유족회의 요청으로 추석 선물은 타 사회복지시설 기증 예정
 - 추후 유족회의 자원봉사 활동 지원
- (8) 연평도 포격 희생자 유족
 - 희생자 유족 2가정 대상
 - 추석 과일 선물 전달
 - 해병대사령부 연계
- (9) 노숙인, 쪽방 주민
 - 서울역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한가위 큰잔치'
 - 주최 : 전국노인노숙인사랑연합회
 - 일시, 장소 : 2012년 9월 28일 / 서울역광장
 - 내용 : 예배, 공연, 식사, 노래자랑, 선물증정
 - 참석 : 노숙인 및 쪽방주민 300여명 참석
 - 노숙인 및 불우이웃을 위한 한가위 희망큰잔치
 - 주최 : 기독교긴급구호센터
 - 일시, 장소 : 2012년 9월 29-10월 1일, 기독교긴급구호센터
 - 내용 : 추석 특별 무료급식
 - 참석 : 연인원 6,000여명
- (10)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 재능교육, 콜트콜텍 등 해고노동자 64명
 - 김 선물세트 방문 전달
 - 영등포산업선교회 연계
- (11) 제주 해군기지 건설지 강정마을 주민
 - 제주해군기지추진범도민협의회 사무실 방문 찬성 주민 면담
 - 강정마을 평화센터 방문 반대 주민 면담
 - 한가위 강정마을 큰잔치 참석 300여 주민에게 선물 전달

13. 구미 <불산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 돕기

가. 피해현황 : 9월 27일,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구미 제4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화학 제품 생산업체 휴브글로벌에서 플루오린화 수소산(불화 수소산, 불산)이 유출되어 23명의 사상자(사망자 5명포함)가 발생하고 공장 일대의 주민들뿐 아니라

동·식물까지 피해를 입은 사고가 발행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 350여 명은
현재 시에서 마련해 준 두 곳의 대피소로 분산 수용

나. 방문일 : 10월 4일(목)~5일(금)

다. 방문자 : 권태진(공동대표/군포제일교회) 김종생 박승철 최수철 이인수

라. 구호물품전달 : 매트릭스 40개, 생수 700명, 간식 350인분

마. 지원창구 : 구미등대교회(강재식 목사),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향후 지원 방안 모색

바. 네트워크 : 예장통합 교단 구호물품(내복 350벌) 연계전달

사. 추가협력 : 구미 불산유출피해 주민대책위원들과 간담회 개최

- 주민보상문제관련 시 당국과의 갈등에 대한 청취

- 대피소 생활의 애로사항 청취

- 언론을 통해 주민들의 실제 상황을 알려 보다 건강하게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

14. KBS 러브인아시아 기부협찬

가. 방송정보

(1) 방송시간 : KBS 1TV 매주 화요일 19:30-20:30

(2) 방송내용 : 국경을 넘어 꿈과 사랑을 이어가는 다문화 가족 감동의 휴먼 스토리. 한국으로 꿈을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가족 감동 스토리

(3) 시청률 : 15.8% (2012.10.16 AGB닐슨 제공)

나. 협찬내용

(1) 10/30, 11/6, 11/13 총 3회에 걸쳐 제작 방송되는 '러브인아시아 한·베트남 수교 20주년 특집' 제작협찬

(2) 프로그램 말미에 3회 및 예고 10회 등 총 13회 Korean Diakonia 협찬 고지

다. 기대효과 및 의미

(1) 지속적인 기관명 노출로 인해 KD 인지도 상승

(2) 방송관련자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인한 향후 다른 TV프로그램 사업진행이 용이해짐

(3)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향후 KBS 등 방송국의 프로젝트에 KD가 우선협력대상자로 지정이 가능

15.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 입주감사예배 및 오찬

가. 일 시 : 11월 5일(월) 11:30

나. 장 소 : 연남동 소재 <평화의 우리집>

다. 참 석 : 교계대표 및 한교봉 임원 및 시민단체대표 60여명

라. 개소보고 :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대지 315㎡, 건물 210.58㎡ 방 7칸

마. 순 서

○ 감사예배

인도 : 최희범 목사(총무)

찬송 : 563장 <예수사랑하심을>

경과보고 : 김종생 목사(사무총장)

기도 : 권태진 목사(공동대표/군포제일교회)

말씀 : 김삼환 목사(대표회장/명성교회)
감사인사 : 할머니님과 윤미향 상임대표
축도 : 손인웅 목사(이사장/덕수교회)

○ 축하순서

사회 : 김종생 목사(사무총장)
축하연주 : 송솔나무
축하케익 커팅
건물 라운딩 : 다함께
식사기도
오찬

바. 소요경비 : 16억원(명성교회 부담)

16. 연변 청소년돌봄센터 방문 및 협약서 체결

가. 출장일 : 11월 22일(목) ~ 11월 24일(토)

나. 출장자 : 김종생, 최수철

다. 내 용

- (1) KD한국교회희망봉사단과 (사)참된평화를만드는 사람들, 연변아리랑서로돕기창업협회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연변 청소년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함.
- (2) 이 사업은 청소년돌봄센터를 설립하여 연변 조선족 청소년 중 부모가 없거나 편부모 가정 청소년의 전인격적인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돌봄센터는 그룹홈 형태로 설립. 아리랑창업협회는 훈춘시에 10세에서 15세까지의 청소년 10여명이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 두 채를 제공하여 직접 운영하고, KD한교봉과 참된평화는 각각 돌봄센터의 운영지원 및 후원처 발굴, 사업 모니터링 등을 맡게 됨.
- (3) 돌봄센터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 특별히 이번 사업은 우리의 여성부격인 훈천시 부련회로부터 적극 지원을 받아 연변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청소년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됨.

17. 2012 이주민 사랑나눔한마당

가. 일 시 : 12월 8일(토) 15:00-18:00

나. 장 소 : 동송교회(대학로 소재, 종로구 동송동 195-6)

다. 주 최 : 한국교회희망봉사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라. 주 관 : 예장 이주민선교협의회

마. 후 원 : C채널방송, 농협중앙회

바. 내 용 :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더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랑 나눔의 축제. 이주민들이 자국의 문화를 함께 즐기는 공연과 더불어 김장을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과 나눔

18. 쪽방 주민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가. 일 시 : 12월 24일(월) ~ 25일(화)

나. 대 상 : 용산구 동자동 쪽방 주민 1천여명

다. 사업명 : 쪽방주민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 쪽방에서 만난 예수님

라. 목적 및 필요성

- (1) 성탄절을 맞아 사회적 약자인 쪽방주민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전달하여 저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 (2) 쪽방주민들의 자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상징적 시범사업 실시로 저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샘플제시
- (3) 쪽방촌 내에서 수준 높은 문화공연(연극)을 통해 쪽방주민들의 문화적 요구 수렴
- (4) 한국교회 청년들이 쪽방을 찾아 1박2일의 체험을 통해 한국사회 빈곤계층의 주거환경에 대해 고민하며 빈 방조차 없이 이땅에 오신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함

마. 세부내용

일시	프로그램명	내용
24일(월) 13:00-15:00	쪽방주민 초청 성탄문화공연	- 천상시계'(극단 나비) 공연 - 장소 : 성민교회
24일(월) 15:00-16:00	쪽방주민 초청 성탄주민잔치	- 먹거리 제공(풀빵, 국밥) - 장소 : 동자동 마을 놀이터
	쪽방 주민 심방	- 4가정 심방 및 선물전달
24일(월) 16:00- 25일(화)	쪽방 체험 프로그램 "쪽방에서 만난 예수님"	- 한국교회 청년 쪽방1일체험 쪽방에서 읽는 성서묵상·쪽방에서 쓰는 편지·체험담 쓰기 - 65세이상 고령 쪽방주민과 청년 1:1 義祖孫 결연 - 고령 쪽방주민 40여명에게 1박2일 온천휴양회 제공 (수안보온천)
	쪽방주민 자활을 위한 풀빵 리어커 창업지원	- 시범사업, 5명
	다자녀 쪽방주민 주거환경개선 지원	- 시범지원, 4자녀를 둔 1가정
	쪽방주민 1천세대 선물 증정	- 김장김치 5kg

19. 한국교회 이주민선교 기초조사

가. 조사주체 : 한국 다문화사회에서의 이주민 선교 실태와 전망

나. 조사기간 : 2012년 5월-11월

다. 발표회 : 2013년 2월 19일(화) 13시

라. 조사범위 : (1) 교회-교단, (2) 나라별 공동체, (3) 단체

마. 조사대상 : 중국동포 55만, 이주노동자 40만, 유학생 10만, 결혼이민자 25만, 탈북자 2.5만, 난민신청자 0.4만, 기타

바. 조사경비 : 3,000만원

사. 위원 및 연구원

(1) 자문위원(가나다순)

김경태 목사 (예장통합, 구민교회)

김규복 목사 (예장통합, 빈들교회)
 김성욱 교수 (합동, 총신대,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김영애 선교사 (합동)
 문창선 목사 (KIN)
 박창현 교수 (기감, 한국선교신학회)
 성명옥 목사 (예장통합, 광주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신상록 목사 (예성)
 유해근 목사 (예장통합, 나섬교회)
 이강현 목사 (천안)
 이정호 신부 (성공회, 사회선교국장)
 이철승 목사 (기감, 경남이주민센터)
 이철우 목사 (기장,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이형로 목사 (유학생)
 장창원 목사 (예장통합, 오산이주노동자문화센터)
 전철한 목사 (기성)
 조용희 목사 (예장통합, 전주근로자상담소)
 최의팔 목사 (기장,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하춘실 목사 (예장통합, 인천엘림해외선교회)
 한국염 목사 (기장,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명호 선교사 (합동)

(2) 운영위원

책임 - 황홍렬 목사(부산 장신대, 선교학)
 수석 - 김해성 목사(지구촌사랑나눔)
 박천웅 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서기원 목사(DMN/Diaspora Mongolian Network)
 공동 - 노일경 목사 (월곡교회)
 정노아 목사(세계선교위 국내외국인사역 선교사)
 한진상 교수(영동대)
 한국교회희망봉사단 - 김종생 목사, 박승철 목사

(3) 실무위원

황홍렬 목사(부산 장신대, 선교학)
 노일경 목사 (월곡교회)
 박홍순 사무총장(호남신대 연구교수)
 정노아 목사(세계선교위 국내외국인사역 선교사)
 한진상 교수(영동대)
 박승철 목사(한국교회희망봉사단)

20. 용산참사 구속자 특별사면을 위한 탄원 요청

가. 서명자 : KD한국교회희망봉사단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CK) 총무 김영주 목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전병금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손달익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이영훈 목사
 대한성공회 서울관구장 김근상 주교
 한국구세군 박만희 사령관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장 손인웅 목사
 월드디아코니아 이사장 오정현 목사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노승숙 장로
 극동방송 회장 김장환 목사

나. 과 정 : 2012. 12. 12 청와대와 법무부에 공문발송
 다. 탄원서

용산참사 구속자 특별사면 탄원서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께

온 국민들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임기를 시작하신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의 마무리를 하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님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온 것처럼 대통령님의 사역이 잘 마무리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언제나 소외된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왔고, 민족의 아픔에 함께 동참해 온 귀한 전통이 있습니다. 특히 성탄절 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왔습니다.

대통령님께 지난 2009년 1월 발생해 온 국민을 큰 비탄에 빠지게 한 ‘용산참사’로 인해 구속·수감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탄원하고자 합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 희생자 장례, 유족장학금 지급, 격려금 지급 등 지난 4년 동안 유족들을 꾸준히 도와왔습니다.

구속자들은 모두 생사의 갈림길에서 겨우 탈출한 생존자들로, 지금까지도 엄청난 화재사건의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이 구속되면서 가족들의 생활형편은 말이 아닌 상황입니다.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의 부재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에는 아버지는 참사에 희생되어 사망하고, 아들은 구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를 섬기며 우리 사회에 섬김의 사명을 다하려는 저희는 이번 특별사면이 용산참사로 인한 비극을 치유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4년 가까이 착실하게 수형생활을 하여 특별사면될 법적 조건도 갖추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저들이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2012년 12월

다. 결 과 : 2013. 01. 29 발표 <설 특별사면>에 용산참사 구속자 5명 포함

21.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연대회의 경과

가. 경과보고

일 시	내 용
2012년 4월 27일	특별법 제정추진위 1차 준비모임
2012년 8월 3일	특별법 제정추진위 2차 준비모임
2012년 8월 14일	특별법 제정추진위 3차 준비모임
2012년 8월 24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서 특별법 제정추진위 4차 준비모임
2012년 9월 12일	특별법 제정추진위 공식 출범 13개 단체로 출발, 1차 전체회의(합천평화의집)
2012년 9월 19일	특별법 제정추진위 2차 전체회의
2012년 10월 11일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2012년 10월 31일	특별법 제정추진위 3차 전체회의(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실무단 등 구성)
2012년 11월 13일	특별법 제정추진위 워크숍 및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실 방문
2012년 12월 3일	특별법 제정추진위 (준)실무소위 1차 회의
2012년 12월 6일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실 방문, 특별법제정추진위 4차 전체회의
2012년 12월 7일	새누리당 김정록의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국내외 유사법안 사례 검토 분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법, 강제동원규명및지원법, 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 국내 원폭피해자 지방지원조례, 일본 피폭자 원호법,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법안 및 17대, 18대 국회 기존 법안 및 보건복지위 법안검토분석보고서 등 검토 분석
2012년 12월 26일	특별법 제정추진위 2차 실무소위 회의
2012년 12월 27 ~2013년 1월 7일	명칭 개정 온라인 표결 및 의견청취 실시
2013년 1월 7일	3차 실무소위 회의
2013년 1월 9일 ~22일	참여단체 확대구성을 위한 참여제안서 발송 및 참여단체 확대조직 활동
2013년 1월 17일	강제동원희생자 조사 및 지원위원회 방문 면담
2013년 1월 18일	이학영 의원실 방문, 이학영의원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초안 나눔. 초안 검토 의견 교환 및 향후 일정 논의
2013년 1월 21일	실무소위 임시 모임
2013년 1월 23일	5차 전체회의 및 조직확대개편, 명칭 개정
2013년 1월 24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국회 이학영의원실, 국회 김정록 의원실 방문

나. 원폭피해자 합창단 '씨알' 서울투어

- (1) 일 시 : 2012년 7월 25일(수) 14:00-21:00
- (2) 장 소 : 63시티 씨월드, 스카리아트, 왁스뮤지엄
- (3) 참 석 자 : 18명

다. 원폭피해자 가족을 위한 기도회

- (1) 일 시 : 2012년 8월 8일(수) 19:30
- (2) 장 소 : 명성교회 새성전
- (3) 주 최 : 한국교회희망봉사단
- (4) 내 용 : 인 도 / 최희범 목사(한국교회희망봉사단 총무)

기 도 / 박홍자 장로(한국교회희망봉사단 부회계)
 설 교 / 이극범 목사(파리한인장로교회)
 합심기도 / 심현승 목사(기하성 사회복지위원장) - 원폭피해자 환우를 위하여
 김동배 교수(연세대, 한교봉공동대표) -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영 상 / “바위틈에 피어나는 희망의 꽃”-원폭피해자 환우 다큐멘터리
 인 사 / 한정순 회장(원폭피해자2세환우회)
 격 려 사 / 이재영 의원(새누리당)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
 송합차량 전달식 / 명성교회가 환우회 대표에게
 광고 및 인사 / 김삼환 목사(한국교회희망봉사단 대표회장)
 선 언 문 / 김종생 목사(한국교회희망봉사단 사무총장)
 축 도 / 손인용 목사(한국교회희망봉사단 이사장)

라. 원폭특별법추진위원회 워크샵

- (1) 일 시 : 11월 16일(금) 14:00
- (2) 장 소 :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4층 제2연수실
- (3) 프로그램
 - 1) 생기놀이: 오상열(기독교평화센터)
 - 2-1) 원폭운동의 역사(과거, 현재, 미래) - 강제숙(발제자)
 - 2-2) 특별법 법안 정리, 제안 - 김준현
 - 2-3) 역학조사, 2세 영향 - 인의협, 주영수 / 김익중
 - 3) 종합토론: 운동의 방향 등 논의
- (4) 영상 감상 : 원폭 60년, 그리고... (김환태 作) 등

22.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호스트타운 오리엔테이션 및 프로그램

가.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 (1) 일 시 : 2012. 6. 21(목) 14:00
- (2) 장 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에이레네
- (3) 참석자 : 총 16명
 최대열목사(명성) 장상주목사(여의도순복음) 장성진전도사(창동염광) 이명숙
 목사(통합) 최한얼목사(루터) 이재동장로(기성) 김일환목사(기사봉) 이훈삼
 (NCCK) 이예자목사(NCCK) 김종생목사(KD) 전해선목사(KD) 이정현본부
 장(2013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 송영대(마케팅) 김현준(마케팅) 석미림(문
 화행사) 김상덕(호스트타운)

나.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 (1) 일 시 : 2013. 1. 26(토) ~ 29(화), 3박4일
- (2) 진행장소 : 가평 필그림하우스, 양주수련원, 발리관광호텔, 안성수양관
- (3) 참여교회 : 지구촌교회(스웨덴), 창동염광교회(핀란드), 명성교회(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랑의교회(싱가폴, 아르메니아, 엘살바도르)

(4) 주요프로그램

일시	교회명	장소	주요프로그램	
27일 (주일)	12:00	명성교회	본교회 은혜교육관5층	환영오찬 및 사랑부 문화공연
	14:00	창동염광교회	본교회	아쿠아리움 관광
	15:50	사랑의교회	명동투어	한국문화체험활동
	17:30	지구촌교회	가평 필그림하우스	환영만찬 및 문화공연
28일 (월)	10:00	명성교회	경복궁, 63빌딩	문화체험활동
	10:10	사랑의교회	국립민속박물관	
	11:00	지구촌교회	롯데월드	문화체험활동
	14:00	창동염광교회	본교회 비전홀	한국전통문화체험활동
	19:00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	문화교류활동
29일 (화)	12:00	전교회	평창선수촌 입촌	

23. 동자동 주민과 함께하는 설날잔치 <사랑 더하기, 밥 나누기>

가. 일 시 : 2월 9일(토) ~ 11일(월) 아침, 점심, 저녁 총 9식 <설 연휴 기간>

나. 장 소 : 동자동 성민교회(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6-1 / 한양전문학교 건물)

다. 대 상 : 서울역 동자동 지역 쪽방 주민 1,000세대 대상

라. 급식 인원 : 매 식사 마다 동자동 쪽방주민 약 300명

마. 협력파트너 : 동자동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성민교회, 모리아교회 등

바. 참 여 교회 : 여의도순복음교회, 은평성결교회, 종교교회, 영락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삼성제일교회, 한소망교회, 꿈의교회(탈북민교회) 등

사. 자 원 봉사 : 매 식사마다 약 30여명 (연인원 270여명)

아. 세부내용

(1) 동자동 주민과 함께하는 설날잔치 자원봉사자 헌신예배

(가) 일시 : 2013. 1. 30(수) 19:15 (*자원봉사자 식사 18시)

(나) 장소 : 은평성결교회

(다) 내용 : 동자동 주민과 함께하는 설날잔치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교육 및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

(라) 예배순서자 : 설교/손인웅 목사, 기도/박홍자 장로, 인사/최희범 목사, 안내/김종생 목사

(마) 참가교회 : 영락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은평성결교회, 종교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한소망교회, 삼성제일교회, 꿈의교회, 고향의봄합창단 14명

(2) 식사

(가) 배식시간 : 점심 12시 / 저녁 17시 (아침의 경우 전날 저녁식사때 포장하여 전달)

(나) 배식장소 : 성민교회 본당

(다) 급식인원 : 약 300명

(3) 자원봉사

(가) 봉사시간 : 배 식 : 점심 11시~14시, 저녁 16시~19시

도시락 : 점심 12시 ~ 14시, 저녁 16시 ~ 18시(10일)

(나) 봉사인원 : 매 식사당 30명

(다) 봉사내용 : 음식배분, 안내, 테이블 정리, 설거지, 뒷정리 등

* 도시락 봉사의 경우 다음날 아침 먹거리 포장 포함

	9일(토)	10일(일)	11일(월)
점심	거룩한빛광성교회	사랑방마을조합	영락교회
도시락	한소망교회	삼성제일교회(4시)	여의도순복음교회
저녁	종교교회	탈북민봉사자 쪽방체험청년	은평성결교회

(4) 공연

(가) 일시 : 2월 10일(주일/설날) 16시 ~ 16시 40분(40분)

(나) 장소 : 성민교회 본당

(다) 내용 : 합창 - 고향의봄합창단(14명) 평화예술봉사단
탈북민, 쪽방 어르신에게 세배하기
임원 인사

■ 네트워크 사업보고

1. 전국 지부 네트워크 사업

가. 2012 지부 임원초청 간담회

(1) 일 시 : 2012년 3월 19일(월) 11:00

(2) 장 소 : 서울역 KTX역사 글로리아 4 회의실

(3) 대 상 : 전국 지회 임원 등 17명

(4) 논 의 : (가) 각 지회의 명칭 및 소속은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지부’로 하기로 함.

(나) 각 지회 내에 ‘한국교회봉사단’의 각 지역 지회를 설치하기로 함.

(다) 2012년도는 각 지역별 지부 강화 및 미조직지역의 지부설립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

(라) 지부 강화 및 미조직지역의 지부설립 소요예산은 본부예산 중 전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 지역 자부담 사업비만큼 지원하여 조성하기로 함.

나. 2012-1차 회의

(1) 일 시 : 2012년 5월 25일(금) 14:00

(2) 장 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에이레네

(3) 참 석 : 이상진 이성도 김연성 김길구 고명길 최상민 이기선 박종일 최희범 김종생

(4) 논 의 : (가) 지부 강화 및 설립 추진사업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자부담 50% 원칙은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가결

(나) 지부별 지원금 교부사업을 매칭펀드 형식으로 추진하되 자부담 비율은 탄

력적으로 적용하기로 가결

- (다) 지부 강화 및 설립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별 중진목회자 초청 사회복지 세미나의 순회개최 추진을 모색하되, 강사는 본부에서 섭외 파송하고 장소 및 일시 등 제반 준비는 지부에서 준비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함
- (라) 전국 지부 임원 연석회의를 매2개월에 1회 개최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는 7월 25일(수) 11:00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에이레네에서 갖기로 가결

다. 지부임원연석회의

- (1) 일 시 : 2012년 7월 25일(수) 13:30
- (2) 장 소 : 정동 달개비
- (3) 참 석 : 김언성(경북), 송종완(경기남), 유수상(경남)
- (4) 논 의 : (가) KBS 러브인아시아 기부협찬 추진을 허락하기로 가결
 - (나) 성탄특집 다큐멘터리 제작협찬 추진을 허락하기로 가결
 - (다) 원폭피해자2세 지원사업의 추진을 허락하기로 가결
 - (라) 기사협 지부별 사회복지세미나 개최 추진을 허락하기로 가결

라. 충북지부 재설립

- (1) 일 시 : 2012년 9월 25일(화) 10:30
- (2) 장 소 : 서원경교회
- (3) 조 직 : 회장 장석연(서원경교회), 총무 박종일(오창대광교회), 서기 방승필(목도중앙교회)
- (4) 내 용 : 설립예배, 복지대회, 만찬

2. 한국교회사회봉사협의회(한교사협) 정책회의

가. 2012-1차 정책회의

- (1) 일 시 : 2012년 3월 23일(금) 11:00
- (2) 장 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에이레네
- (3) 참 석 : 김민섭 김성수 박종연 심현승 이대성 이수근 이승열 이준모 김일환 김종생
- (4) 결 과 : (가) 교단이 인정하는 공조직을 지향하되, 우선은 교단과 기관의 사회복지·봉사 실무책임자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축할 것이 제안
 - (나) 추후 대정부 정책제안이나 교단간 정책논의를 위한 사업 등의 추진이 제안
 - (다) 구체적인 모임의 성격규정을 계속 연구하여 차기 회의에서 발전적인 논의
 - (라) 구성원은 실무책임자로 한정하여 각 교단에 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함
 - (마) 각 교단에 사회복지·봉사 실무책임자 네트워크로서의 한교사협의 승인 청원
 - (바) 기 발표된 ‘한국교회 디아코니아의 발전과 갱신을 위한 에큐메니칼 선언’의 인준청원 및 창립총회 개최 제안
 - (사) 교육부 인정 신학교를 보유한 25개 교단으로 회원교단의 확대 제안
 - (아) 조직 구성 및 교단의 인정을 받는 공조직화를 먼저 추진하기로 하고, 연합 및 연대사업은 추후 논의
 - (자) 내규 초안을 작성해 추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적정수준의 각 교단 및 기관의 회비와 조직구성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하기로 함

나. 2012-2차 정책회의

- (1) 일 시 : 2012년 4월 27일(금) 13:00
- (2) 장 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에이레네
- (3) 참 석 : 김민섭 김성수 박종언 심현승 이수근 이승열 이준모 김종생
- (4) 결 과
 - (가) 한교사협의 성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기로 가결
 - “참여교단과 에큐메니칼 연합봉사기관이 파송한 실무책임자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협의체”
 - (나) ‘한국교회 디아코니아의 발전과 갱신을 위한 에큐메니칼 선언’(2011. 10. 31)을 각 교단에 최종자구수정을 전제로 인준을 청원하기로 가결
 - (다) 창립총회를 2012년 10월 경에 개최하기로 가결
 - (라) 회원 확대는 교육부인정 신학교를 보유한 25개 교단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가결
 - (마) 회칙은 초안을 검토하여 차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가결
 - (매) 각 교단 및 기관의 회비는 타 연합기관의 현황을 참고하여 차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가결
 - (사) 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차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가결
 - (아) 광안련 著 <교회사회사업> 재출간 세미나의 후원명칭 사용을 허락하기로 가결

다. 2012-3차 정책회의

- (1) 일 시 : 2012년 5월 25일(금) 09:30
- (2) 장 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에이레네
- (3) 참 석 : 김민섭 김성수 심현승 육광철 조이철 김종생 한상업 박승철
- (4) 결 의 : (가) 회칙초안 중 자구 수정이 아래와 같이 제안되매 차기회의에서 검토 후 최종 결의하기로 가결

*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변경전	변경후
1. 의장 / 2. 부의장	1. 회장 / 2. 부회장

※ 이후 해당사항 변경

* 제7장 보칙 제30조(임원의 보수) ※ 신설
“임원은 비상근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 (나) 회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인정 신학교를 보유한 25개 교단의 리스트를 토대로 차기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하기로 가결

라. 제2012-4차 한국교회사회봉사협의회(한교사협) 정책회의

- (1) 일 시 : 2012년 6월 29일(금) 11:00
- (2) 장 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에이레네
- (3) 참 석 : 김성수 박종언 심현승 이승열 김일환 김종생 박승철
- (4) 결 의 : (가) 회칙은 2012-3차 정책회의에서 제안된 아래 자구 수정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나) 회칙 제1조(명칭)에서 협의회의 영어명칭 수정이 제안되매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가결하다.

△ 수정 전 : Christian Council of Social Welfare and Volunteer

△ 제 안 : ① Council of Korean Church's Diakonia

② Council for Social Service in Korean Church

(㉔) 한교사협의 인준을 회원 소속교단의 총회에 보고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공문을 발송하기로 하다.

(㉕) 회원 확대를 위해 ‘한국교회 디아코니아의 발전과 갱신을 위한 에큐메니칼 선언’의 제목 및 내용에 있는 ‘에큐메니칼’이라는 용어를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로 수정하기로 가결하다.

(㉖) 회원확대를 위한 대상교단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가결하다.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성결교(기성)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대한예수교장로회(중앙)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연) 예수교대한성결교(예성)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한국구세군(구세군) 대한성공회(성공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나사렛)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신) 기독교한국루터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중앙)

3. 한국교회 사회봉사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

가. 취 지 : 한국교회가 수행해 온 사회봉사의 현주소를 조명해 보고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성 등을 숙의

나. 위 원 : 김동배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
이승열 목사(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
홍주민 목사(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이준우 교수(강남대 사회복지학)
유장춘 교수(한동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
조홍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정무성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김재환 목사(월드비전)
손의성 교수(배제대 복지신학과)
김종생 목사(한교봉 사무총장)
박승철 목사(한교봉 사무국장)

다. 내 용 : (1) 사회복지시설 수탁 문제
(2)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영성과 전문성 재고
(3) 디아코니아 관련 각종 네트워크 및 조직화 관련
(4) 사회복지·봉사영역 연합체 조직
(5) Christian Foundation 설립

D. Haiti 사업보고

※ 2012년 사역보고를 끝으로 World Diakonia로 사업 및 재정 이관

1. 지진발생 및 모금 경과

- 2010. 01. 12 아이티 지진발생
- 2010. 01. 20 서울시에 기부금 모집승인 요청
- 2010. 01. 30 한국교회희망봉사단과 한국교회희망연대 조직통합의 첫 사업으로 아이티 지진구호를 위하여 국민일보, CBS, CTS와 함께 공동모금하기로 함
- 2010. 01. 20~02. 28 국민일보, CBS, CTS등과 같이 37억원을 모금

2. 재난구호 및 이재민 지원 사역

가. 초기 긴급구호 사업

- (1) 긴급구호 실사단 파견(2010. 01. 18)
- (2) 포토프랑스內 ‘까바레’지역긴급구호(34,481.26달러, 2010. 01. 22)
- (3) ‘히마니’시 부엔 사마리탄 병원(선한 사마리아 병원) 의약품과 음식팩 1400개 지원 (21,000 USD, 2010. 01. 25)

나. 초기 NGO · 교단 연합사역

- (1) 아이티지진구호 협력사역 모색을 위한 한국교회 원탁회의 간사단체로 참여(2010. 02. 08)
- (2) 외교통상부, NGO 등과 함께 민관실사단으로 현지실사(2010. 02. 24)
- (3) 한국교회 아이티 중장기 지원 연합사역 모색을 위한 세미나 준비와 진행(2010. 03. 30)
- (4) 아이티 현지에 구호단체 연합 구성(2010. 05. 16)
- (5) 아이티 복지 센터 및 학교 설립 협력을 위한 개신교 연합 대표자(2명) 한국초청(2010. 09. 27)

다. 중기 지원 사업

- (1) 아이티 현장상황실 개소 및 직원 상근(이인수 목사, 2010. 04 .01)
- (2) 콜레라 퇴치사업
 - ① 아이티 씨티솔레 지역에 콜레라 긴급구호 자금 지원(30,000 USD, 2010. 11. 23)
 - ② 시티솔레 와프제레미(Cite Soleil Wharf Jeremie) 콜레라클리닉 설립(30,000 USD, 2010. 12. 31) / 한교봉·예장합신·굿피플 공동설립
 - ③ 가나안 과다부케(Cannan Croix-des-bouquet) 콜레라클리닉 설립(2억원, 2011. 12. 31) / 도미니칸교회협의회(NCCD)와 공동설립
- (3) 교회재건사업 - 포토프랑스, 레오간, 씨티솔레 지역 70개 교회 재건(4억 9천만원, 2010. 5. 12-2011. 12. 31) / 캐나다 선교단체 GAP을 사업자로 선정해 건축 진행

※ 재건교회명 및 지역

	교회명	지역
1	베데스다교회	Delmas 32, Rue Louverture plonge #20
2	믿음의교회	Delmas 32, Rue beau #40
3	솔닷오순절예수교회	Delmas 75, Siloe Rue Eden #8
4	세몬트침례교회	Mais gate 12, Rue Nabussan Imp Simeon #3
5	크로아니제일교회	Delmas 75, Zone Siloe Imp Gospel #6
6	장막침례선교교회	Delmas 75 Prol Morne Siloe Rue des Jeunes #33
7	하나님자비의교회	Tabarre 27 Impasse Millien
8	엘로힘복음교회	Delmas 33 Prolonge Cite Castro Rue Toussant #7
9	마하임장로교회	Meyer 5, Ruelle Amn Croix-des-Bouquets
10	제일침례교회	Delmas 31 Rue Hatt 6 #2
11	데미에오순절교회	Delmas 31 Rue Hatt 6 #11
12	올리버하나님의교회	Tabarre 41 Rue Trouritier
13	카라듀하나님의교회	Tabarre 48, Rue Narestan #20 Caradeux
14	예수그리스도카라듀교회	Tabarre 48 Haut lycee Jean Marie Vincent
15	거룩한침례교회	Delmas 33 Rue des anges et rue la prix
16	크리스찬연합교회	Angle, Rue Maranatha #2 de Lilavoit #14 Bon repos
17	마하임장로교회	Meyer 5, Ruelle Amn Croix-des-Bouquets
18	필라델피교회	Merger Route Neuve La plaine
19	하나님의교회	Delmas 18 Rue pean #7
20	킹덤라이프크리스찬교회	Delmas75Puitsblain30
21	벨라토침례교회	Belanton 2, Route Lasserre, Croix-des-Bouquets
22	살아있는하나님의교회	La Hatt-12 @2, Croix-des-Bouquets
23	데스피노침례교회	Route National #3 Despinos
24	일라보아오순절교회	Lilavoit 22 #24 Bon repos
25	산토연합교회	Santo 19, rue Manquier, Imp Nau
26	로세교회	Route9,CarrefourLerebourg#2
27	로아움드디유교회	CitéSoleilProjectLinthaudI-11
28	봉사마리땡교회	Lintho#1-#83,CiteSoleil
29	사마리교회	#36Imp.Chavannes,Bois-Neuf,CitéSoleil
30	서꾸르교회	CiteGerard#1
31	서꾸르교회	Linthaul#29
32	시떼제라드교회	CitéGerardIEnfacelÉgliseWesleenuerouteRailleCitéSoleil#49
33	아썸블레	LinthaudI-9,CitéSoleil
34	드디유교회	Cité Soleil ProjectLinthaud I- 11
35	프레르유니교회	Linthaul#273
36	베세다 교회	del 32rue louverturepolonge # 20
37	카라듀스의 예언교회	axe maisgateprolongee # 51
38	프리메르 크로장스 교회	delmas75 prolsilo Imp gospel # 6 bes
39	차리테의 하나님교회	tabarre27 Impasse milien
40	모리자 침례교회	delmas 75zone siloerue experance #1
41	엘로히웨 교회	cite castro, rue toussaint # 7
42	인디펜던트교회	impasse volonte de dieutabane 27
43	믿음의교회	delmas 31 hatt 7#7
44	믿음의교회	Delmas 2 K-3 H23
45	예루살렘교회	tabarre41 rue troitier

46	난민의집 교회	Tabarre 27rte sfe. Philomene,ferme
47	사랑의교회	maisgate 48 Rue jnbaptistecaradeux #40
48	마하닌 교회	delmas 75 (siloe) rue catolpaprol. #66
49	코미노테 교회	delmas 33 rue st. patrick nabusant #13
50	하나님 계시의 교회	cite soleil 11 rue audain #465
51	에벤에셀 교회	cite soleil 17 l'emterier
52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교회	cite soleil 19 b
53	하늘비전의 아이티 교회	delmas 4 imp. Volcy #v3
54	하나님의 동반자 교회	projetl' intheau l
55	아버지의 교회	cite soleil 17 ll88, int.
56	아이티자유교회	cite soleil 17 ll84
57	예수그리스도교회	cite soleil 17 rue 4 serceuil ll88
58	뉴얼라이언스 교회	2e cite gerard ll7
59	크리스찬교회	Angle, Rue Maranatha #2 de Lilavoir #14 Bon repos
60	예수그리스도교회	2e cite gerard #22
61	하나된크리스찬교회	3e cute lumierrelleke bas #44
62	필라델피아교회	merger Route Neuve #82 La plaine
63	영적인세움교회	rout meufduvivier ll125
64	성경의대사교회	delmas 18 Rue st. lot ll56
65	예수그리스도의 교회	dexieme cite gerard
66	인터네셔널교회	Delmas 19, Rue Bieno Prophete
67	좋은소식교회	9 Linz Harry Village Ave Mais Gate 8
68	승리교회	Maiani #8 Carrefour
69	메씨예수교회	2ieme Cite Gerard, Rue L'union
70	인디펜던트선교교회	Cite Militaire Rue Paul Moral Imp Godson #15

(4) 아이티 재건 협력사업

- ① 아이티 주둔 한국PKO 레오간 르웬느강 제방 보강용 마대 지원(9,248,000원, 2010. 12. 01)
- ② 지진피해 희생자 자녀들을 위한 고아원 설립 및 지원
 - (a) 은혜고아원(대표 레네목사, 김현철 선교사) 운영비용 지원(22,840,000원, 2010. 12. 01)
 - (b) 사랑의집 고아원(대표 백삼숙 목사) 설립비용 지원(50,000,000원, 2010. 12. 25)
- ③ 아이티개신교협의회와 공동으로 크리스천 빌리지 울타리 공사 지원(105,860,912원, 2010. 12. 10)

라. 2012년 Haiti 지역 커뮤니티 개발 사업 추진

- (1) 학비지원(16명) 6,500 USD - 초등학생 11, 중학생 4, 고등학생 1
- (2) 극빈층 생활비 지원 1,000 USD
- (3) 초등학교 운영지원 6,800 USD
- (4) 지역주민 성탄절 선물 3,500 USD
- (5) 현지 교회건축 지원 8,000 USD
- (6) 고아보육원 소중한사람들 빵값 지원 900 USD

※ 사안별로 별도의 도네이션을 받아 추진한 사업임

E. 결산보고

감 사 보 고 서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희망봉사단 대표회장 귀하

우리 감사인은 2013년 2월 13일 10시부터 귀 봉사단의 2012년도 중에 이루어진 재정 및 행정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임하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감사 시에 아래의 장부 및 부책을 중점적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1. 수입, 지출에 따른 일자별, 항목별 검토 (각종 입출금 전표 확인)
2. 직원 급여 명세서 (원천징수상황확인)
3. 수령한 세금계산서 편철 확인
4. 각종 사업비 지출 내역 확인
5. 각종 수신, 발신 공문서 편철 상태 확인

2013. 02. 13

감사 김 광 한


(인)

감사 김 명 옥


(인)

별 첨 : 감사의견서 1부 끝

감 사 의 견 서

1. 수입지출금액 검토 (전년도 이월금 포함)

(단위 : 원)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	증감비율(%)
일반사업	수입	942,377,354	1,421,885,093	479,507,739	150%
	지출	697,002,727	1,057,245,807	360,243,080	151%

(수입) 전년도 대비 479,507,739원 (150%) 증가

(지출) 전년도 대비 360,243,080원 증액 지출 - 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보임

2. 예적금 현황

(단위 : 원)

계(%)	일반사업(%)	아이티(%)
2,685,177,294 (100%)	361,794,624 (15.6%)	2,323,382,670 (84.4%)

① 예적금 내역 확인한 바 장부와 통장 및 은행 잔고 증명 등이 일치하였음.

② 예적금 합계 2,685,177,294원 중 1,400,000,000원은 보다 이율이 높은 MMF로 전환 조치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생각됨.

금년 3월 말 만기되는 200,000,000원도 MMF로의 전환 조치가 필요할 것임.

※아이티 적금은 2013년 중 아이티 목적대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됨.

2. 감사 의견

- (1) 감사에 임하면서 사업별 내용별 장부와 은행통장 및 연말 현재 잔액 등을 확인한바 정확하였음.
- (2) 각종 장부의 정리, 공문서의 접수와 발송 및 전표정리 등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대로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관계 기관별, 구분별 편철 관리 시 유실 및 훼손 방지 노력을 권고 드립니다.)

Korean Diakonia 2012년 결산서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이월금

(단위 : 원)

관	항	목	전년이월금	산 출 근 거 (비고)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366,440,311	전년 이월금

■ 수입부

(단위 : 원)

관	항	목	합계	산 출 근 거 (비고)
회비	회비	일반회비	136,265,000	임원 및 회원 정기회비
후원금	후원금	사업후원금	14,500,000	사업비 후원
		지정후원금	330,262,395	지정 후원
		경상비후원금	276,075,000	사무국 운영비 및 인건비 지정 후원
		일반후원금	45,002,500	일반 후원
		물품후원	149,327,000	물품 후원
보조금	보조금	국고보조금	30,000,000	농어촌하계봉사, 거리의성탄절 사업비 보조
잡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397,312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잡수입	9,951	국세환급금 외
진도금	진도금	진도금	6,151,250	사업관련 진도금
선납세금	선납세금	선납법인세	15,427,030	선급법인세 환급
예수금	예수금	예수금	24,221,190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개인부담분 공제
미지급금	미지급금	미지급금	27,806,154	법인카드사용분
총 계			1,055,444,782	

■ 지출부

(단위 : 원)

관	항	목	합계	산 출 근 거 (비고)
사무비	운영비	임대관리비	36,183,600	사무실, 복사기 임대관리비
		통신비	5,767,229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사용료 등
		운반비	390,500	퀵, 택배 사용료
		도서인쇄비	3,842,900	신문구독료, 도서 구입
		소모품비	4,522,190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여비교통비	6,752,340	월정/시간주차료, 통행료
		수수료	6,540,968	CMS 관련/회계사기장/송금 수수료 등
		제세공과금	13,743,020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동차세
		차량유지비	5,816,300	주유비, 차량정비비
		잡비	59,680	잡비
		소 계	83,618,727	
		인건비	급여	141,529,724
	상여		104,566,040	직원 상여
	퇴직적립금		24,065,695	직원 퇴직적립금
	일용잡급		1,105,628	회보편집 일용직
	퇴직급여		6,203,081	퇴직 급여
	기타후생비		17,864,628	건강보험료, 직원 및 손님 식대 외
	교육훈련비		140,000	유관기관 교육프로그램 참가비 외
	소 계	295,474,796		
합 계			379,093,523	
사업비	구호사업비	해외구호(일본구호)	1,492,811	NCCJ총회 참석 일본출장 경비
		해외구호(자원봉사)	1,521,432	해외파견 자원봉사자 지원
		국내구호(서해안)	6,509,450	서해안사료관설치공사비잔금 외
		국내구호(재해)	8,040,770	구미 불산유출 피해지역 및 낙과판매행사 외
		국내구호(탈북자)	10,000,000	탈북모자가정실태조사 및 어머니학교 진행경비
		국내구호(북한구호)	194,683,684	북한구호 사업 지정 경비
		소 계	222,248,147	

관	항	목	합계	산출근거(비고)
사업비	기획사업비	거리의성탄잔치	21,404,420	거리의성탄잔치 행사 진행 비용
		설날사랑큰잔치	74,323,600	설날사랑큰잔치 행사 진행 비용
		정대협사업지원	21,483,840	정대협 사업지원 비용
		위안부쉼터운영지원	3,000,000	위안부쉼터운영지원비용
		원폭및방사능누출피해자지원사업	20,986,936	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 진행 비용
		영역별실태조사	41,590,420	한국자원봉사포럼연구비, 이주민실태조사 경비
		교회사회사업출판	12,023,950	교회사회사업출판 진행 비용
		농어촌자원봉사	20,000,000	농어촌하계봉사 진행 비용
		농어촌자원봉사정산(반납)	1,503,000	농어촌하계봉사 거룩한빛광성 기지출분 반납
		중독예방캠페인	42,850	중독예방캠페인사업 진행 비용
		다문화큰잔치	5,968,700	이주민사랑나눔잔치 행사 진행 비용
		연변청소년돕기	2,437,715	연변청소년돕기 사업 진행 비용
		디아코니아센터설립	50,000,000	글로벌디아코니아센터 설립 비용
		사회복지지역조사	27,882,980	사회복지지역조사 경비
	소 계	302,648,411		
	기타사업	행사비	12,067,000	총회 진행 비용
		직원교육사업	16,393,350	직원하계연수, 역량강화 교육지원 외
		홍보사업	9,400,000	단체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제작, 회보제작 비용
		물품후원	149,327,000	웰컴에프에스 물품후원 비용
		사업추진비	9,505,288	사업추진시 경비
		기타사업	76,668,700	유관기관 행사 후원금 및 연회비 외
		소 계	273,361,338	
	조직사업비	분야별사업단조직	600,000	분야별사업단 조직 준비비
		영역별협의체조직	600,000	영역별협의체 조직 준비비
		한교사협 설립	2,481,900	한국교회사회봉사협의회 설립 준비비
		지회강화및설립	4,994,950	지회강화 및 설립 준비비
		네트워크강화	15,314,100	네트워크강화 및 준비비
		사회복지네트워크조직	18,197,230	사회복지시스템 참관 경비 외
		자원봉사네트워크조직	300,000	자원봉사 네트워크강화 경비 외
		한교사협 조직	1,500,000	한교사협조직 강화 경비 외
		소 계	43,988,180	
	합 계	842,246,076		
	재산조성비	재산조성비	집기비품	4,572,960
차량운반구			26,459,250	원폭2세환우회 지원차량 구입
선납세금			54,510	이자소득 원천징수
소 계			31,086,720	
합 계	31,086,720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61,170	의환차손 외
전도금	전도금	전도금	6,467,650	사업관련 전도금
예수금	예수금	예수금	23,687,940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개인공제분 납부
미지급금	미지급금	미지급금	26,938,087	법인카드사용분
총 계			1,309,881,166	

2012년 결산	이 월 금	366,440,311
	총 수입	1,055,444,782
	총 지출	1,309,881,166
	잔 액	112,003,927
지정기금	기본자산	33,620,000
	월드디아코니아 기본자산	50,000,000
	총 잔 액	28,383,927

아이티 2012년 결산서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이월금

(단위 : 원)

관	항	목	전년 이월금	산출근거 (비고)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2,389,754,178	전년이월금

■ 수입부

(단위 : 원)

관	항	목	합계	산출근거 (비고)
후원금	후원금	지정후원금	6,785,848	KBS방영-제키지정후원금 (노남순 월15만원)
		소계	6,785,848	아이티봉사자지정기탁금
		합계	6,785,848	
잡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83,293,481	정기예금(보통예금) 이자수입
		잡수입	165,891	MMF에 대한 평가차액 및 전차료 원단위 할인
		소계	83,459,372	
		합계	83,459,372	
미지급금	미지급금	미지급금	22,855,181	법인 신용카드 사용분
		소계	22,855,181	
		합계	22,855,181	
예수금	예수금	예수금	7,110,860	인건비에 대한 세금 공제분
		소계	7,110,860	
		합계	7,110,860	
총계			120,211,261	

■ 지출부

(단위 : 원)

관	항	목	합계	산출근거 (비고)	
사무비	운영비	여비교통비	786,647	업무관련 이동시 교통비, 공항버스비	
		소모품비	36,200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지급수수료	944,712	은행업무 수수료, WD회계프로그램구입비 외	
		소모품비	130,000	월드디아코니아 발기인도장구입비	
		통신비	6,980	우편료	
		운반비	18,000	택배, 퀵 발송료	
		제세공과금	360,000	월드디아코니아 등록면허세	
		도서인쇄비	24,000	점자명함제작비	
		소계	2,306,539		
		업무비	업무추진비	628,607	업무관련 미팅시 식사 및 다과비
	회의비		150,000	대학설립자문위원회 회의시 식사비	
	소계		778,607		
	인건비	급여	49,732,713	아이티 사업담당자 인건비	
		일용직급여	1,665,550	WD현시스템급여	
		교육훈련비	50,000	해원협 Sphere training 참가비	
		복리후생비	7,548,545	직원 식사비 및 부식구입비	
		소계	58,996,808		
	출장비	국내출장비	185,000	대전, 부산등 국내출장시 숙박비, 출장일비, 식대	
		해외출장비	23,224,242	해외출장 숙박 및 항공료, 출장일비	
		소계	23,409,242		
	합계			85,491,196	

■ 지출부

(단위 : 원)

관	항	목	합 계	산 출 근 거 (비고)
사업비	현장상황실 운영비	소모품비(현)	2,006,116	소모품 및 센터집기구입
		접대비(현)	974,784	유관기관 접대 및 경조사비
		지급수수료(현)	7,475,891	변호사선임,비자발급,현지은행수수료 외
		업무추진비(현)	1,346,783	업무관련 미팅시 식사비
		차량유지비(현)	8,549,132	자동차 주유비 및 차량부품구입비 등
		여비교통비(현)	75,262	출장시 렌터카 주유비
		현지출장비(현)	1,614,026	현지 출장시 항공료 및 숙박비
		통신비(현)	3,327,259	현장상황실 인터넷 및 이동전화 사용료
		임차료(현)	3,470,631	해외현장사무실 임차료
	소계	28,839,884		
	학교건축 사업	학교건축사업비	6,777,200	설계용역비 추가분
		학교건축사업진행비	529,944	아이티 출장 LA경유시 숙박비
		소 계	7,307,144	
	기타사업	아이티봉사자지정기탁	4,985,848	아이티봉사자 지정기탁금 전달
		WD창립총회	3,753,000	창립총회 자료집 인쇄비 및 사업보고영상 제작
기타사업비		2,337,803	르까에산위학교후원(3개월분)	
소계		11,076,651		
합 계		47,223,679		
재산조성비	재산조성비	잡기비품	468,334	예비용 전자키보드 구입비
		소 계	468,334	
	합 계	468,334		
미지급금	미지급금	미지급금	22,696,380	법인 신용카드 사용분
		소 계	22,696,380	
	합 계	22,696,380		
예수금	예수금	예수금	7,772,650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
		소 계	7,772,650	
	합 계	7,772,650		
선납세금	선납세금	선납법인세	11,658,150	이자수입에 대한 선납법인세
		소 계	11,658,150	
	합 계	11,658,150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146,812	MMF 평가차액
		소 계	146,812	
	합 계	146,812		
총 계		175,457,201		

이 월 금	2,389,754,178
총 수 입	120,211,261
총 지 출	175,457,201
잔 액	2,334,508,238

※ 2013년 총회 후 월드디아코니아로 이관

F. Korean Diakonia 2013년 사업계획

1. 분야별·사역별·사업별 네트워크 강화

가. 교단사회복지 네트워크 강화

- 한국교회사회봉사협의회 활동 활성화
- 교단연합 사회봉사 사업 개발
- 교단사회복지백서 발간 추진
- 복지·봉사 영역 사안별 한국교회 입장 대변 및 발표
- 한국교회 긴급구호 네트워크 구성

나. 복지단체 네트워크 강화

- 한국교회 복지단체와 법인 현황 실태조사
- 복지대상별 한국교회 조직화 사업
- 한국교회 복지단체 편람 제작

다. 전국 각 지부 네트워크 강화

-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전국 각 지부 개편과 강화
- 한국교회봉사단 전국 지회 조직 및 활성화
- 국내 재해 긴급구호를 위한 네트워크 편성 - 지역별 긴급구호 네트워크
- 재해구호 매뉴얼 제작

라. 회원교회 사업별·사역별 네트워크 강화

- 디아코니아 전문가 과정·실무자 과정 개설
- 디아코니아 목회자 모임 주선
- 사업별 회원교회 TFT 가동

마. 현장 네트워크 강화

- 사업별 사역현장 네트워크 강화
- 회원교회와 사역현장 네트워크 강화
- 기독교평화운동 네트워크 연대

2. KD 기관 정체성 및 사역 강화

가. KD 사명선언문 및 정책문서 작성

- KD 사명의 신학적·신앙적 위치 규명
- KD 사역의 핵심가치와 사역원칙 표명
- KD 정책문서 작성

나. 회원교회 Diakonia 역량 강화

- 현장중심의 회원교회 네트워크·사업역량 육성
- 목회자 및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시스템 운영
- 상시적 구호활동을 위한 자원봉사단 창설

다. 한국교회 Diakonia 역량 강화

- Diakonia 아젠다를 주제로 한 연구서적 출간

- 전략적 강좌-세미나-워크숍-출판 연계 사업 시행
- 기관 실무자 및 각 교회 복지·봉사 담당자 Diakonia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Diakonia 영성개발 코스웍 개설 및 교육교재 개발

라. 디아코니아 코리아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Diakonia Korea 조직위원회 구성
- 교회와 사역현장을 연결하는 “Diakonia Korea Campaign” 전개
- 지역공동체 ‘디아코니아 마을 만들기’ 모델 개발

3.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

가. 대북지원단체 및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조 확보

-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 노스코리아 디아코니아 설립
- 민간단체 북한 구호기관 교류 및 북민협 회원가입
-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신학적 배경 구축

나. 탈북민 지원사업

- 국내 탈북민 자활지원 및 사회봉사 참여 견인
- 연변 희망2세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탈북 모자가정 어머니학교 개설

다. 북한주민 및 탈북민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영역 개발

4. 복지사각지대 개발 및 평화·화해사역 전개

가. 쪽방 주민 자활지원

- 쪽방촌 공동세탁장 설치 및 운영
- 쪽방주민 자활지원사업 전개
- 쪽방주민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및 교육사업 전개
- 쪽방주민공동체방송국 설립 지원

나. 다문화 이주민 정착지원

- 추석 이주민 봉사 대축제 개최
- 여성 이주민 쉼터 운영
- 이주민실태 심층조사 실시

다. 루게릭 등 난치성 신경근육계 호흡불능 환자 지원

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사업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연대사업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쉼터 ‘우리집’ 운영지원

마. 원폭피해자 지원

- 원폭피해자 및 자녀 지원 특별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참여
- 한국원폭2세환우회 연대
- 원폭피해자 증언집 제작, 출판

바. 사회적 트라우마 힐링 마스터 훈련캠프 설치

- 사.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 문화공연 개최 및 지원
 - 인문학 강좌 개설
 - 추석맞이 소외계층 품기 캠페인
- 아. 강정마을 화해의집 설립지원
- 자. 서해안 생태학교 운영

G. Korean Diakonia 2013년 사업예산(안)

Korean Diakonia 2013년 예산(안)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수입부

(단위 : 원)

관	항	2013년 예산	2012년 결산
회비	회비	154,000,000	136,000,000
후원금	후원금	902,600,000	815,000,000
보조금	보조금	33,000,000	30,000,000
잡수입	잡수입	400,000	400,000
총 계		1,090,000,000	981,400,000

■ 지출부

(단위 : 원)

관	구분	2013년 예산	구분	2012년 결산
사무비	운영비	92,000,000	운영비	83,600,000
	인건비	325,000,000	인건비	295,000,000
	소계	417,000,000	소계	378,600,000
사업비	구호사업비	30,000,000	구호사업비	27,600,000
	탈북민 지원사업	45,000,000	기획사업비	270,300,000
	쪽방촌주민 자활지원	92,000,000		
	다문화 이주민 정착지원	45,000,000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45,000,000		
	원폭피해자 지원	70,000,000		
	조직사업비	46,000,000	조직사업비	42,000,000
	디아코니아전문가·실무자 과정 개설	15,000,000	기타사업	273,000,000
	기독교평화운동 네트워크 연대	15,000,000		
	연구서적출간 및 세미나개최	25,000,000		
	사회적 트라우마 힐링마스터 훈련캠프	25,000,000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	90,000,000		
	한국교회 복지단체 편람 제작	50,000,000		
	교단사회복지백서 발간	50,000,000		
	재해구호메뉴얼 제작 등	30,000,000		
소계	673,000,000	소계	612,900,000	
총계		1,090,000,000	총계	991,500,000

H. 부록

1.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어명칭은 ‘Korean Council of Christian Social Welfare’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단체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기독교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체로서 교회의 본래의 사명인 이웃사랑의 구현과 실천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전개,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번지 기독교회관 705호에 둔다.
- ② 법인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시·도 지회를 둘 수 있다.
- ③ 법인에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지회를 둔다.
 1. 서울지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번지 기독교회관 705호
 2. 대전지회: 대전시 서구 정림동 637번지 정림종합사회복지관 내
 3. 부산 경남지회: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1동 697-2 반송종합사회복지관내
 4. 대구 경북지회: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월드비전 대구경북지부 내
 5. 광주 전남지회: 광주시 오치2동 1003번지 오치사회종합복지관내
 6. 인천지회: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9-6
 7. 경기남지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50-10
 8. 충북지회: 충북 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35번지
 9. 충남지회: 충남 천안시 백석동 11-12번지
 10. 울산지회: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중리 346번지
 11. 경기서지회: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15-354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 · 외 각종 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사업
2.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 사업
3. 기독교 기관의사회복지 학술 및 연구프로그램 개발, 교육
4. 자원봉사운동 전개 및 교육
5. 홍보 및 출판
6. 사회복지 전문화를 위한 엑스포 및 총람편찬사업
7. 국내·외 사회복지사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지원
8. 국내외 기부 문화 확산 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교단회원: 기독교 각 교단
- 2) 단체회원: 교회 및 기독교사회복지관련 기관, 시설, 단체
- 3) 지역협의회원: 전국 시도별 지역협의회
- 4) 개인회원: 기독교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자로 본회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한다.

③ 가입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감사 2인
4. 이사(회장을 포함한다.) 19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수행하며 전문사업단을 관장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5-2조(대의원)

①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감사, 실행위원, 각 지회에서 2인, 각 전문사업단에서 선출된 2인으로 한다.

②1항에 해당되지 않은 회원단체에서 각 1인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5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2조(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당해 사업 년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 부서

제36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6-2조(실행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제36-3조(전문기구 설치와 운영 규정)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전문사업단을 두고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8조(법인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며,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006년 9월 28일 제정

2008년 4월 25일 개정

2008년 7월 10일 개정

2009년 5월 12일 개정

2. 회칙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한국교회희망봉사단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이라 하며 대외호칭은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교회의 본래적 사명인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 이웃에게는 평화를 • 한국교회에게는 보람과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내 둔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사회봉사운동 전개 및 교육
2. 국내 · 외 각종 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사업
3.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 사업
4. 한국교회 사회복지엑스포 및 총람 편찬
5. 기부 문화 확산 사업
6. 기독교사회복지 학술 및 연구 활동
7. 국내 · 외 사회복지사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8. 홍보 및 출판
9.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교단, 교회,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② 본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앙위원회에서 가입이 허락되어야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발언권과 의안 제출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의결권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칙과 제반 규정 준수
2. 본회 의결기구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반 부담금 납부

제3장 중앙위원회

제8조 (권한) 중앙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9조 (구성) 중앙위원회는 교단, 교회, 직능, 지역별 대표 200여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임원회의 추천과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제10조 (직무) 중앙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2. 법인이사 인준
3. 실행위원 인준
4. 임원 및 감사 인준
5. 회칙개정
6. 회원 가입 및 탈퇴와 제명 승인
7. 실행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8.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9. 임시 중앙위원회는 부의된 안건만 처리한다.

제11조 (소집)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중앙위원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회원1/3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의결정족수) ① 중앙위원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총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 장 실행위원회

제13조 (권한) 본회의 효율적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두며 중앙위원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대행한다.

제14조 (구성) ① 본회의 회원 중 교단 · 교회 · 단체(직능, 지역) · 각계의 대표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며 그 수는 30명 내외로 한다.

② 실행위원은 임원회가 추천하며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5조 (직무) 실행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2. 임원 및 감사 선임
3. 사무총장 선임
4. 회칙 개정 심의
5. 운영세칙 및 제반규정 의결
6. 회원의 가입 및 탈퇴와 제명 심의
7.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8. 임원회가 부의한 안건 심의 및 의결

제16조 (소집) 실행위원회는 대표회장이 분기별로 소집하며 7일전까지 안건 · 일시 · 장소를 명시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성수) ① 실행위원회는 출석위원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5 장 임원회 및 감사

제18조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으로 임원회를 구성한다.

1. 대표회장 : 1인
2. 공동대표 : 약간 명
3. 단 장 : 1인
4. 총 무 : 1인
4. 서 기 : 1인, 부서기 : 1인
5. 회 계 : 1인, 부회계 : 1인

제19조 (선출과 임기) ① 임원의 선출은 실행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총무는 임원회가 추천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의 임무와 임원회의 직무) 임원과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대표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
 - 나. 공동대표 : 대표회장을 보좌하며 대표회장 유고시 대표회장이 지명한 공동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단, 지명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 다. 단 장 : 본회의 각종 사업 추진을 관장한다.
 - 라. 총 무 :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반회의에 참석한다.
 - 마. 서 기 : 회의록과 관계 문서의 기록과 보관 및 관리하는 일을 한다.
 - 바. 부 서 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 사. 회 계 : 예 · 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 아. 부 회 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2. 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중앙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집행
 - 나. 각 위원회의 사업을 독려 · 지원
 - 다. 기타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결의

제21조 (소집) ① 임원회는 필요시 대표회장이 소집하며 7일전까지 안건 · 일시 · 장소를 명시하여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할 시는 전항의 절차에 관계없이 소집할 수 있으나 부의된 안건만 처리한다.

제22조 (성수) ① 임원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며 출석 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감사의 선임 등) ①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실행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 · 실행위원회 · 임원회를 감사하며 각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2. 사무처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3. 감사결과를 임원회, 실행위원회,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24조 (구성과 운영) ① 본회 법인체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이라 칭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은 별도의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 7 장 위원회 및 지회

제25조 (기획위원회) 본회의 장·단기 발전과 본회가 해야 할 과제를 연구하고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획위원회를 둔다.

1. 기획위원은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2. 기획위원의 수는 9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기획위원회는 수시로 회집하며 계획서(안)를 대표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업위원회)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둔다.

1. 사업위원회
 - 가. 재해구호위원회
 - 나. 사회복지위원회
 - 다. 학술위원회
 - 다. 국제위원회
 - 라. 자원봉사위원회
 - 마. 북한지원사업위원회
 - 사. 홍보·출판위원회
 - 아. 사회복지엑스포위원회
2. 각 위원회는 자율운명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계획과 조직 구성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지회) ① 본회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도 지회를 두도록 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자문회의 및 협의회

제28조 (자문회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회의를 둔다.

1. 고문단 : 교계의 원로로 구성하며 임원회의 추천으로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추대한다.
2. 자문위원회 : 교단장 및 단체장

제29조 (협의회) 본회의 목적사업을 협력적으로 전개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1. 지역협의회 : 본회의 지회 대표로 구성하여 사업과 운영의 네트워크를 이룬다.
2. 유관기관 협의회 : 봉사와 복지 관련 기관과 유기적 연대를 이루도록 한다.
3. 총무단협의회 : 유관 교단이나 기관의 사회봉사 관련 실무자로 구성하며 본회 업무를 협의한다.

제 9 장 재 정

제3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기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후원을 위한 기부금
3. 교회 · 기관 · 단체 및 개인의 찬조금
4. 기타

제3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10장 사 무 처

제32조 (설치)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두어 상근케 한다.

제33조 (사무총장) 사무총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총장은 임원회가 추천하고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총장은 총무를 보좌하며 직원의 업무를 관장하며 제반회의에 참석한다.
3.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 (직원)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제11장 보 칙

제35조 (회칙의 개정) ① 개정 발의는 실행위원회·임원회가 할 수 있다.

② 회칙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36조 (세칙 및 제반규정) ① 본회 회칙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과 제반규정으로 정한다.

② 운영세칙과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실행위원회와 임원회가 발의한다.
2. 중앙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37조 (회의록 등) 임원회를 비롯한 모든 회의는 회의내용을 기록하여 해당 회의 의장과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38조 (기관의 설치 및 협력) 본회의 목적사업 시행과 추진을 위하여 부설기관을 설치하거나 타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39조 (미비사항의 보완)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 보완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9년 5월 12일 제정
2010년 1월 29일 개정

보도자료 및 스크랩

서울역 노숙인과 함께한 <2012 설날사랑큰잔치> 열려 - 연인원 1만 명에게 특식과 선물제공..노래자랑·민속놀이 등 함께해

설날 연휴기간 동안 연인원 1만 명의 서울역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자들에게 한국교회의 사랑이 담긴 식사와 선물 그리고 명절을 함께 즐기는 각종 놀이마당이 제공됐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KD)은 1월 22일(주일)부터 24일(화) 설날연휴기간 동안 서울역 광장 주변 노숙인 및 쪽방촌 거주자 1천 5백명을 대상으로 <2012 설날사랑큰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명절기간동안 푸짐한 식사와 명절선물로 트레이닝복이 제공됐으며 3일간 특설부스를 설치해 떡, 과일, 한방차, 의류 및 생활용품 등을 나누고 명절분위기를 살리는 민속놀이마당과 노래자랑 무대 등이 열렸다. KD가 주최하고 구세군브릿지센터,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전국 노인노숙인사랑연합회, 기독교긴급구조센터, 해돋는마을, 나눔공동체 등이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2008년부터 매년 이어진 <거리의 성탄절> 행사와 더불어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노숙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대표적인 명절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배식봉사에 직접 참여한 김삼환 목사(대표회장)는 “교회가 고통받는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존재이유 중 하나”라며 “앞으로 KD는 단순한 식사제공과 선물을 나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KD는 노숙인의 제도권 복지안전망 편입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2011년 연말 서울역 노숙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면담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역 노숙인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여러 기관 및 단체로 나뉘어 각각 활동을 벌이는 노숙인 지원관련 기관들의 연합사업을 위해 네트워크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함께 고민하여 노숙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정책마련의 단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KD, 해외재난구호 위해 <월드디아코니아> 창립 -이사장에 오정현 목사...해외구호영역 연합사업 박차

한국교회의 해외재난구호와 이재민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진행과, 해외구호관련 NGO 등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월드디아코니아'가 창립됐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KD)은 2월 6일(월) 사랑의교회 은혜채플에서 <2012한국교회희망봉사단 총회 및 월드디아코니아 창립총회>를 갖고 월드디아코니아 이사장에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를 선임했다.

오정현 목사는 “한국교회가 민족은 물론 세계를 섬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교회의 본질적인 당연한 책임”이라며 “한국교회의 해외재난구호 연합사업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한국교회 아이티연합>의 경험을 되살려 교단·교회·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해외재난구호 사업에 연합과 일치운동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외교통상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월드디아코니아는 해외 재난발생지역 초기 긴급구호사업과 중기 복구사업 그리고 장기 재건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며, 해외재난구호관련 NGO 및 단체 협력과 연합사업과 재난지역 자원봉사자 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월드디아코니아는 우선 KD이 그동안 진행해 온 아이티 재건사업을 인계받아 아이티 전문대학 설립사업을 우선 추진해 나가며, 아울러 2차대전 말 일본에 투하된 원폭피해자의 2세와 최근 일본지진으로 붕괴되어 피해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피해자 지원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월드디아코니아는 국내 거주 원폭피해 2세 1만여명 중 약 2,500여명 정도가 거주하는 경남 합천지역을 대상으로 현황파악에 나서는 한편, 일본 내 방사능 누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일본교회 및 재일동포교회 그리고 양심적인 일본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세미나 등을 추진한다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는 한국교회 생태적 회심의 계기”

- 서해안살리기 생태학교 열려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경험한 생태적 회심을 되새기며 환경보존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교육하는 ‘서해안살리기 생태학교’가 열렸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KD)은 2011년 12월 감신대학생을 대상으로 <2011 제1차 생태학교>와 2월 24일(금) 서해안 태안군 일대에서 <2012년 제1차 서해안살리기 생태학교>를, 그리고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2012년 제2차 생태학교 겸 청소년 생태수련회>를 각각 개최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함께하는 이번 생태학교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 주민 35명을 대상으로 충남 태안 신두리, 의항리, 만리포, 안면도 등 원유유출사고 현장과 그 일대에서 개최됐다.

천연기념물 431호 신두리 사구 탐방과, 서해안 기름유출 방제현장 및 사료관 견학, 만리포 방제현장 해변기행, 안면도 수목원 견학 및 천수만 철새 기행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생태학교는 지난 2011년 12월에 감신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생태학교에 이은 두번째 생태학교이다.

먼저 2011년 12월에 개관한 ‘한국교회서해안살리기사료전시관’을 들른 참석자들은 관장 이광희 목사(의항교회)로부터 사고당시의 상황과 전국에서 몰려든 70만 기독교인을 포함한 120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파괴된 자원이 어떻게 복원되었는지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 또 전시된 사료와 영상자료 등을 통해 큰 도전을 받았다.

또 만리포 해변에 들러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의 기름범벅이던 해변이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의 방제작업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으로 복원된 것을 확인하며 사회와 자연에 대한 한국교회의 책임을 되새겼다.

김삼환 목사는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는 환경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삶 자체를 파괴한 비극적인 참사였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를 통해 생태적 회심이라는 사고전환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며 “KD는 한국교회사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 생태적 회심과 봉사를 통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운동의 증진을 기념하고자 사료관과 기념비를 세우고 생태학교를 개교했다”고 밝혔다.

KD는 2011년 12월 서해안 원유유출 4주기를 맞아 방제 자원봉사가 이루어졌던 태안지역에 6군데에 ‘한국교회 서해안살리기 자원봉사기념비’를 건립하고 ‘한국교회서해안살리기사료전시관’을 개관한 바 있다. 또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를 계기로 일게 된 한국교회의 생태적 회심을 확산하기 위해 ‘서해안살리기 생태학교’를 개교했다.



‘태풍피해 농민돕기 낙과구매 캠페인’ 전개

- 한장총 100주년기념대회 참석자 낙과 구매
- 사랑의교회 등 낙과구매 캠페인 참여

제15호 태풍 불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으로 전국 각지 특별히 과실수확을 앞둔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태풍피해 농민돕기 낙과구매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KD)은 9월 1일(토)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한국장로교총회설립 100주년기념대회에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낙과 구매 캠페인을 벌였으며, 9월 30일까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낙과구매 캠페인을 전개했다. 9월 4일(화)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낙과구매를 시작으로 명성교회(김삼환 목사), 은평교회(한태수 목사) 등 회원교회와 판매농민의 직거래를 주선하는 방식으로 한달 동안 전개됐다.

김종생 목사(사무총장)는 “태풍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실제 피해 농어민들의 고통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고통 받는 이웃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회사회사업’ 재출판 기념 학술세미나 열려 -1932년 곽안련 박사 저술의 신학적·역사적 의미 밝혀

일제 강점기인 1932년 출판된 곽안련 박사 著 ‘교회사회사업’의 재출판 및 ‘교회사회사업에 관한 현대적 해석’ 출판 기념 학술세미나가 5월 25일(금)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교회사회사업’은 한국교회가 선교 초기인 1930년대에 이미 사회복지에 지대한 관심과 이론적인 정립을 시도했음을 밝히는 귀중한 사료이다. 이에 대한 학술적·역사적 평가를 시도한 이번 세미나는 김동배 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이만열 교수(전 숙명여대)가 교회사회적 의미에서, 박종삼 박사(글로벌사회봉사연구소)가 교회사회사업적 의미에서 총평을 맡았으며, 최원규 교수(전북대)가 사회복지史的 관점에서, 이승열 목사(예장통합 사회봉사부 총무)가 디아코니아신학의 관점에서, 유장춘 교수(한동대)가 교회사회사업적 의미에서 각각 발제했다. 박종삼 박사는 “미국이나 한국의 정규 사회사업(사회복지)대학이나 신학교 교육에서 ‘교회사회사업’이라는 과목을 채택하기 50-60년 전에, 곽안련 박사가 ‘교회사회사업’을 집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며 “지난 반세기 동안 단절되어 있던 교회사회사업 교육에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귀한 역사적 자료의 발굴”이라고 평했다. 또 “1932년에 저술된 이 책을 80년이 지난 오늘에 고찰한다는 것은 베일에 갇혀 있던 당시의 사회, 사회문제, 신학, 역사적 상황 하에서 기독교가 교회사회사업적 특수 문제들을 제기하여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교훈과 가치를 얻게 됨을 의미한다”며 “그 목록구성을 보면 놀랍게도 그것이 현대의 기독교사회복지학의 그것과 대동소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 곽안련 박사의 학문적 정체성이 시대를 초월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장춘 교수는 “국내에서 최초로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설립된 것은 1947년 이화여대에서였다”라고 전제하고 “교회사회사업의 집필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신학적인 근거와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합해 진전시키고자 했던 최초의 근대적인 시도였다”며 “곽안련 박사는 일반 서민에서부터 빈민, 고아, 노인, 병자와 장애인, 죄수, 성매매자, 중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영역들과 현장들을 다루었다”고 말했다.

최원규 교수는 “조선에는 사회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서조차 없던 1932년 당시 상황에서 ‘교회사회사업’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유일한 사회사업 안내서였으며, 때문에 이 텍스트가 조선 대중의 사회사업 개념 형성에 대해 갖는 의미가 크다”고 전제하고 “당시 사회문제에 대해 제시된 해결책들에는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청교도정신과 함께 생활개선에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실용주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여기에 소개된 자선사업의 여러 아이디어들은 그간 조선에서는 생각하거나 적용되지 못하였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이는 육체노동을 경시하고 허례허식에 빠져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데 기민하지 못했던 조선사회에 대한 신선한 충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1930년대 조선사회를 염두에 둔다면, 곽안련 박사는 사회사업이라는 매우 선진적인 분야를 소개한 것”이며, “21세기 초두의 한국사회에서 기독교계가 복지쟁점에 대해 보이는 태도 가운데는 ‘교회사회사업’과 그 레를 같이하는 논쟁점들이 다수 관찰된다는 점에서 이 책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고 말했다.

이승열 목사는 “곽안련 박사는 평양신학교에서 설교학과 목회학을 중심으로 교수활동을 하면서 교회의 사회봉사를 대사회적 책임과 사명으로 인식하여 학문적으로 가르치던 가운데

그 교재로서 ‘교회사회사업’을 집필했다”며 “오늘날에도 아직까지 신학교육 커리큘럼에 체계적인 사회봉사신학을 가르치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책은 한국교회 역사상 교회의 사회봉사(디아코니아)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집필된 최초의 디아코니아 신학서적”이라며 “그 시대에 동물학대에 관해서까지 관심과 책임의식으로 한국사회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평했다.

세미나에 앞서 드러진 감사예배는 김종생 목사(사무총장)의 인도로 박홍자 장로(부회계)의 성경봉독으로 한태수 목사(상임단장)이 ‘나를 넘어 너에게로’(빌 2:1-11)를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최희범 목사(총무)의 축도 후 차홍봉 회장(한국사회복지협회)이 축사했다. ‘교회사회사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 ‘교회사회사업’(Christian Social Service)이 다루는 주제들

·민중의 경제생활에 대한 교회의 책임 ·자선사업에 대하여 ·빈민 ·이재민 구제 ·고아와 양로
·병인과 교회의 책임(문둥병, 정신병, 맹인, 농아, 폐병) ·죄수와 교회의 책임 ·폐창(廢娼)과 교회의 책임 ·금주와 교회의 의무 ·담배와 독약 ·동물대우 ·평민의 오락



KD, 130만 이주외국인 실태 기초 조사 실시

- 다문화사회에서의 이주민 선교 실태와 전망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국내 이주외국인 130만 시대를 맞아 국내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가 실시됐다.

KD는 국내 다문화사역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목회자인 김해성 목사(지구촌사랑나눔 대표), 박천웅 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서기원 목사(디아스포라몽골리안네트워크 대표) 등과 함께 ‘한국 다문화사회에서의 이주민 선교 실태와 전망’을 제목으로 국내 이주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KD는 황홍렬 교수(부산장신대)를 책임연구원으로, 김해성 목사 박천웅 목사 서기원 목사를 수석연구원으로, 노일경 목사(월곡교회) 정노아 목사(예장합동 세계선교위) 박홍순 목사(참된평화를만드는사람들 사무총장) 한진상 교수(영동대)를 공동연구원으로 각각 선임했다. 또 김경태 목사(구민교회) 김규복 목사(빈들교회) 김성욱 교수(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장) 김영애 선교사(예장합동) 문창선 목사(KIN) 박창현 교수(한국선교신학회장) 성명옥 목사(광주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신상록 목사(예성) 유해근 목사(나섬교회) 이강현 목사(천안) 이정호 신부(성공회 사회선교국장) 이철승 목사(경남이주민센터) 이철우 목사(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이형로 목사(유학생 사역) 장창원 목사(오산이주노동자문화센터) 최의팔 목사(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하춘실 목사(인천엘림해외선교회) 한국염 목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명호 선교사(예장합동)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KD는 7월 6일(금)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자문위원 모임을 갖고 기초조사 방향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받은 후, 각 교단 및 이주민선교단체의 협력과 더불어 6월 19일 제주, 7월 4일에는 부산·울산·경남, 7월 11일에는 대전, 7월 17일에 청주, 8월 1일에는 광주·전남 등 권역별 이주민선교대표자 간담회를 각각 갖고 조사 관련 협조를 받았다. 또 8월 25일에는 한국선교신학회에서, 9월 1일에는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의 협력을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국내 이주민관련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실시되는 이번 기초조사는 55만 중국동포, 40만 이주노동자, 10만 유학생, 25만 결혼이민자, 4천여 난민신청자 등으로 교회 및 교단, 나라별 공동체, 이주민 사역 기관 및 단체 등을 범위로 삼아 현재 조사했다.



위안부문제 日本 사과와 배상, 정부의 적극대처 요구 -KD, 제1032차 수요집회 주관

KD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제1032차 수요집회>를 주관하고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배상 그리고 한국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다.

KD는 7월 25일(수)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제1032차 수요집회>를 주관했다. 김종생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는 손인웅 목사(이사장)의 개회인사 후에 김삼환 목사(WCC제10차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설교 후 홍성완 목사(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메시지를 낭독했다. 또 이덕주 교수(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장)와 한정순 회장(한국원폭피해자2세환우회)의 연대발언 후 원폭피해자들로 조직된 ‘씨알합창단’의 합창이 있었으며 최상민 목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전남지부)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날 집회에서 KD는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이 여생을 지낼 수 있는 쉼터 ‘우리집’의 개소보고를 했다.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소재의 쉼터 ‘우리집’은 대지 315㎡ 건평 210.58㎡의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 주택으로 방 7개와 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들을 위해 1,2층 엘리베이터를 특별히 설치했다. 쉼터 ‘우리집’ 입주는 10월 22일(월)로 예정되어 있다.

집회 후 참석했던 원폭피해자들은 집회 후 63빌딩 전망대와 수족관 등을 관람하면서 서울 나들이 시간을 별도로 가졌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992년 1월 8일부터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를 개최해 왔으며, KD는 2010년 8월 930차, 2011년 12월 1001차에 이어 이날 1032차 수요집회를 주관했다. 또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의 인권캠프 ‘새봄살이’ 지원과 일본거주 송신도 할머니의 고국방문 등을 주관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KD, 농촌 살리기 하계봉사 실시 - 거룩한빛광성교회,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봉사의 계절 여름을 맞아 자원봉사대가 태백과 삼척의 농촌을 찾아 도배·장판 및 퇴락담장 벽화작업, 주민 의료진료, 이미용 서비스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KD는 거룩한빛광성교회와 함께 8월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과 삼척시 풍곡리의 농촌을 찾아 <농촌 살리기 하계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하계봉사는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등 각종 서비스 및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실시됐다.

봉사대는 도배·장판교체, 퇴락담장 벽화작업, 한·양방 의료진료, 화장실 설치, 이·미용 서비스, 고령자 영정사진 촬영 서비스 등을 실시했다. 또 주민들을 초청하여 마을잔치를 개최해 주민들과의 유대를 다졌다.

봉사에 참여한 한 대원은 “이웃섬김의 선한 일을 함께 협력해 수행하면서 큰 기쁨을 얻었다”며 “그러나 우리 자신의 만족보다 주민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전체 소요재정의 50%를 지원받아 실시된 이번 하계봉사는 정부 및 공기업이 추진하는 농어촌재능기부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KD이 기독교측 기관으로서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한 사업이다.



한교사협, “교단·단체의 실무책임자 네트워크”로 성격규정 - 공교회 협의조직으로 방향 잡고 주요교단으로 회원 확대기로

한국교회 사회봉사와 복지 담당하는 주요교단 사회복지부서 및 봉사연합기관의 실무책임자들이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한교사협)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지난해 독일복지시스템 참관 후 ‘한국교회 디아코니아의 발전과 갱신을 위한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선언’을 발표하며 결성된 한교사협은 올해 4차례의 회의를 갖고 당면한 주요 현안 및 한교사협의 사역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회의를 통해 각 교단 및 기관의 실무책임자들은 한교사협의 성격을 교단의 인정을 받는 공조직을 지향하되, 명목적인 교단의 대표자가 아닌 봉사·복지전담기관의 실무책임자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교사협의 성격규정을 ‘참여교단과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연합봉사기관이 파송한 실무책임자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협의체’로 명문화 하고, 회원은 교육부인정 신학교를 보유한 24개 교단과 봉사연합기관으로 한정하는 한편,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각 교단과 봉사연합기관에 공문을 보내 한교사협의 창립 및 대표파송을 총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KD, 원폭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에 나서 - 특별법제정과 증언집 제작 등 추진

한국교회가 2차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방사능에 피폭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증언집 제작, 그리고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2세환우돕기 캠페인에 나섰다.

KD는 2차대전 말 일본에서 피폭된 7만여 명의 한국인 중 현재까지 생존한 국내거주 2,300여명과 그의 자녀 중 각종 질환과 장애를 안고 태어난 3천여 명의 2세 환우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KD는 지난 7월 25일(수) 피폭 당사자 및 그 2세들로 구성된 ‘씨알합창단’을 서울로 초청해 함께 <제103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 참석했으며, 당일 63빌딩 전망대와 수족관 등을 관람했다.

또 8월 8일(수)에는 명일동 소재 명성교회에서 <원폭피해자 가족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한국원폭피해자2세환우회(회장 한정순)의 활동지원을 위해 11인승 승합차와 사무용 노트북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17대, 18대 국회에서 무산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피해자 자녀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접촉하는 등 다각도로 힘쓰는 한편,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녹색연합 등과 함께 ‘원폭피해자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추진위원회’에 참여해 법안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원폭피해 당사자들이 점점 사라져감에 따라 저들의 증언에 기초한 피폭실태의 객관적 자료로 사용될 ‘증언집’을 제작하기로 했다.

김삼환 목사(대표회장)는 “대한민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2위의 피폭국가임에도, 종전과 해방 이후 원폭피해자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무관심 속에 피폭 당사자들과 그 자녀들은 방치되어 왔다”며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으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외롭게 이어가는 피해자들에게 한국교회가 작은 힘이 되지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KD이 지난 8월 8일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석명절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전달 - 위안부 할머니, 천안함 희생자 유족, 이주여성 쉼터 등 찾아

한국교회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따뜻한 사랑의 추석선물을 전달했다.

KD는 추석을 앞두고 일본군위안부 피해할머니 60여명, 원폭피해자2세환우 61명, 쌍용자동차사태 희생자 유족 4가정, 용산참사 희생자(경찰희생자 포함) 유족4가정, 논현동 고시원참사 유족 2가정, 천안함 희생자 유족 46가정, 전국 7개 이주여성쉼터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108명, 연평도 포격 희생자 유족 2가정 등에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추석선물을 전달했다. 또 서울역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민들을 위한 명절 노래자랑 등 한가위 큰잔치와 추석특식 제공을 지원했다.

KD 임직원들은 9월 21일(금) 용산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시작으로 24일(월)에는 서울이주여성쉼터, 26일(수)에는 쌍용자동차사태 희생자 유족과 일본군위안부피해 할머니, 27일(목)에는 원폭피해자2세환우 등을 찾았으며, 전북이주여성쉼터에는 김치냉장고를 기증했다. 특히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과는 추후 자원봉사를 함께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해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역광장에서는 28일(금) 전국노인노숙인사랑연합회와 함께 <추석맞이 한가위 큰잔치>를 열어 노래자랑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또 기독교긴급구호센터에서는 명절연휴 3일간 추석특식을 제공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한국교회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만큼 비록 나이가 많지만 위안부 역사 바로잡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생 목사(사무총장)는 “한국교회가 위안부 할머니님의 아들 딸이 되어 남은 여생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삼환 목사(대표회장)는 “교회가 우리 사회에 곳곳에 아픔을 당했지만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이웃들과 마음을 같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하고 “이분들과 명절의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주선 해주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원폭피해자2세환우회, 와락, 지구촌사랑나눔, 천안함46용사유가족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해병대사령부, 영등포산업선교회, 전국노인노숙인사랑연합회, 사랑의등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가주도의 도박중독자 예방·치유책 마련 촉구 - KD, 사감위법 시행 앞두고 성명서 발표

경마 경륜 복권 등 합법적 사행산업의 총괄적인 감독과 도박중독자 치유 및 예방사업의 국가주도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KD는 11월 24일 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과 중독예방치유부담금 확대, 그리고 정부의 사행산업 감독관리기능 통합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감독관리기능 소관부처 및 사행산업별 부담금 비율과 금액을 놓고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9월 20일 진행된 <사감위법 시행령·부담금 운용방안 의견수렴 공청회> 이후에 기독교의 입장을 담아 발표됐다. 이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생 목사(KD 사무총장)는 “정부가 실제로 운영하는 합법적 사행산업의 이용자인 국민들의 도박중독을 방치한다면 이는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그 예방과 치유를 위한 재정부담을 논하는 자리에서 수익률이나 이윤 등을 따지는 것은 국민 앞에 파렴치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KD는 발표된 성명서를 첨부하여 시행령 개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앞으로 각각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지부소식

지부 활성화위해 지역별 사회복지세미나 개최키로 - 지부 산하에 지역별 봉사단 설치 합의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기사협) 전국지부가 간담회 및 전국지부 임원연석회의 등을 갖고 사회복지·봉사사업의 전국적인 확대 및 네트워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에 열렸던 <기사협 전국지부 임원초청 간담회> 이후 격월로 개최되는 <전국 지부임원 연석회의>를 통해 각 지부는 본부와의 연계 속에 각종 연합사업 및 지부별 사업과 지역조직 강화사업 등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우선 각 지부의 명칭은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지부’로 정하고 산하에 자원봉사조직인 ‘○○교회봉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각 지부별 사업 및 연합사업을 본부와과 함께 벌여나가기로 하는 한편, 관련예산을 본부와 지부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별 상황을 감안해 <지역별 중진 목회자 초청 사회복지세미나>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강사를 본부에서 파송하고 장소 및 일시 등 제반 준비는 지부에서 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충북지부, 제3회 정기총회 개최

- 제3대 회장에 장석연 목사 연임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충북지부가 제3회 정기총회 및 지부설립 감사예배를 9월 25일(화) 청주 서원경교회에서 가졌다. 방승필 목사(목도중앙교회, 충북지부 서기)의 인도로 드러진 1부 감사예배는 김태은 목사(화평교회, 충북지부 회계)의 기도 후 장석연 목사(서원경교회, 충북지부 회장)가 ‘작은이들의 벗이 되어’(마 25:40-46)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장 목사는 “폭발적인 성장을 구가하던 한국교회가 1990년대 이후 정체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낮은자를 섬기는 것을 멀리했기 때문이며, 이 섬김을 회복해야 한국교회는 민족의 희망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생 목사(사무총장)의 축사와 김광수 의장(충청북도의회)의 인사 후 유병천 목사(중앙행복요양원 대표)가 축도했다. 이어진 2부 특강은 김한호 목사(춘천동부교회)가 ‘자원봉사자와 디아코노스’를 제목으로 강의했으며, 3부 정기총회에서는 지부정관 인준 후 임원선출을 통해 장석연 목사가 회장을 연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 입주 감사예배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 입주 감사예배를 새 보금자리인 마포구 연남동에서 교계지도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드렸다.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드러진 이날 예배는 10월 22일 기존 서대문에서 연남동으로 이사를 한지 보름만인 11월 5일(월) 할머니들의 반가운 손님맞이로 시작되었다. 최희범 목사((KD·총무)의 사회로 드러진 1부예배에서 김종생 목사((KD·사무총장)가 그동안 진행되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역경과를 보고했으며,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의 기도 후 김삼환 목사(명성교회)가 설교했다. 김목사는 “교회는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도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초라한 갈릴리로 내려가 섬기자”고 말했다. 김복동할머니(87세)와 윤미향 대표(정대협)는 감사인사를 통해 “20여년을 뒤돌아보면 외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항상 함께 하는 이웃이 있어 힘을 낼 수 있었다”며 “한국사회 속에선 늘 차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지만 한국교회와 함께 일을 하며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송신도 할머니 고국방문과 일본지진 때 한국교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교회에 대한 신뢰를 얻었다”며 “일본이 진심어린 사과와 할머니들의 인권회복을 이루는 날까지 한국교회가 끝까지 선한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손인웅 목사(덕수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김종생 목사가 사회를 맡은 2부 축하순서에서는 할머니들을 위한 입주축하 연주에 이어 축하케익 커팅이 있으며, 다함께 쉼터를 둘러본 후 김경원 목사(서현교회)의 기도 후 오찬을 가졌다. 새 쉼터는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대지 315㎡, 건물 210.58㎡ 방 7칸의 주택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할 할머니들의 건강을 고려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



한국교회, 구미 불산 누출사고 피해주민들 방문 - 생필품 전달... 주민대표와 후속지원 논의

한국교회가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고통 받고 있는 구미 피해주민들을 찾아 생수, 취침용매트 등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KD)은 10월 11일과 12일 피해가 집중된 구미 산동면 봉산리와 임천리 주민 350명이 임시거주하고 있는 구미시 청소년수련원과 구미환경자원화시설을 찾아 생수와 취침용매트 등 5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주민대표들과 만나 향후 대책마련과 지원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9월 27일(목) 경상북도 구미에서 불산가스 누출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사망자 5명을 포함, 총 23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또한 320ha 규모의 농작물피해와 3,209두의 가축피해, 551건의 차량 파손과 조업중단 등 기업체 77곳의 피해액은 약 1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바 있다. 또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긴급대피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었다.

KD 공동대표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는 “피해주민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임하시길 바란다”면서 “어려운 환경속에 생활하시는 피해주민을 한국교회가 더욱 잘 위로하고 섬겨나가겠다”고 말했다.

KD는 피해복구가 장기화 될 것을 대비해 현지 구미등대교회(강재식 목사)를 지원창구로 하여 한국교회가 구미 현지 주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조직해 나가며 피해주민들을 도왔다.



KD, 연변 청소년 돌봄센터 개소

한국교회희망봉사단(대표회장 김삼환, 사무총장 김종생)(이하 KD)과 (사)참된평화를만드는 사람들(이사장 이은태)(이하 참된평화)은 지난 23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에서 연변아리랑서로돕기창업협회(회장 이영숙)(이하 아리랑창업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연변 청소년 지원사업을 펼쳐나간다.

이 사업은 청소년 돌봄센터를 설립하여 연변 조선족 청소년 중 부모가 없거나 편부모 가정 청소년의 전인격적인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돌봄센터는 그룹홈 형태로 설립됐다. 아리랑창업협회는 훈춘시에 10세에서 15세까지의 청소년 10여명이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 두 채를 제공하여 직접 운영하고, KD와 참된평화는 각각 돌봄센터의 운영지원 및 후원처 발굴, 사업 모니터링 등을 맡았다. 돌봄센터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아리랑창업협회 훈춘지부 오금숙 지부장이 그동안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헌신적으로 돌봐왔으나 제반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조선족 청소년들의 정체성 교육과 전인격적 돌봄을 위해 오랜 기간 신뢰관계를 쌓아온 참된평화 쪽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KD와 함께 세 단체가 상호 협력과 연대 속에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우리의 여성부격인 훈천시 부련회로부터 적극 지원을 받아 연변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청소년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 날 협약식에서 오금숙 지부장은 “부모를 잃고 방황하는 조선족 청소년을 위해 오랫동안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 소망을 가지고 노력해 왔다.”며 “돌봄센터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잘 자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참된평화 이은태 이사장은 “돌봄센터의 청소년들이 조선족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더 나은 비전을 향해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다음세대에 투자해서 사람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KD 김종생 사무총장은 “연변 청소년의 미래가 암담한 상황을 깊이 인식했으며 이일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 일이 필수적인 일”이라고 협약의 의미를 설명하고 “한국교회가 연변의 가난한 청소년들의 기댈 언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한중수교 이후 많은 노동력이 한국에 유입되면서 부모의 이혼 등으로 조손 가정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청소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소년돌봄센터가 연변조선족 사회의 새로운 대안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2 이주민 사랑나눔한마당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손달익)와 KD한국교회희망봉사단(대표회장 김삼환)은 ‘2012 이주민 사랑나눔 한마당’을 오는 8일 오후 3시 대학로 동승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이주민 사랑나눔 한마당은 예장 이주민선교협의회 주관으로 500여명의 이주민들이 참여하여 그동안 불우이웃으로 도움을 받아왔던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웃인 서울 동작동의 쪽방 주민 등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을 담그고 나누는 등 봉사와 나눔을 실천했다.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하는 이웃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내미는 특별한 행사로 자리매김 했다.

아울러 이주민 고국의 전통 문화를 함께 나누는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문화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행사 : 2012 이주민 사랑나눔한마당

일시 : 2012년 12월 8일(토) 오후 3시

장소 : 동승교회(대학로 소재, 종로구 동승동 195-6)

주최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KD한국교회희망봉사단

주관 : 예장 이주민선교협의회

후원 : C채널방송, 농협중앙회



월드디아코니아, 시리아난민 지원사업 전개 - 조사지원단 파견, 구호품 분배 및 현지상황 조사 실시

한국교회가 장기간에 걸친 내전과 정치적 탄압으로 고통 받는 시리아난민들을 지원하고, 향후 지원사업 전개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월드디아코니아(WD·이사장 오정현 목사)는 12월 9일(주일)부터 15일(토)까지 요르단 국경 지역에 자리 잡은 Zaatari 난민캠프와 Mafraq市에 자리잡은 난민주거지 등에 <시리아난민 조사지원단>을 파견해 시리아난민 330여 가정에 난방기와 식료품 패키지 등 미화 2만5천 불 상당의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현지 상황을 조사를 실시했다.

WD는 우선 쌀과 밀 설탕 등 8인가족 기준 2주치에 해당하는 식료품 패키지를 마련해 현지에서 활동 중인 WEC(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소속 선교사들과 함께 파라지 알리 칼리파(42세)씨 가정 등 225가정의 난민들에게 전달했다. 또 요르단 현지교회인 National C&M. A Church와 협력해 겨울철 가스스토브와 LP가스를 모하마드 라마단(46세)씨 가정 등 110 가정에 전달했다.

또한 6천여 동 4만6천여 명이 수용되어 있는 자타리 난민캠프를 방문해 마흐무드 이스타파디(32세)씨 등 난민과 캠프 운영을 위탁받은 요르단 현지 NGO 관계자 등을 만나 난민캠프의 상황을 청취했다. 이스타파씨는 “현재 자타리 캠프는 여권과 비자 등 적법절차를 갖추지 못한 시리아인들을 수용하고 있다”며 “추위와 생활환경 미비 등을 이유로 밖으로 나가길 원하지만, 경제적 대책이 없어 캠프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내전 초기 장남 사마르(당시 14세)를 정부군의 총탄에 잃고 부인 및 8자녀와 함께 요르단으로 탈출해 마프락市에 거주 중인 함마드 샤라이(41세)씨는 “시리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전투와 야당성향의 도시에 대한 정부군의 유혈탄압으로 주민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지역에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 총격이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조사지원단은 또한 Nour Sahawneh 목사(National C&M. A Church), 나지현 선교사(가명, WEG), Basil K. AL-Mimri 목사(Church of the Nazarene - Zarqa), 유학중 목사(Nahada Full Gospel Church), 황재호 회장(재요르단 한인회) 등을 만나 현지 상황과 함께 향후 시리아난민 지원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WD는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르단 내 공립학교의 시설을 이용한 시리아난민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학교, 여성자활작업장, 아동피복류 지원 등 다양한 시리아난민 지원사업에 대한 한국교회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고, 향후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쪽방에서 만난 예수님”...한국교회, 따뜻한 사랑나눔 펼쳐
- 주민1:1 결연, 자활지원, 문화공연, 온천휴양회 등 다양한 사업 펼쳐

열악한 주거환경과 생활고로 힘겨워하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성탄잔치가 동자동 쪽방촌에서 열렸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KD·대표회장 김삼환 목사)은 12월 24일(월)부터 25일(화) 양일간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1천여세대의 주민들과 함께 <쪽방주민과 함께하는 2012년 성탄절-쪽방에서 만난 예수님>을 개최했다. 동자동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이사장 이태현)과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주민-쪽방체험단 1:1 결연, 주민 초청 성탄 문화공연-극단 나비 ‘천상시계’, 주민초청 성탄잔치, 주민초청 온천휴양회, 고령자 가정 방문, 쪽방체험 프로그램-쪽방에서 만난 예수님, 주민자활을 위한 풀뿌리어커 창업지원, 다자녀 쪽방주민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이 진행됐다.

주민들과 교회 청년 10여 명으로 구성된 쪽방체험단은 성탄 이브인 24일 오전 동자동 소재 성민교회에서 만나 1:1 결연을 맺고 중식과 함께 교제를 나눴다. 체험단은 결연을 맺은 주민들이 온천휴양회를 떠난 후 25일 성탄절 아침까지 방을 지키며 쪽방주민들의 힘겨운 삶을 체험했다. 체험단의 후기는 KD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체험단은 추후에도 정기적 방문과 교제를 통해 결연을 맺은 주민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성탄 문화공연은 3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경희궁 송정전에서 총 25회 공연했던 극단 나비의 뮤지컬 ‘천상시계’(연출 방은미)를 무대상황에 맞추어 갈라콘서트 형식으로 1시간 여에 걸쳐 공연했다.

24일 오후에는 주민초청 성탄잔치를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에서 가졌다. 4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된 이 행사는 김종생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김삼환 목사(대표회장)의 말씀과 권태진 목사(공동대표) 최이우 목사(상임단장)의 격려 및 한태수 목사(상임단장)의 기도로 진행됐으며, 은평성결교회·군포제일교회·종교교회 성도들이 주민들에게 식사와 간식제공을 위해 봉사했다. 이어 KD 임원들은 주민 중 고령자 2가정을 심방해 격려했으며, 30여명의 주민들은 수안보온천으로 1박2일의 온천휴양회를 떠났다.

한편 KD는 주민자활사업의 일환으로 공제조합과 함께 풀뿌리어커 5대 창업자금 일부와 4자녀를 둔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전환자금의 일부를 지원했다.

이에 앞서 KD는 12월 8일(토)과 9일(주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손달익)와 공동주최·예장이 주민선교협의회 주관으로 <2012 이주민 사랑나눔 한마당>을 개최해 이주민들이 손수 담긴 김장 750박스(5kg)를 공제조합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개최 - 나이지리아 등 200여 선수단 현지적응·한국문화체험 도와

전세계 지적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전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에 한국교회가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주관자로 참여해 각국 선수단을 맞았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KD)은 2013평창동계올림픽에 앞서 1월 29일(화)에 개막해 2월 5일(화)까지 8일간 120개국 3,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주관자로서 명성교회, 사랑의교회, 지구촌교회, 창동염광교회와 함께 나이지리아, 남아공,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엘살바도르, 스웨덴, 필리핀 선수단 200여 명을 영접해 1월 26일(토)부터 개막식 직전까지 선수단의 의전과 숙식제공, 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을 진행했다.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SOPOC·위원장 나경원)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은 한국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을 통한 소통과 공감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6일(토) 인천공항 선수단 영접을 시작으로 3박 4일간의 숙식제공과 더불어 각 교회별로 환영만찬과 민속촌, 인사동, 경복궁 등 한국문화체험 및 관광 등을 통해 각국선수단들이 현지적응을 돕고 한국문화와 한국교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KD는 2012년 4월 30일(금) 기독교회관에서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호스트타운 협의를 위한 교계간담회’를 개최해 한국교회의 참여를 호소했으며, 효율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6월 21일(목)에는 참여교회 오리엔테이션을 가진바 있다.



KD, '2013년 동자동주민과 함께하는 설날잔치 - 사랑 더하기, 밥 나누기'

한국교회희망봉사단(KD대표 김삼환 목사)은 올해 설날을 맞이하여 서울역 앞 주요 쪽방촌 지역인 동자동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설날잔치 - 사랑 더하기, 밥 나누기'를 개최했다. KD는 이번 설날 연휴인 2월 9일(토)부터 11일(월) 3일 동안 문화공연과 더불어 매일 3끼의 식사와 설날 선물을 동자동 주민들과 함께 나누며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주민들과 함께 보냈다. 영락교회, 종교교회, 은평성결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한소망교회 등 KD 회원교회가 함께 참여하여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다. 특별히 이번 설날 잔치에는 고향을 두고 한국에 내려 온 탈북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한국사회 또 다른 소외된 이웃인 쪽방 주민들을 섬겼다. 탈북민으로 구성된 '고향의봄 실버합창단'과 '평화예술봉사단'의 합창 및 문화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탈북민자원봉사단은 쪽방 주민 중 어르신들에게 직접 세배를 드리고, 설날 식사 배식 등 자원봉사에 나섰다.

동자동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쪽방 밀집지역으로 약 1,000세대의 주민이 삶의 기본적인 편의시설 없이 남짓한 1평 정도의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KD는 지난 연말 성탄 '쪽방에서 만난 예수님' 행사에 이어 이번 설날에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설날을 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날 잔치를 마련했다.

- 가. 행사명 : 2013년 동자동 주민과 함께하는 설날잔치 - 사랑 더하기, 밥 나누기
- 나. 일시 : 2월 9일(토) ~ 11일(월)
- 다. 내용 : 탈북민 합창단 등 문화공연 및 연휴 기간 총 9식의 식사와 설날 선물 나눔
- 라. 장소 : 동자동 성민교회(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6-1 / 한양전문학교 건물)
- 마. 대상 : 서울역 동자동 지역 쪽방 주민 1,000세대
- 바. 협력 : 동자동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성민교회





한국교회가 설 명절을 맞아 노숙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외 이웃을 돌봤다. 왼쪽부터 서울 영등포역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해피나우, 서울역 노숙인을 위해 설날 사랑 큰잔치를 개최한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설 명절 축제를 개최한 순복음노원교회.

고향 못간 노숙인·외국인근로자... 한국교회 있어 따뜻했네

설연휴 흑한 복인 사랑나눔 현장

한국교회가 설을 맞아 노숙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외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다. 이처럼 복음의 유일성을 사랑실천으로 승화시키는 일이야말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명이라 할 수 있다.

◆노숙인 식사 우리가 책임진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OCK)의 홀리스 대책에서 볼 수 있듯 노숙인 들은 이제 한국교회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특히 한국교회희망봉사단(한국교회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과 해피나우(이사장 김지연 목사)도 설 명절기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울역과 영등포역 부근 노숙인의 식사를 책임지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사랑실천 자세를 보여줬다.

한국교회는 22~24일 서울 중림동 5개 실내급식소와 서울역 광장에서 '설날 사랑 큰잔치'를 열고 연인원 1만2000여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명성교회 사랑의교회 종교교회 영락교회 은평성결교회 거북현빛광성교회 등 7개 교회 자원봉사자들은 하루 세끼씩 아침 끼니의 식사를 노숙자들에게 정성껏 제공했다. 특히 김삼환(명성교회) 손인웅(덕수교회) 최이우(종교교회) 최희

한국교회, 22-24일 노숙인 1만2000여명에게 급식

해피나우도 영등포서 소외이웃에 '희망 큰잔치'

순복음노원교회는 이주노동자 초청 애환 달래

범(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권오성(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목사는 23일 서울 중림동 기독교 긴급구조센터에서 열일 배식봉사에 나서기도 했다. 김삼환 대표회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잘 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새해, 1년 내내 복을 주실

것"이라며 격려했다. 한국교회는 1500명의 트레이닝복도 제공했다. 해피나우도 21~24일 서울 영등포역 광장에서 '설날희망 큰잔치'를 열고 연인원 4000여명에게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했다. 이번 잔치에는 서울 신정현교회와 광원교회, 고양 총정교회 소속 1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떡국을 제공하고 내복 1000벌과 목도리 1000개, 등산화 50개를 선물했다. 21일 예배에는 하

귀호 예정 합동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과 고영기(상암일도교회) 김창근(광원교회) 옥성석(중정교회) 김관선(산정현교회) 목사 등이 참석해 직접 식사대접을 했다.

박희돈 봉사광공동체 대표는 "한국교회가 마지못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나서 길거리에 내몰린 이들을 돌봐야 한다"면서 "이들의 의료와 쉼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삶의 의지를 북돋울 수 있도록 1대1 결연사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외국인 노동자 애환도 어루만져=한국교회는 연휴기간 고향을 그리워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육의 섬을 제공하고 애환도 달렸다. 서울 순복음노원교회(유재필 목사)와 외국인선교회는 설날을 앞둔 22일 '설 명절 사랑축제'를 경기도 부

천 용진플래너도시에서 개최했다. 주최측은 설 연휴기간에 특별히 갈 곳도 없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동두천, 양주 유양공단, 포천 송우리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대형버스 6대를 대절했으며, 비빔밥 든가스 식사와 사우나도 제공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나지마 씨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유일한 시간이었다"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외로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 주신 교회에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울 외국인근로자선교회(대표 유해근 목사)도 22~23일 경기도 양평 나삼 다문화생태마을에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신앙사경회를 개최했다.

김무성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한국교회회망봉사단 정기총회 및 월드 디아코니아 출범식을 가진 뒤 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윤아홍 선임기자

한교봉, 지구촌 재난지역 효율적 구호 '월드 디아코니아' 창립

첫사업으로 대지진 아이티에
전문대 설립 예수사랑 실천
초대 이사장에 오정현 목사



한국교회가 수만명의 사상자와 이재민을 낸 아이티 지역에 전문대학(조감도)을 설립해 예수 사랑을 실천한다. 한국교회회망봉사단(한교봉·대표 회장 김삼환 목사, 이사장 손인용 목사)는 6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2012년 정기총회 및 사단법인 '월드 디아코니아'(World Diakonia) 창립총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내달 착공해 1년 공사를 거쳐 완공 예정인 아이티 전문대학은 아이티 제2의 도시 미르발레 외곽 60km 지역에 설립된다. 대지 25만7400㎡(7만 8000평)에 연건평 7700㎡ 규모로 강의동과 기숙사, 식당, 본부건물 등 모두 8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모집학과는 한국어와 영어, 전산학과 등이며 각 학과 20명씩 선발한다. 현재 아이티 정부는 간호학과와 사범학과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토지 및 관련 인프라는 아이티 정부 및 미르발레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한국교회가 부담하는 소요 예산은 21억원으로 건축비 12억원, 기자재 3억원, 운영비 6억원 등이다.

'월드 디아코니아' 초대 이사장은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가 추대됐다. 이사는 김삼환 손인용 김경원 양병희 이영훈 이철신 최이우 한태수 목사가 맡았다.

오 이사장은 "2010년 1월 아이티 지진 발생 이후 현지 복구 및 재건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교봉이 '월드 디아코니아' 법인설립 첫 사

역으로 아이티에 전문대학을 설립, 아이티 사회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미래 인재 양성에 나서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드 디아코니아는 법인창립 취지문을 통해 "한국교회의 해외 재난 구호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 진행, 해외 구호 관련 비정부기구(NGO)와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외교통상부 소관의 비영리 사단법인 '월드 디아코니아'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제공하는 정부 차원의 개발원조 프로젝트 참여 등도 설립 목적이다. 이르면 상반기 안에 외교통상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 등 원폭 및 방사능 누출 피해자 지원사업도 재일한국인기독교단 및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벌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개회예배와 설립취지 설명, 정관 심의, 사업 및 예산 계획 발표, 이사승인, 창립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한교봉은 통일부 소관의 '복합 디아코니아' 법인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교회의 체계적인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 2002년 창립된 한교봉은 (주)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가 모태이다. 2007년 서해안 앞바다의 원유 유출 사고로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어린이들을 위로하는 120만 방제 자원봉사의 섬김이로 활동하면서 새롭게 발족됐다.

윤영대 기자

“다시 일어서요! 일본” 한국 크리스천 100억 지원



한국교회 일본재해공동대책협의회 의장단이 지난해 9월 일본 센다이 시시이드바이 불채움이 슬리니간 지역에 세워진 십자가 앞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지난해 3월 대지진 후 곧바로 피해 현장으로 달려간 조현삼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단장(오른쪽)이 일본 어린이들에게 초코파이를 선물하고 있다. **권영호**

동일본 대지진 1년... 한국교회 사랑은

한국교회가 동일본 대지진 참사 이후 지난 1년간 46억원 이상의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교회와 기독교 NGO까지 포함하면 100억원대로 국내 7대 종교 중 구호금과 물품지원, 자원봉사자 지원에 있어 최대 규모로 추산된다.

◆연합정신 돌보임 공동대책협 한국교회는 교계의 힘을 하나로 모은 곳은 “한국교회 일본재해공동대책협의회(공동대책협의회-상임의장 이영훈 목사)와 한국교회회합봉사단(한국교총-대표회장 김삼환 목사)이다. 공동대책협의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예장 통합, 기감, 기성, 기하성,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등이 지난해 3월 결성한 단체다. 이 단체는 지난해 4월과 9월 일본 피해지역을 방문하고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가 제출한 구호 프로젝트에 3억1500만원을 전달했다. 한국교총도 지난해 3월 실시단을 현지로 파견해 일본기독교협의회와 재일대한기독교회, 센다이피해지역네트워크 등 일본교회 및 주요 연합기관 책임자들을 만나 총 3억4100만원의 성금을 전액 전달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한기봉·단장 조현삼 목사)은 국내 민간 구호단체 중 가장 발 빠르게 일본구호에 나선 곳이다. 한기봉은 대지진 발생 다음날 일본 센다이지역으로 6명의 구호단을 파견했으며, 5000만원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일본 개센누마 교회에도 5000만원을 지원했다. 김종생 한기봉 사무총장은 “한국교회가 하나 돼 일본교회와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돕는다는 원칙 아래 지난 1년간 지원사업을 펼쳤”다면서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재일 대한기독교회와 일본에 거주하는 일

본군 위안부 할머니 등을 지원했던 게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교단·교회별 피해지역 지원도 활발=예장 통합은 11억5000여만원의 성금을 모았으며, 기감 구호팀을 파견하고 현지 선교사와 협력해 구

공동대책협의회·한국교총·대지진 피해현장 방문해 위로 및 자원봉사 구슬땀 교파 초월한 한국교회 지원 하나님 사랑실천 최대규모

호활동을 펼쳤다. 박위근 총회장과 조성기 사무총장 등은 지난해 12월 피해현지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예장 통합 소속 부산 연제로교회 성도 25명도 지난해 8월 일본 미야기현 개센누마 지역을 방문해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예장 통합은 일본대지진피해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교단 소속 NGO인 해피나우(이사장 김자연 목사), 종의세계선교회(GMS) 등과 함께 탕트, 모포, 의류 등 4억원 가량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또 센다이 “다시”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재일 대한기독교회와 일본에 거주하는 일

한국교회의 일본 구호금

공동대책협의회	3억1500만원
한국교총	3억4100만원
한기봉	1억원
예장 통합	11억5000만원
예장 합동	798000만원
기감	2억1300만원
기성	4억3300만원
기성	2억4000만원
구세군	10억6600만원

(자료:각 기관 및 교단)

구세군은 10억6600만원, 기감은 4억3300만원, 기성은 2억1200만원, 기성은 2억1000만원을 모금했다. 이 밖에 교계 NGO인 월드비전이 26억 9000만원, 기아대책이 12억7000만원, 굿네이버스가 8억2200만원을 모금하는 등 대부분의 NGO가 생필품과 구호물자를 전달했다.

공동대책협의회 상임의장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일본 대지진의 사태처럼 긴급 구호의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교회가 교파를 초월해 협력·대처해야 한다”면서 “피해복구가 속히 돼 모든 게 정상화 되고 일본에 새로운 영적 부흥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가 일본 구호처럼 화합과 연합의 모습을 보여 패시브적으로 교회에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봉 단장 조현삼(서울 광영교회) 목사도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이렇저런 비판을 받고 있지만 ‘왜 사랑이 없냐’는 지적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수행하는 선명함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랑의 진정성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 알려지게 돼 있기에 교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기도대반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현 기자 100sh@kmb.co.kr

32.3 X 17.9 cm

한마당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한국 교회가 보여준 사랑과 헌신은 국내 7대 종교 중 으뜸이다. 주요 교단, 연합단체, NGO, 교회까지 나서서 물심양면으로 일본을 도왔다. 한국교회가 일본에 전달한 구호금이나 구호물자는 100억원대로 추산된다. 예장통합 구세군 예장합동 등 주요 교단들이 2억~11억원대, ‘한국교회 일본재해 공동대책협의회’와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이 각각 3억원대, 월드비전 기아대책 굿네이버스가 8억~26억원대의 성금 등을 일본에 기탁했다.

한국교회가 물질적으로만 일본을 도운 것은 아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대지진 참사가 일본을 강타한 지난해 3월 11일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 가정, 일터에서 대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 소리는 일본이 대지진 참사를 딛고 일어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로마서 12장 15절)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평생 한을 삭이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일본 기독교계가 적극 나서야 할 때가 되

지 않았나 싶다. 현재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는 61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난해 8월에는 69명이 생존해 있었지만 그새 8명이 돌아가셨다. 할머니들이 워낙 연로한 상태여서 시일이 지날수록 생존자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만큼 존각을 다투는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이 일(일본군 위안부 문제)은 우리 국민 모두의 일이자 양심을 가진 세계 모든 사람의 일’이라며 “할머니들 생전에 마음의 한을 풀어드리지 못하면 일본은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고 양심의 부채를 지고 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일본 정부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보이고 있다. “앞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지혜를 모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짚질 시간만 끌겠다는 속셈이다.

그렇다면 일본기독교협의회(NCCJ)를 비롯한 기독교계가 나서야 한다. 일본 기독교계가 양심 있는 인사들과 함께 공동전선을 펴기 바란다. 성경에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고 하지 않았는가.

임성덕 논설위원 sdym@kmb.co.kr

13.0 X 13.5 cm

“대지진 피해 日 교회, 한국 도움으로 속속 재건”

센다이 동북헬프 관계자 방한

“한국교회의 따뜻한 사랑과 후원,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 대지진 후 고통받고 있던 많은 일본인들과 크리스천들이 힘을 얻었고 무너졌던 교회들도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지진 피해 중심지 센다이시에 설립된 기독교연합피해지원네트워크(동북헬프)의 사무국장 가와카미 나오야(38)목사와 센다이의국인피해자 지원센터 이정임(52)주임, 재일한국기독교총연합회(재기총) 전국회장 조용상(59)선교사가 현지 사색보고를 위해 일시 방한했다.

“동북헬프는 지진 일주일 후 설립된 초교파 기독교 지원단체로 해외 교

회지원 단체의 창구가 되었습니다. 원래 2달 정도면 일이 끝나리라 여겼는데 오히려 활동이 커졌고 아예 법인으로 전환해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가와카미 목사는 “한국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의도순복음교회와 한국교회희망봉사단 등에서 모두 4000만엔(6억여원)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와 피해지역에 있던 200여개의 교회복구와 55개 프로젝트를 전개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255 프로젝트’로 불린 이 사업은 피해 교회와 가정에 사업비 전달은 물론 장례도움주기, 가설주택건축, 상담실운영, 교회자매결연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지진피해 후원에 따른 한국과 일본간 가교역할을 한 조용상 선교사

는 “지진피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지금 더 심각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누출로 인한 피해”라며 “이 문제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기에 한국교회를 포함한 세계 교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식품방사능측정소를 설치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지만 방사능에 방치돼 있는 지역에 대한 사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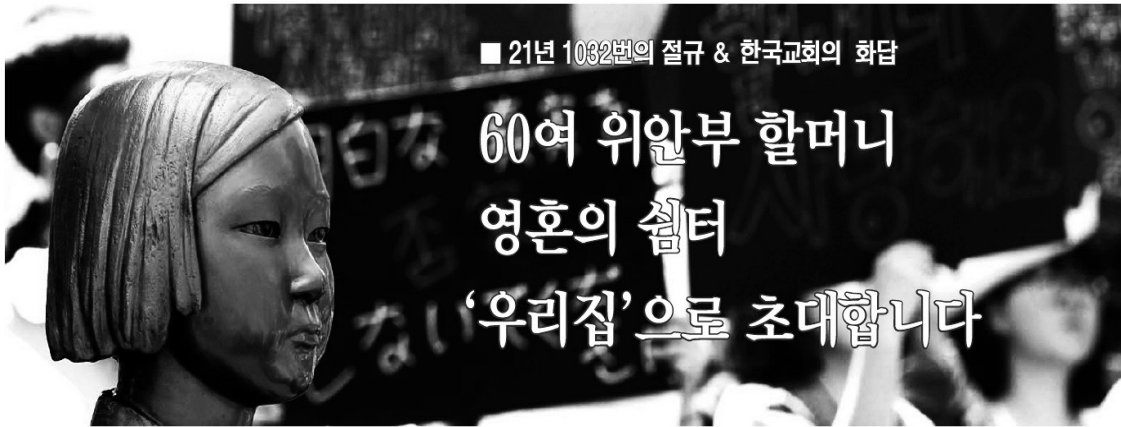
동북헬프 사역 중 돋보이는 것은 외국인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2000여 한국인 가정을 포함, 외국인 피해 복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정임 주임은 “한국교회 지원을 받아 피해 가정에 쌀을 임시 가설주택에 배포하고 심포지엄을 여는 등 외국인 피해주민의 어려움 해소에 나서고 있다”며 “현지 한국인 대상 설문조사를 한



왼쪽부터 센다이의국인피해자지원센터 이정임 주임, 일본 동북헬프 가와카미 나오야 사무국장, 재일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용상 전국회장. 윤여홍 선임기자

결과 75%가 일본인을 남편으로 둔 한국인 아내였고 대부분 심각한 재해 후유증을 겪고 있어 상담창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내 500여 한인교회를 회원으로 둔 재기총은 앞으로도 동북헬프와 지속적인 유대 속에 협력사역을 펼치는 한편 이를 통해 일본복음화를 위한 교두보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김무정기자 kmj@kmib.co.kr



■ 21년 1032번의 절규 & 한국교회의 화답

60여 위안부 할머니 영혼의 쉼터 '우리집'으로 초대합니다

메시지를 전한 김삼환 목사는 “21년 전 할머니들이 용기를 내어 일본대사관 앞에서 작은 외침을 시작한 것이 전 세계에 엄청난 울림과 감동을 줬다”며 “1032번의 외침은 진실이 알려지고 왜곡된 역사가 정의로 바로 잡히길 바라는 할머니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이어 “할머니들의 단단한 마음과 용기로 인해 세상이 조금 더 정의로워질 수 있었고 생존자가 60여명밖에 남지 않은 지금, 이제는 우리가 이 외침을 맡아 함께 외쳐야 할 때”라며 “일본은 사죄하라”는 구호를 선창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재일대한국교회 총간사 홍성완 목사는 결의문에서 일본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과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역사교과서에 관련 내용을 기술할 것 등을 요구했다. 홍 목사는 “일본 시민사회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발단은 일본기독교협의회 여성위원회 등 기독교 여성들의 움직임이었다”며 “기독교인으로서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롭게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장 이덕주 교수는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잊을 것은 잊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잊지 않는 청소년이 돼라”고 권면했다.

이날 집회에는 정대협 관계자와 교계 인사, 학생과 취재진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21년간 수요시위에 참석해 온 김복동(86) 할머니는 미국 하원

한국교회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함께하는 제103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25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희망봉사단)은 집회에서 명성교회(김삼환 목사)와 함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마련한 쉼터 ‘우리집’의 준비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정대협 수요시위 참석 11월 입주 예정인 서울 연남동의 ‘쉼터’ 소개 김삼환 목사, 위로 메시지·對日 결의문 발표



김삼환 서울 명성교회 목사가 25일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조재현 인턴기자

행사로, 이순덕(95) 김원옥(84) 할머니는 건강상 이유로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할머니들의 빈자리는 방학을 맞아 인솔교사와 함께 참석한 200여명의 중·고교 학생들이 채웠다. 이날은 서울의 낮기온이 31.5도까지 오른 데다 포장도로의 열기까지 겹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인도를 가득 메운 학생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75분간 자리를 지켰다. 집회에 참석한 인사들도 저마다 어린 학생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명지고 3학년 반크롱아리 소속 최유나(17)양은 “언론을 통해서만 접하던 수요시위에 직접 참석해 보니 마음이 더 쓰라렸다”며 “일본이 빨리 사죄해 할머니들의 존엄과 인권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석고 3학년 이현선(17)양도 “할머니들이 편히 지내실 수 있는 쉼터가 생겨 정말 다행”이라며 “꼭 뵙고 싶었는데 오늘 뵙지 못해 못내 아쉽다”며 다음 집회에도 참석하겠다고 다짐했다.

희망봉사단과 명성교회가 16억원을 들여 구입해 정대협에 무상 임대기로 한 쉼터 ‘우리집’은 서울 연남동에 대지 313.5㎡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세워졌다. 현재 할머니들의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오는 11월 입주할 예정이다. 쉼터에서는 이순덕·김복동·김원옥 할머니와 지방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할머니 한두 분이 함께 생활하게 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 日 나가사키·히로시마 원폭 투하 67년

한인 2세 피해자 3000여명 한국교회, 치유·사랑의 손 내민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 명성교회서 '피해자 위한 기도회'

한정순(53·여)씨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병명은 '대퇴부 무혈성 괴사증'. 엉덩이뼈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병이다. 인공관절 수술을 4차례나 받았지만 통증은 여전하다. 한씨는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아들(30)도 두고 있지만 틈틈이 간병사로 일한다. 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씨는 이른바 '원폭 피해 2세'다. 그녀의 어머니는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피폭된 피해자다.

정부와 민간단체 등에 따르면 당시 현지에서 원폭 피해로 사망한 한국인은 7만 여명. 이들 가운데 한씨 부모처럼 생존한 이들은 2600여명이며, 이들의 자녀인 '원폭 피해 2세'는 7000~1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에서도 한씨처럼 원폭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대략 30%(2000~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폭피해자 2세 환우회장을 맡고 있는 한씨는 8일 "원폭 피해자의 2·3세대 자녀들 중 일부는 백혈병과 무혈성 괴사증, 다운증후군, 정신지체 장애, 골다공증 등 다양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면서 "피폭자 자녀라는 게 주위에 알려지면 결혼과 취업 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숨죽인 채 살아 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

은 한국교회였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회장 홍기숙)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가 처음 제기된 1970년대 초반부터 40년 가까이 해마다 원폭 피해자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를 비롯해 피해자 치료·생활비 지원을 위한 바자회 개최 등 다각적 활동을 펼쳐왔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최소영 총무는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단체에서 해오고 있는 셈"이라며 "원폭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도 아직 없는 현실이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원법을 제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연합회에 이어 대표적인 기독교 연합봉사기구인 한국교회희망봉사단(대표회장 김삼환 목사)도 팔을 걷어부쳤다. 희망봉사단 김종생 사무총장은 "한국내 원폭 피해자들은 일

원폭 피해자 2·3세대
암·백혈병 등 고통에도
日·韓 정부 지원 못받아...
한교봉, 기도회 갖고
"특별법 제정 앞장" 다짐
명성교회는 2세 환우회에
승합차 전달·지원 약속

본 내 피해자들과 달리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한국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 이들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봉사단도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정했다. 17~18대 국회에서 원폭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부처 등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희망봉사단 등이 준비 중인 법안은 '(가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자녀의 실

태 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법안에 담기는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산하에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 설치, 한국인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에 대한 의료지원, 한국인 피해자 실태조사, 피해자 및 자녀에 대한 수당 지급 등 8개항이다. 이번 19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위해 이재영(새누리당), 이학영(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8일 오후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김삼환 목사)에서는 희망봉사단 주최로 '원폭피해자 가족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원폭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들을 보듬고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7000여명의 기도회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원폭 피해자와 그 자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자녀를 지원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명성교회는 원폭 피해자 2세 환우회에 승합차량을 전달했다. 김삼환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 통당하는 이웃을 돌보는 선한 이웃의 직무를 맡기셨다"면서 "원폭 피해자와 그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국가적인 지원이 제도로 정착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원폭 피해자 지원 단체의 봉사자들이 영성 사진을 준비 못한 원폭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원폭피해자2세환우회 제공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에서 8일 열린 '원폭피해자 가족을 위한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원폭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조재현 인턴기자



요르단 현지 한인교회인 열방교회 성도들이 지난달말 요르단으로 피신한 시리아 난민들의 거처를 방문해 위로하고 있다(왼쪽). 구세군 자원봉사자들이 14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 모항리에서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예장통합 총회·한국구세군 제공

한국교회, 지구촌 재난 눈물 닦아준다

한국교회가 시리아, 필리핀, 북한, 충남 태안 등 국내외 재난지역에 대한 구호활동에 본격 나서기 시작했다. 국내 교계가 국내외 구호활동에 나서기는 지난해 3월 동일본 지진 쓰나미 참사 이후 17개월 만이다.

유엔과 가독NGO 등에 따르면 시리아는 지난해 3월부터 1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내전으로 이달 초까지 2만여명의 사망자와 20만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하는 등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이다. 필리핀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345만명이 집을 잃었고, 북한에서는 지난 6월 말부터 한 달간 내린 폭우로 160여명의 사망자와 10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는 14일 “인도적 차원에서 시리아 난민을 구호하기로 임원회에서 결의했다”면서 “본 교단이 파송한 터키 및 요르단 선교사를 통해 총 4만 달러(약 4500만원) 상당의 구호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계 차원에서 시

예장통합, 시리아 난민에 4만달러 지원 결의
한교봉은 필리핀·북한 돕기 모금운동 시작
구세군도 폭우피해 입은 태안에 구호품 전달

리아 난민을 지원하기는 처음이다.

총회는 시리아와 국경을 마주한 비교적 안전한 국가인 요르단 및 터키의 국경 지역에서 현지 선교사들을 통한 구호품 지급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15일 요르단으로 출국 예정인 통합총회 사회봉사부 안홍철 목사는 “요르단과 터키 국경 지역으로 피신한 시리아 난민들에게 식료품 패키지과 생활필수품 등을 위주로 전달할 예정”이라며 “현지 선교사, 현지교회 목회자와 함께 시리아에서 넘어온 난민들의 거처를 직접 방문해 물품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키지에는 쌀과 콩, 식용유 등 식료품이 담길 예정이다. 생필품 품목에는

담요와 매트리스, 선풍기, 기저귀 등이 포함돼 있다. 통합 총회의 시리아 난민 지원 결정은 최근 총회 소속 요르단 선교사가 귀국해 시리아 상황의 심각성을 총회 본부와 개 교회에 알리며 관심과 지원을 호소해 이뤄졌다.

아시아 지역의 필리핀과 북한에도 한국교회의 손길이 닿을 전망이다.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에 이어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연합구호기구인 한국교회희망봉사단(대표회장 김삼환 목사)은 필리핀과 북한 지역의 수해 이재민을 돕기로 했다. 희망봉사단은 이들 국가의 이재민 지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1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키로 했다.

특히 언론에서 북한의 수해 피해 상황이 다소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희망봉사단 김종생 사무총장은 “피해 규모를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돕자는 것”이라며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모금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한국 구세군(사령관 박만희) 서해지방 재해대책위는 지난 12일부터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긴급구호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구세군 자원봉사대는 현지에 캠프를 설치하고 군·경찰과 함께 복구활동을 펼쳤다. 박재찬 기자 jeep@kmb.co.kr

◆필리핀·북한 홍수피해 모금 계좌
◇신한은행: 100-027-061018(필리핀 지원), 100-027-461771(북한 지원)
◇예금주: (사)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낙과 팔아주고



생필품 전달하고



자원봉사하고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주최로 4월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태풍피해 농민 돕기 낙과 구매 행사가 열리고 있다(왼쪽). 지난 1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 도착한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원들이 주민들에게 생필품이 담긴 구호키트를 전달하고 있다(가운데). 자원봉사에 나선 서울신대 학생이 지난 1일 충남 태안군 화훼단지에서 태풍으로 파손된 비닐하우스 정리작업을 돕고 있다. 조재현 인턴기자·연합봉사단·서울신대 제공

태풍피해를 당한 농민들과 도서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한국교회가 팔을 걷었다. 태풍피해로 상품가치가 떨어진 과수농가의 낙과를 팔아주고, 태풍으로 고립된 섬 주민들에게는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맞춤형 지원’이 눈길을 끌었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한교봉·대표회장 김삼환 목사)은 태풍피해를 입은 농가 돕기 캠페인 활동에 본격 나섰다 4일 밝혔다.

김중생 한교봉 사무총장은 “연이은 태풍 불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과일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 “주요 교회들을 대상으로 ‘태풍피해 농민 돕기 낙과 구매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설명했다.

한교봉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명일동 명성교회(김삼환 목사), 역촌동 은평

“태풍 피해농가 힘내세요” 교계 ‘맞춤형 지원’ 든든

교회(한대수 목사) 등 한교봉 회원 교회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낙과 구매 캠페인은 회원 교회와 판매 농민들 간 직거래를 주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낙과 1억원어치 구매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교봉은 지난달 말 태풍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지역을 방문, 침수가옥 등에서 도배 봉사 등 주택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단장 조현삼 목

사)도 지난 1~2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 긴급구호팀을 파견해 태풍으로 고립된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 지역은 방파제 상당수가 유실되고 통신타설까지 파손돼 6일간 외부와 단절됐던 지역이다.

서울 광명교회(조현삼 목사)와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긴급구호팀 7명은 라면 미숫가루 국수 밀가루 참치통조림 치약 등 6만원 상당의 생필

품이 담긴 구호키트 120개를 가거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연합봉사단 이상민 간사는 “목포 터미널에서는 출항이 불투명했고 방파제 파손으로 가거도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독거노인과 차상위 계층에 구호키트를 전달할 수 있었다”면서 “봉사단을 태운 배가 12일 만에 들어온 첫 배였기에 섬에는 이미 생필품이 바닥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가거리 2구 이장인 박재원씨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 사람들이 찾아와 실제적인 도움을 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신학대 학생과 교수 직원 등 35명도 지난 1일 충남 태안군 화훼단지에서 찢어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온실 정리 등을 도우며 피해복구 활동에 동참했다.

박재현 기자

“도박공화국 오명 벗자” 한국교회 팔건었다

한교봉, 사행산업으로부터 국민보호 법 시행 촉구

개정법 11월24일 시행 앞두고
부처간 이기주의로 사문화 위기

한국교회가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법제
화 촉구 활동에 팔을 걷었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한교봉·대표회장
김삼환 목사)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는 사행산업 피해자들인 도박중독자의 입
장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감위

법)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
했다. 한교봉은 또 정부가 사행산업의 관리
와 감독 기능을 통합·강화해 국민을 사행산
업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청
했다. 한교봉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기
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물
부 등 사행산업 소관 부처에 전달기로 했다.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사감위법은
사행산업의 통합관리 감독, 중독 예방과 치
유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5월 개정

됐다. 여러 사업주체로 나눠 시행되고 있는
사행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특
히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체들이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부담금을 출
연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개정법이 오는 11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사문화될 위기에 놓였다. 시행령 개
정 과정에서 사행산업 관리·감독 주체에 대
한 정부부처들이 사행산업체의 부담금 분담
비율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김
종생 한교봉 사무총장은 “부처 간 이기주의
로 관련법 시행령이 폐기될 경우 정부는 국
민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정부는 사행산업체의 중독예방
치유 부담금이 법정 최대 금액으로 정해지
도록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매출액은
18조3000억원으로 1998년(3조6000억원)
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합법 사행산업
과 별도로 불법도박 산업은 53조원으로 추
정되고 있다. 또한 도박중독 인구는 265만
명에 달하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은 약 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한국=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
하고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b.co.kr

‘불산 사고’ 이재민 돕기, 교회가 팔 걷었다

한교봉, 구호품 전하고 위로... 지역 교계도 성금 모금 등 동참

한국교회와 불산 누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지난 8일부터 집을 떠나 단체생활을 경북 구미시 산동면 지역의 이재민 돕기에 나섰다.

한국교회명봉사단(한교봉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을 비롯해 지역 교계 연합기구, 교단 차원에서도 도움이 손길이 모아지고 있다.

김종생 한교봉 사무총장 일행은 지난 12~13일 현지 교회인 구미동대교회(김재식 목사) 관계자들과 함께 산동면에 위치한 불산가스 누출 피해 이재민들의 임시 거주시설 2곳을 방문했다. 이들 시설에는 현재 350여명의

한교봉 측은 이들에게 생수(700병)와 매트(40개), 간식 등 500만원 상당의 구호품을 전달하고 이들을 위로했다. 최수철 한교봉 국내사업국장은 “정부는 불산 누출사고 피해 현장에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귀가를 권유하고 있지만 실제 귀가고자 하는 주민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면서 “단체 생활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권태진 한교봉 공동회장(왼쪽 두 번째) 등이 지난 12일 구미지역 불산 피해 이재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다.

지역 교계의 도움도 이어지고 있다. 구미시 기독교총연합회(회장 천석길 목사)는 지난 8일부터 이달 말까지 250개 회원 교단을 대상으로 피해지역 주민 돕기 성금을 모금 중이다. 교단 차원에서는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조만간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

다. 교계의 지원이 잇따르자 한교봉은 현지 구미동대교회를 통해 한국 교계의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피해지역을 방문한 권태진(군포제일교회) 한교봉 공동대표는 “피해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임하길 바란다”면서 “한국교회가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는 데 낮은 자세로 섬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산동면 일대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는 사망자 5명을 포함, 총 23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또 320ha 규모의 농작물과 가축 3200여마리가 피해를 입었으며, 차량 파손도 551건에 달했다. 조양중단 등 기압체 77곳의 피해액은 1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재천 기자 jeep@kmb.co.kr

쪽방촌 주민 1000명과 성탄절 행사 '한교봉' 24일~25일 서울 동자동

한국교회희망봉사단(한교봉·대표회장 김삼환 목사)은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의 대표적인 쪽방 밀집지역인 동자동 쪽방촌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성탄절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김종생 한교봉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도시의 소외계층인 쪽방 주민들의 자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사회적 지원 사업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쪽방에서 만난 예수님’을 주제로 준비 중인 한교봉의 성탄 행사 프로그램은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극공연과 성탄주민잔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운전휴양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일일 쪽방체험 등이다. 쪽방주민 지원사업으로는 쪽방주민 자활을 위한 풀빵노점상 창업 지원과 다자녀 쪽방주민 주거환경개선 지원, 65세 이상 고령자와 청년 간 1대1 결연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한교봉은 이달 말까지 탈북 모자(母子) 가정 및 탈북 여성, 도박중독자,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 구미 불산 피해 이재민, 자살자 및 순직자 유가족(쌍용차 및 천안함·연평도 사태 유족) 등을 대상으로 한 섬김 사역도 펼치기로 했다. 해외에서는 시리아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요르단의 자타리캠프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보건·의료봉사를 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시리아 난민들 “한국서 산타가 왔어요”

국민일보-월드디아코니아, 시리아 난민촌을 가다 ②

한국 교회가 이국땅 요르단에서 험겨운 겨울을 나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다. 국제구호단체 월드디아코니아(WD)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요르단 국경지대 자타리 난민촌과 마프락시를 찾아 시리아 난민 가정에 미화 2만5000달러 상당의 가스 난방기와 식료품을 전달했다. WD는 난민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난민들의 생활실태도 조사했다.

WD는 한국교회회당봉사단(대표 회장 김삼환 목사)이 해외재난 구호를 위해 지난 2월 설립한 단체다. WD는 설립 이후 첫 국제구호사업으로 시리아 난민들에게 나갔다.

WD가 지원한 품목은 시리아 난민 100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50디나르(약 7만원) 상당의 가스 난방기 100개와 16.5kg 용량의 가스통(약 6만원)이다. 200가정에 불과 설

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날 WD로부터 난방기와 가스통을 전달받은 칼리파씨 부부는 눈시울을 붉혔다. 아들 크함마드는 난방기에 불이 들어오자 탄성을 질렀다. 칼리파씨는 “어려본에게 정말 감사하다.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WD가 현지 교회 및 선교사와 함께 전달한 ‘푸드 패키지’는 7~8인



국제구호단체 월드디아코니아의 정병화(오른쪽 두번째) 박승철(오른쪽) 목사가 지난 11일 요르단 마프락시의 시리아 난민 파리지 알리 칼리파씨 집을 방문, 가스히터와 가스통 등 난방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아래는 시리아 난민촌 전경.

기독교국제구호단체 WD, 설립후 첫 사업으로 난민들 기근·추위 견딜 식료품·난방기 선물 지속적인 지원위한 난민촌 생활실태 조사도

탕, 파우더 우유 등 1개월치 식량도 선물했다. 이들 난방기구와 식량은 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다.

WD 조사팀이 12일 방문한 파리지 알리 칼리파(42)씨의 16.5㎡(5평) 집은 난방기구가 전혀 없었다. 바닥 청문, 시멘트벽 등 사방에서 한기가 밀려들어 한낮에도 의두를 벗을 수 없었다. 칼리파씨의 아내는 “5살 된 아들 모함마드가 이달 내내 감기를 앓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칼리파씨는 다른 시리아 난민처럼 요르단에서 직업을 가질 수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120디나르(약 15만원)의 월세를 마련하는 것도 버거운 형편에 90디나르(약 12만원) 상당의 가스 난방기와 가스를 구

규모의 한 가정이 약 2주간 생활할 수 있는 식료품으로 채워졌다. 현지 사역자들은 WD의 지원을 받아 난민 200가정에 ‘푸드 패키지’를 두 차례 전달할 예정이다.

모함마드 라마단(46)씨 부부는 WD로부터 식료품을 선물받고 한시를 놓았다. 라마단씨 가족은 칼리파씨네보다 더 열악한 주택에서 6식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80디나르(약 10만원)의 월세를 마련할 길이 없어 식비를 줄이려 했다. 뜻밖에 1개월치 식량을 선물받은 라마단씨의 아내 와스파(34)씨는 얼굴 가득 큰 웃음을 지었다.

현지 구호사업을 돕고 있는 요르단 선교사 송명근 목사는 “교회의 따뜻한 사랑이 시리아 난민들의 닫힌 마음을 열고 있다”며 “이방인에게 아늑과 따듯함을 전해 보여주지 않는 무슬림들도 구호사업을 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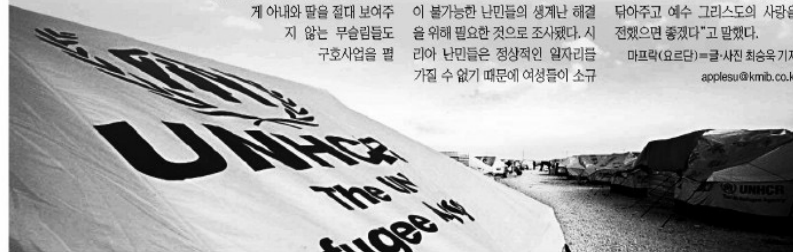
치는 목회자들에게는 가족을 공개할 정도”라고 말했다.

WD는 이번 실사를 통해 학생들 교육 지원과 여성 자활 직업장 마련, 어린이 의복 공급 등 세 가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파악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공식 통계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 가운데 27%는 17세 미만이다. 하지만 요르단의 공립학교는 난민 아동들을 모두 수용할 능력이 없고, 난민들은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낼 경제적 능력이 없다. 난민 여성들을 위한 자활 직업장도 취업이 불가능한 난민들의 생계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리아 난민들은 정상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소규

모수공업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공동 작업장을 마련하지는 못한다. 아이들이 옷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세계 각지에서 구호의류가 담지하고 있지만 아동복은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난민 자녀의 건강 및 위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WD는 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WD 기획팀장 정병화 목사는 “시리아 난민들이 처한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했다”면서 “한국 교회가 나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프락(요르단) = 글·사진 최승욱기자
applesu@kmb.co.kr



25.2 X 24.2 cm

“쪽방 어르신은 온천, 우린 쪽방으로”... 청년산타 17인의 성탄

자식도 안 들여다보는 서울 동자동 쪽방촌... ‘손주’들이 왔다

“안녕하 다녀오세요~! 짐은 저희 가 잘 볼게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입구. 빨간색 대형 편광버스 앞에서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버스에서 하차한 노인들을 향해 절친 손을 흔들었다. 동네 주민인 노인들은 버스에 타기 전 자식 손주의 허아지듯 젊은이들을 꼭안아주거나 절친하게 악수를 나눴다.

서울역 맞은편 남산지락의 동자동 일대는 아직도 약 1000가구의 쪽방이 모여 있는 곳. 젊은이들은 이날 하루 쪽방촌 주민과 ‘잃어버린’ 돌맞배귀살이 보기로 한 점이였다. 노인들과 1대1 결연을 맺은 이들 젊은이들은 이날 아침

점 반쯤 밤을 먹고, 노인 40명을 버스에 태워 수원보온천 권령을 보내드렸다. 노인들이 떠난 쪽방에선 젊은이 17명이 하룻밤을 보냈다. YD 한국교회회망봉사단(한국교회 대표회장 김삼현 목사)이 마련한 ‘동자동 주민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행사’.

◇200원짜리 빨간 믹스커피 한 잔
“사람이 죽어도 옆에서 쳐다보지 않는 곳이 머지않아 노인네들이 많아서 울해도 열몇 명은 죽어 나갈 것” 이 날 오전에 방문한 한 쪽방. 불조심 포스터가 붙어 있는 시멘트 벽에 1.2m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방바닥에 지붕의 하나를 열며 현오(50)씨가 말했다. 6~7㎡ 인공인방 안은 오랜만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깔끔히 정리했지만, 벽지 위 곰팡이 자국과 늘어 붙은 냄새는 아까지 못했다.

“일을 전에도 노인 부부 중에 한이 어르신들 “난생 첫 효도관광 젊은이들이 겁도 빠주고... 이런 따뜻한 성탄 또 있을까”

청년들 “쪽방촌에서의 1박 2일 생 못 잊을 소중한 경험”



24일 오후 서울 동자동 쪽방촌 입구에서, 이날 어르신들과 1대1 결연한 젊은이들이 온천 여행을 떠나는 쪽방촌 주민들을 배웅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이 버스에 탑승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이별밤을 보냈다.

쪽방촌 최모(81)씨가 말했다. “아들 이셋 있지만 마누라 죽고 나서 손발 리기 싫어 혼자 이리 들어왔는데, 오늘처럼 젊은 사람들로 동네가 북적이 는 날은 처음이야. 허허” 대박생 정씨는 “낯은 낫, 그늘진 곳의 삶을 세 상에 드러내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꿈인데, 오늘 다시웃 필 경험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오늘은 동네 간кет날”
한국교회회망봉사단(한국교회 대표회장 김삼현 목사)을 통해 주민 결연 및 쪽방 하룻 체험에 참여한 청년 들은 이날 오전 동자동 성민교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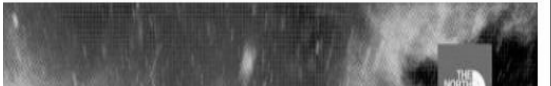
첫 인사를 나눴다. 세종과 장영실 이 마구들 다룬 국산 ‘노비’의 정작 음악 극 ‘현상세계’를 예혜당에서 함께 본 뒤, 신나게 성탄 캐럴을 부르다 나오 니 교회 근처 놀이터엔 어느새 밤커와 동백 리아기가 처려져 있었다. 이날 동백 급기급담은 한국교회 대표회장 김삼현(명성교회), 상임단장 최이우(종 교교회), 안태수(은평성결교회), 권 오성 전 NCC 총무, 한국장로교총연 령회 대표회장 권태준 목사 등 한국 교회와 이름난 목회자들이었다. 노란 앞 치마를 두른 김삼현 목사가 말기투 반 죽을 풀병 흔들어 봤는데, 그걸의 죄이 우 목사가 의외로 익숙한 손놀림으로 병을 뒤집는다. “쪽사님, 우리 동양팔 캐요?”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 웃음 이 터졌다. 한국교회는 겨울철 알자리가

없는 주민들이 알릴 수 있도록 동백 리아기 벽대의 렌트비 일부를 부담키 로 했다. 군포제일교회는 밤차를 끌고 와 따뜻한 국밥을 대접했다. 국밥으로 몸을 대운 주민들은 30g짜리 쌀도대 와 꿀 한 봉지씩을 안손에 들고 점으 로 향했다.

◇“손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져요”
이날 행사는 동자동 쪽방촌 주민 1000여명 중 300여명이 조광원으로 가있던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과 한국교회 관계 준비했다. 주민들은 한 달에 5000원~1만원에 내 조광원이되 고 6개월이 지나면 소액 대출을 받는 다. 가족이 있을 때 많았 5만원, 병환 비 10만원 식이다. 조합이사장은 쪽방 촌 주민 이태현(54)씨. 이씨는 “10년 째 쪽방촌에 살았지만, 폐가 되면 와

서 살아나 못가지주고 가버린 사람 들 은 봤어도 이렇게 마을 잔치 벌이고 요도 권령까지 시켜주는 건 처음 본 다”고 했다. “한국교회가 이날 초써 먼 저 김치 770g을 가져다줬어요. 거기 다오날 쌀 한포대씩 나눠줬으니, 김 치와 쌀 있으면 한달 나지 않겠어요. 올해는 내가 본 동자동 쪽방촌 역사상 제일 따뜻한 성탄절이네요.”

이날 쪽방에서 잠을 잔 윤주영 (23·연세대 신학과 풀)씨는 이렇게 말했다. “해수님이 데어나신곳도 이 세상에선 비현하다. 아기는 말구유였 겠어요. 어쩌면 내가 믿는 신앙의 본 질이란 것도, 어쩌면 말이나 화려한 건물 속이 아니라 여기 쪽방촌 사람 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데 있을 것 같 아요.” 이태현 기자



한국교회 이주민선교의 특징과 과제¹⁾

황홍렬(부산장신대, 선교학)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이 기획하고 재정을 지원하여 한국교회 이주민선교에 대한 전국적인 최초의 조사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뤄졌다. 이 글은 기초조사의 결과와 거기에 나타난 이주민선교의 특징과 과제, 이후 심층조사를 위한 제안을 담고 있다.

I. 기초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조사 범위와 주체

1. 기초조사의 필요성과 의의

1990년대 초부터 한국교회 일부가 이주노동자선교를 시작했다. 이주노동자선교는 199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는 보다 활성화 되었다.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선교는 200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고, 2000년대 후반에 확대되기 시작했다. 북한이탈주민선교는 2000년대 중반에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2007년에 1907년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선교대회 시 이주민선교분과를 별도로 구성해 선교학자들과 이주민 선교 관련자들이 모인 적이 있었다. 당시 이주민선교 분과가 다룬 부문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난민 등이었다. 그동안 이주민 선교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부문별로, 기관별로,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졌다. 2000년에 외국인이주노동자선교를 하는 교회나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 의해 이뤄졌었다.²⁾ 아직까지는 이주민 선교에 대한 전 부문에 걸친 전국적인 실태 조사가 없었다. 따라서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이 이번에 전국적인 이주민선교 기초조사를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그 의의가 크다.

2. 조사 목적

이번 이주민선교 기초조사의 목적은 한국기독교의 이주민선교 현황에 대한 전국적인 기초조사를 통해 이주민선교를 하는 교회/선교단체/기관의 특징이나 규모,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을 부문별로(이주노동자,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 자녀, 유학생, 난민 등)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이주민선교의 과제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주민선교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이주민선교회 대표들, 교회 목회자들과 협력해 지역별 이주민선교협의회를 만들거나 기존 협의회를 강화하고, 지역별로 이주민선교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이주민선교 협력과 부문별 전문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나아가서 지역 이주민선교협의회간 교류를 통해 부문별 선교 협력 및 전문화에 기여하고, 앞으로 전국 단위의 이주민선교협의회가 구성되도록 격려한다. 여러 총회 이주민 선교 담당부서들의 협력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기초조사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교단 산하 교회

1)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이 주관한 이주민선교 기초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출판하기 전에는 그 결과를 인용하지 않기 바랍니다.
2)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00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주소록」(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미간행자료집, 2000)

나 기관들을 추가로 작성해 기존 명단을 보완하도록 한다. 그리고 여러 총회와 선교학회와 이주민 선교 전문가들이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주민 선교 포럼을 구성하여 협력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3. 조사 범위, 방법 및 한계

1) 조사 범위

본 기초조사에서의 지역적 범위는 전국이었다. 전국에서 이주민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와 단체 및 기관들의 사역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조사의 대상 범위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유학생, 난민이었다.³⁾ 이주민의 범주에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부의견이 있었지만, 북한이탈주민들 자신이 이주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이번 기초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을 제외하기로 했다. 본 기초조사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교회/기관/단체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2000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조사할 때 이주노동자선교를 한다고 응답한 개신교 교회/선교기관은 87개인데 반해 이번 기초조사에서 이주노동자선교에 응답한 교회/선교기관 수는 215개이다.

2) 조사 방법과 설문조사 내용

본 기초조사에서는 이주민선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 사항들(교회/기관/단체의 소속교단, 형태, 부문, 시작연도, 연락처, 실무자 수, 자원봉사자 수, 예산, 재정 후원, 그리고 부문별 사역국가, 프로그램 참여인원, 운영 프로그램, 주요행사, 이주민선교 목적 등)로 구성된 설문지와 협조공문을 2012년 8월에 우편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고, 9월부터 11월 사이에 우편과 전자우편을 통해 재발송하여 응답을 받되 전화로 설문조사지 수신 여부와 설문협조를 구했다. 설문지는 3명의 수석연구원과 1명의 책임연구원, 4명의 공동연구원이 초안을 마련하고, 자문위원의 검토를 받아 확정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일부 신학교의 설문협조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교회/기관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신학교 설문지는 이주민선교하는 교회/기관들에 대해 간략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들었고, 추가로 발굴된 교회/기관들에 대해 동일한 설문지를 발송해 응답 결과를 조사결과에 반영했다. 2012년 12월 조사 결과를 모아 연구원들이 정리해서 2013년 1월 세 차례 모여 결과를 분석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했다. 이주민선교 대상으로 파악한 교회/기관/단체의 숫자 총 575개 중 설문조사에 응하여 회신을 완료한 교회/기관 270개(추가 발굴 10개 포함), 회신 대기 98개, 중단/미사역 95, 주소불명/연락 불가 74, 회신 거부 22, 중복 7, 비기독교단체 9개 등이다.

3) 조사의 한계

본 기초조사는 설문지와 통계를 활용한 양적조사로 조사 기간이 6개월로 짧았다. 그런데 설문지 작성에 3개월이 걸려 조사기간이 3개월로 너무 빠듯했다. 그리고 일부 신학교로부터의 조사 대상도 추가되어 조사기간이 촉박했다. 그리고 예산이 3000만원으로 제한적이

3) 국내 체류 재외동포(재중 동포와 구소련 동포 등)는 전체 체류자 중 비중이 높지만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여성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이들이 있다. 그렇지만 재외동포 중 일부는 이주민선교하는 교회/기관 활동에 참여한다. 조사 범위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재외동포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었다. 커다란 한계는 설문조사 항목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일부 설문에서 '없다' 항목이 누락되어 조사결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설문지 문항의 작성에서도 척도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고급통계의 활용에 있어서의 제약이 있었다. 그리고 이주민선교를 열심히 하는 일부 대형교회와 전문적 선교기관이 응답을 하지 않거나 일부 교회/기관들이 조사를 거부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일부 교회/기관들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4) 조사에 대한 협조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기초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총회가 파악한 이주민선교 명단을, 그리고 여러 이주민선교단체들이 자신의 명단을 본 기초조사를 위해 기꺼이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은 조사대상을 확정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이주민선교 각 부문별로 앞장서 왔던 교회/기관들의 대표자들이 자문위원을 수락해 기초조사에 협력했고, 지역이주민선교 대표자들도 지역 간담회를 통해 협력했다.

5) 용어의 통일

본 기초조사는 이주민을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유학생, 난민으로 정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인근로자를 이주노동자로 통일하기로 했다. 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여성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지만 선교대상이 주로 한국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입국해 장기체류 하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결혼이민여성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다문화가정자녀와 유학생, 난민은 용어상 특별한 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

4. 조사 주체

1) 자문위원

김경태 목사(대구/통합), 김규복 목사(대전/통합), 김성욱 교수(총신대/한국복음주의선교학회장), 김영애 선교사(남양주/합동), 문성주 목사(유학생, 합동) 박창현 교수(감신대/한국선교신학회장), 석창원 목사(광주/합동), 성명옥 목사(경기도 광주/통합), 신상록 목사(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예성), 유혜근 목사(통합), 이강현 목사(천안/기감), 이정호 신부(성공회), 이철승 목사(경남/기감), 이철우 목사(광주/기장), 장창원 목사(오산/통합), 전철한 목사(인천/기성), 조용희 목사(전주/통합), 최의팔 목사(기장), 한국염 목사(기장), 하춘실 목사(인천/통합), 허명호 목사(합동)

2) 운영위원회

한국교회희망봉사단: 김종생 목사, 박승철 목사

수석연구원 : 김해성 목사, 박천웅 목사, 서기원 목사.

책임연구원 : 황홍렬 교수

공동연구원 : 노일경 목사, 박홍순 교수, 정노아 목사, 한진상 교수.

3) 실무자 회의

구성 : 황홍렬교수, 노일경목사, 박홍순교수, 정노아목사, 한진상교수, 박승철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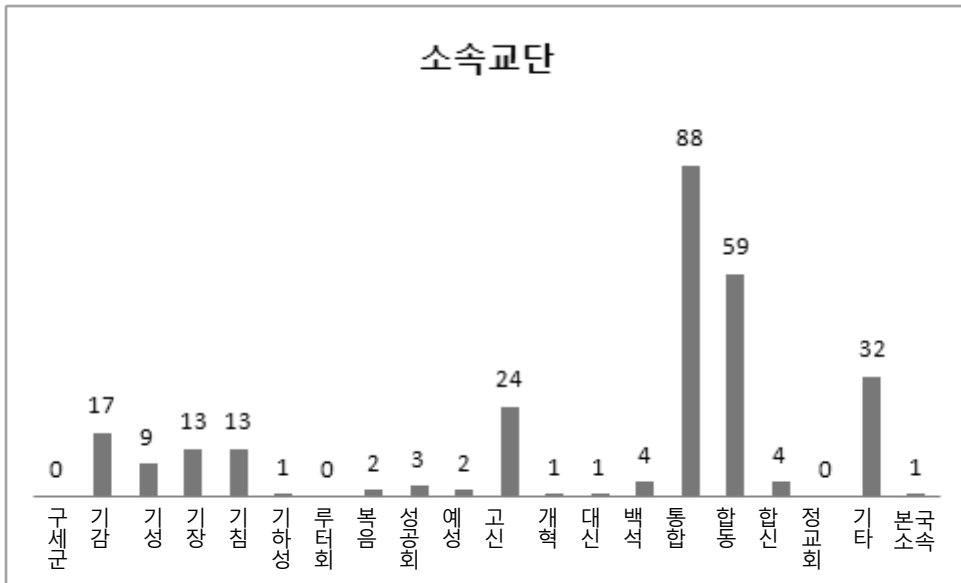
내용 : 총회와 이주민 선교단체로부터 명단 협조

지역별 이주민선교단체/교회 대표자 간담회를 진행
전화로 기초조사

II. 기초조사의 주요 결과

1. 교회/기관/단체 현황

1) 소속 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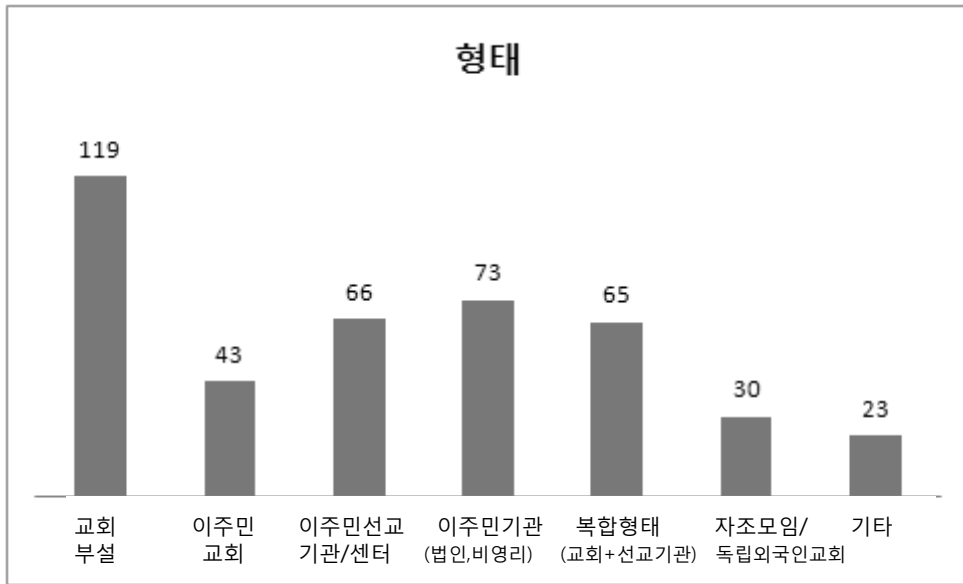


(응답자 274)

이주민선교 기초조사에 응한 교회 및 기관 중 소속 교단을 보면 예장통합이 88개(32%), 예장합동이 59개(22%), 예장고신이 24개(9%), 기독교감리회가 17개(6%), 기독교장로회와 기독교침례회가 각각 13개(5%), 기독교성결교가 9개(3%), 예장백석과 예장합신이 각각 4개(1%), 그리고 설문지에 제시한 18개 교단에 속하지 않음이 32개(12%) 순이다.

교단 소속 결과가 반드시 현재 이주민선교 현황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이 결과는 신학교 설문지를 협조한 5개 신학교 중 부산장신대, 서울장신대와 호남신학대학교의 소속 교단이 예장통합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들 신학교를 통해 추가로 발굴된 교회들이 모두 통합 소속은 아니지만 통합 소속 교회 및 기관들이 다른 교단에 비해 더 많이 설문에 응답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심층 조사를 할 경우에는 교단 신학교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과거 교단차원에서 이루어진 이주민선교실태조사의 여부와 교단차원의 자료제공 같은 협조의 정도가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

2) 이주민선교의 형태⁴⁾



(응답자 272, 복수응답자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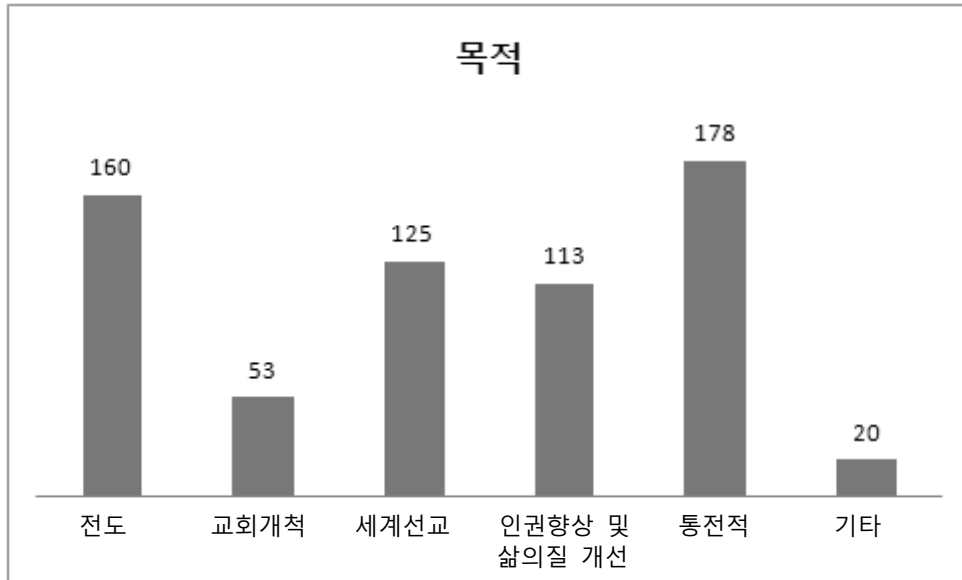
이주민선교의 형태를 보면 복수응답 교회/기관수 419개를 기준으로 하면 교회부설이 119개(28%), 이주민기관(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이 73개(17%), 이주민선교기관/센터가 66개(16%), 복합형태(교회+선교기관)가 65개(16%), 이주민교회가 43개(10%), 자조모임/독립외국인교회가 30개(7%)순이다.

교회부설 형태가 다수인 것은 예상대로지만 비율이 28%에 불과해 이주민선교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주민선교기관/센터보다 이주민기관이 더 많은 것은 예상 밖 결과였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이주민센터를 위탁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법인 형태로 전환한 이주민선교기관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기관과 기업들의 다문화기관들에 대한 지원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들 외부기관의 지원 조건 중 하나가 법인 형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교회와 이주민선교기관을 동시에 운영하는 교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회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중에도 교회나 선교에 대한 신학적 입장 때문에 이런 형태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있다. 한국교회의 교단에 속한 이주민중심의 교회들도 증가하고 있고, 독립적인 이주민교회들도 늘어나고 있음을 설문조사는 보여준다. 독립적인 이주민교회들과 한국교회의 노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대형교회들과 이

4) 여기서 교회부설형태는 한국교회가 모체가 되고, 교회의 한 부서 형태로 이주민선교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주민교회는 이주민선교를 목적으로 한국인과 이주민으로 구성되거나 이주민들이 중심인 교회로 목회자는 한국인이고 한국교회의 노회/연회/지방회에 가입할 수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 이주민선교기관/센터는 이주민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선교기관/센터이다. 복합형태는 교회와 이주민선교기관/센터를 병행하는 형태이다. 독립외국인교회는 이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모이고 목회자도 그 나라 목회자인 교회를 가리킨다. 이러한 정의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고 본다. 앞으로 심층조사에서는 이런 정의를 명시하고, 조사원이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교회들을 중심으로 이주민 선교하는 교회들과 세계선교를 어떻게 접목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지 다양한 사례와 논의들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총회가 수렴하여 선교정책에 반영할지, 그리고 신학교육에 반영할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3) 주민선교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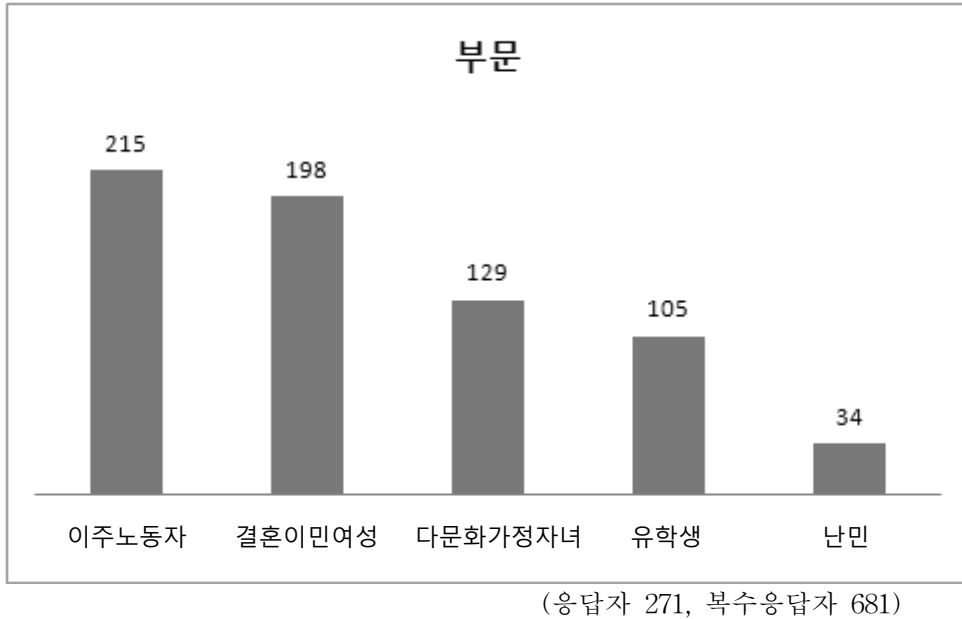


(응답자 270, 복수응답자 649)

이주민선교의 목적으로는 복수응답한 교회/기관 649개를 기준으로 하면 통전적(전도와 사회봉사/인권, 삶의 질 개선)이 178개(28%), 전도가 160개(25%), 세계선교가 125개(19%), 인권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이 113개(17%), 교회개혁이 53개(8%)순이다. 복수응답이지만 통전적 목적을 지닌 교회/기관들이 가장 많았고, 복음주의 진영의 목적이라 할 전도와 세계선교가 그 다음 차례였고, 에큐메니칼 진영의 목적이라 할 인권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이 그 다음 순서였다.

전체적으로는 이주민 선교의 목적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교회/기관이 제일 많지만, 복음주의가 지향하는 전도와 세계선교, 교회개혁을 합치면 52%를 차지한다. 반면에 통전적이거나 에큐메니칼 색채를 띤 교회/기관들은 45%이다. 이주민 선교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복음주의적 목적과 에큐메니칼 목적 사이에서 복음주의적 목적이 더 많지만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이는 이주민 선교에 참여하면서 복음주의 진영도 인권문제를 외면할 수 없고, 에큐메니칼 진영도 사람의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상호 수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교단별로, 선교신학적 입장에 따라 이주민 선교 혹은 다문화 사역을 하는 지향점이 다른 것이 현실이다. 향후 심층조사에서는 이러한 신학적 측면에 대해서도 조사와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4) 이주민 선교 부문



이주민선교에서 참여하고 있는 부문을 보면 이주노동자선교가 215개(32%), 결혼이민여성선교가 198개(29%), 다문화가정선교가 129개(19%), 유학생 선교가 105개(15%), 난민선교가 34개(5%)순이다.

2012년 11월 30일 현재 비전문취업자와 방문취업자 현황은 231,497명과 247,095명으로 이주노동자 수를 478,592명으로 볼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은 127,424명이다. 이주노동자 수가 결혼이민여성보다 약 4배이다. 그런데 이주민선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는 3%에 불과하다. 이주민선교 대상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주노동자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기관 수 보다 결혼이민여성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기관 숫자가 대략 네 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혼이민여성선교가 주로 한글교육과 문화교육 등을 시행하여 산재와 노동상담을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선교에 비해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결혼이민여성선교 부문이 이주노동자선교 부문보다 교회로부터 자원봉사자나 후원을 얻기가 용이하고, 결혼이민여성 관련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선교는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어려운 일이 많으면서도 선교의 대상인 이주노동자들의 출입국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다문화가정 자녀 숫자는 2012년 9월 18일 교과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46,954명이다. 초등학생이 33,792명(72.0%), 중학생이 9,647명(20.5%), 고등학생이 3,515명(7.5%)이다. 다문화가정 자녀 숫자가 이주노동자 숫자에 비하면 10%에 불과한데 이주민선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선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로 이주노동자선교가 차지하는 32%에 비해 매우 높다. 이주민선교 대상 숫자 비율로 하면 이주노동자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선교 비율이 3.2%이어야 하는데 19%인 것은 6배 높다.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향후 한국사회에서 차지할 비중이 점점 높아질 뿐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어린이, 청소년 세대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게 되면 부모에게 그만큼 전도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물론 다문화가정선교가 모두 교회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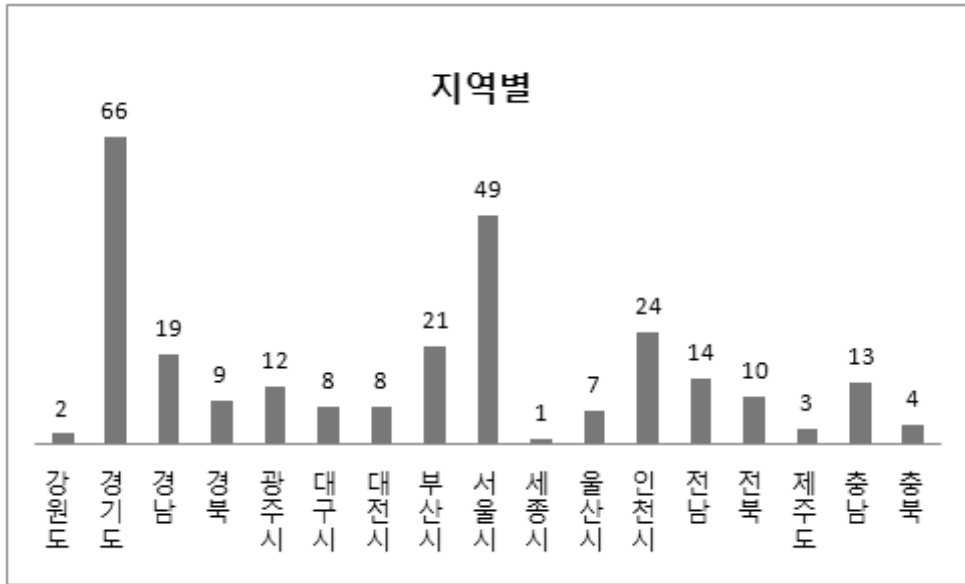
장은 한계가 있다.

결혼이민여성 숫자와 유학생 숫자를 비교하면 유학생 숫자는 87,270명으로 결혼이민여성의 68.5%이다. 결혼이민여성선교 비율이 19%인데 68.5%를 대입하면 유학생선교는 13%여야 하는데 실제로 전체 이주민선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로 대상 숫자의 비율에 비해 2% 가량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민 선교 대상 숫자에 비하면 유학생 선교를 하는 교회/기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잘 하고 대학생 선교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유학생들이 귀국하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교효과도 크기 때문에 유학생 선교하는 교회/기관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학생들의 경우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영어에배나 영어 성경읽기 같은 소임을 맡길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선교가 적극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난민선교는 난민이 적고 정부가 난민을 인정하는 데 까다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교회/기관만이 난민 선교에 참여한다고 본다.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난민 신청자는 1,061명이었고, 인정받은 자는 48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27명, 불인정이 491명, 철회가 165명이다.

전체적으로 대상 숫자비율로 보면 이주노동자 478,592명, 결혼이민여성 127,424명, 다문화가정 자녀 46,954명, 유학생 87,270명, 난민 신청자는 1,061명으로 전체 741,301명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숫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64.6%: 17.2%: 6.3%: 11.8%: 0.1%이다. 현재 이주민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기관 비율로 보면(복수응답) 32%: 29%: 19%: 15%: 5%이다. 즉 이주노동자선교는 숫자에 비해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기관이 절반에 불과하고, 결혼이민여성선교는 1.7배이고, 다문화가정자녀선교는 3배이고, 유학생선교는 1.3배이고, 난민선교는 50배이다. 난민들의 숫자에 비해 50배나 많은 난민선교교회/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난민이 처한 절박한 상황이 다른 이주민들보다 더 절실한 선교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를 난민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들을 난민에 포함시킬 경우 난민선교교회와 기관의 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선교와 유학생선교가 많고 다문화가정선교가 훨씬 더 많은 것은 이들의 법적·사회적 지위가 다른 이주민들에 비해 확고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연히 그들에 대한 선교전망 또한 밝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이주노동자선교 숫자에 비해 선교교회/기관이 적은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주기적으로 귀국하고, 힘든 사역에 비해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선교 및 사역에 대한 정부와 외부기관들의 지원과 사회적 관심의 정도가 낮은 것도 낮은 사역비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교는 양적 비교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라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5) 지역



(응답자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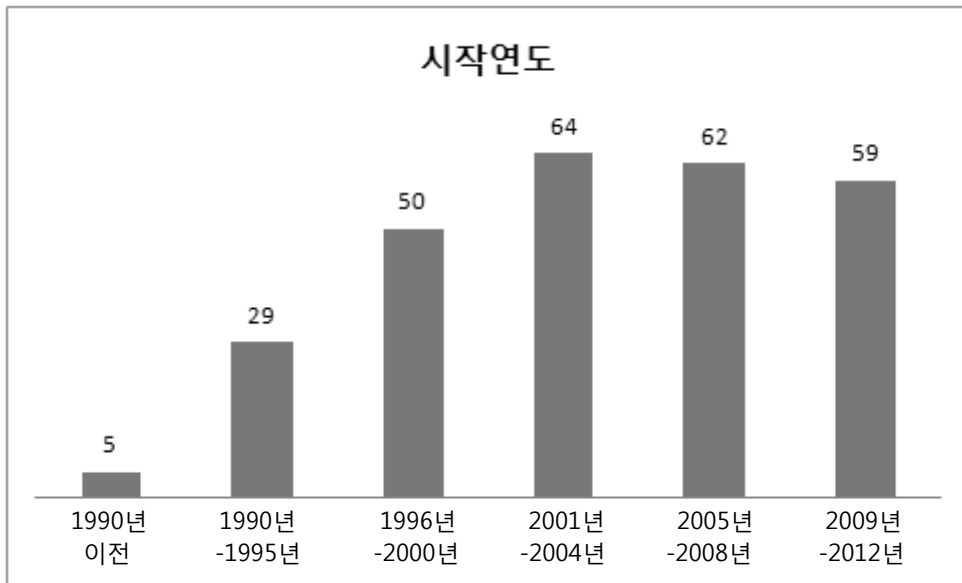
이주민선교의 지역별 분포도를 응답자 270명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66개(24.4%), 서울시 49개(18.1%), 인천시 24개(8.9%), 부산시 21개(7.8%), 경상남도 19개(7%), 전라남도 14개(5.2%), 충청남도 13개(4.8%), 광주시 12개(4.4%), 전라북도 10개(3.7%), 경상북도 9개(3.3%), 대구시와 대전시가 각각 8개(3%), 울산시 7개(2.6%), 충청북도 4개(1.5%), 제주도 3개(1.1%), 강원도 2개(0.7%), 세종시 1개(0.4%)순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이주민선교 교회/기관이 총 139개로 51.5%가 집중되어 있고, 부산·울산·경남지역이 47개로 17.4%, 광주·전남이 26개로 9.6%, 대전·세종·충남이 22개로 8.1%, 대구·경북이 17개로 6.3%, 전북이 10개로 3.7%, 경북이 9개로 3.3%, 충북이 4개로 1.5%, 제주도가 3개로 1.1%, 강원도가 2개로 0.7%이다.

2012년 11월 30일 현재 등록 외국인 거주지역별 분포 현황(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11월)에 따르면 수도권에 63%, 부산·울산·경남지역이 12.5%, 대전·세종·충남이 6.7%, 대구·경북이 6.5%, 광주·전남이 4%, 충북이 2.6%, 전북이 2.3%, 강원도가 1.4%, 제주도가 0.9%순이다.

등록 외국인 거주지역별 분포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이주민선교 교회/기관이 인구비율보다 적은 지역은 대구·경북이 96.9%, 수도권이 인구 대비 82%, 충북이 57.7%, 강원도가 50%이다. 인구대비 이주민선교 교회/기관이 많은 지역은 광주·전남이 240%, 전북이 161%, 부산·울산·경남지역이 139%, 제주도가 122%, 대전·세종·충남이 121%이다. 이제까지 알려진 것보다 수도권 지역은 이주민선교에 참여해야 할 교회/기관을 늘려야 하고, 충청북도와 강원도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은 인구 대비 이주민교회/기관이 좀 더 많은 편이다. 그렇지만 광주·전남지역이 240%, 전북지역이 161%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심층조사를 통해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시작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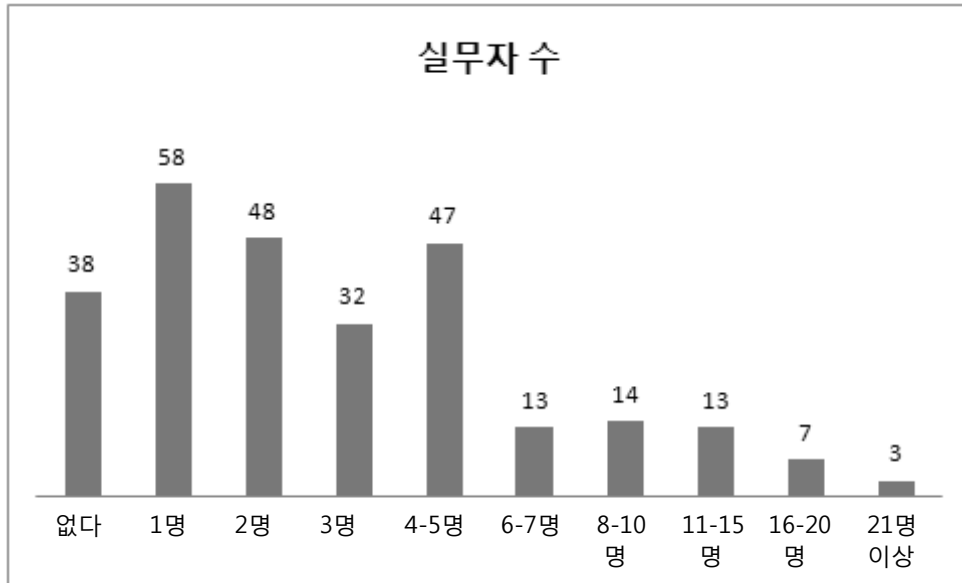


(응답자 269)

이주민 선교를 시작한 연도를 보면 2001년-2004년이 64개(24%), 2005년-2008년이 62개(23%), 2009년-2012년이 59개(22%), 1996년-2000년이 50개(18%), 1990년-1995년이 29개(11%)순이다.

1990년대 전반에 29개가 생긴데 반해 1990년대 후반에 50개가 생겼다. 2000년대 이후에는 64개, 62개, 59개로 1990년대보다는 양적으로는 증가했지만 오히려 약간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심층조사를 하면 실제로 증가한 부문은 결혼이민여성선교와 다문화가정선교, 그리고 유학생선교가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했을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이주노동자선교 부문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다른 부문으로 확장하거나 전환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지적했던 이유들, 이주노동자선교에 비해 결혼이민여성선교와 다문화가정자녀선교가 접근과 지원의 용이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심층적 조사를 입체적으로 실시하여 확인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결혼이주민가정 위주의 다문화지원정책이 이주민선교에 끼친 영향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주민선교의 양적·질적 증감의 추세와 그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심층적인 조사에서는 지역별로, 부문별로 시작연도를 통해서 볼 때 어떤 편차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도 과제라고 본다.

7) 실무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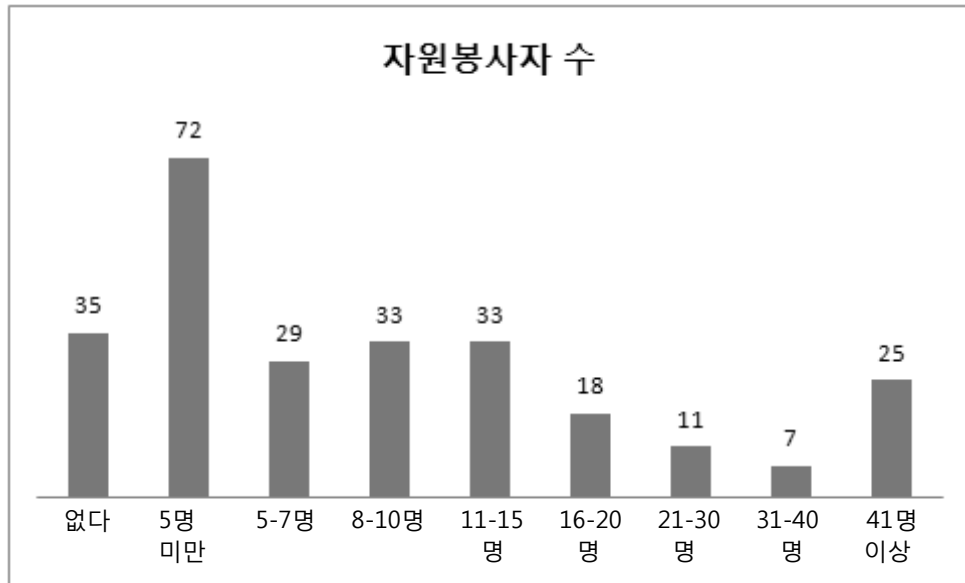


(응답자 273)

각 교회/기관의 실무자수는 1명이 58개(21%), 2명이 48개(18%), 4명-5명이 47개(17%), 3명이 32개(12%), 없다가 38개(14%), 8명-10명이 14개(5%), 6명-7명과 11명-15명이 13개(5%)순이다.

실무자 숫자와 관련해 이주민 선교/기관의 규모를 분류하면 실무자가 없거나 1명-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교회/기관이 53%, 3명-5명인 중형 규모가 29%, 6명-7명 이상인 대형 규모가 18%로 규모가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실무자가 1명 혹은 2명인 이주민센터나 교회가 많은 까닭은 이주민 사역을 틈새 혹은 돌파구로 여기는 개척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주민선교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을 볼 때 지속적으로 이주민선교를 하던 교회들이 이주민교회로 자리잡거나 대형교회들이 참여하면서 실무자가 증가하거나 정부의 이주민센터를 위탁함으로써 실무자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심층적으로 확인하거나 입체적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향후 심층조사는 이주민선교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 평가, 제안 등과 실무자의 업무에 대한 분석과 그들의 근무실태 그리고 급여실태를 다뤄야 할 것이다.

8) 자원봉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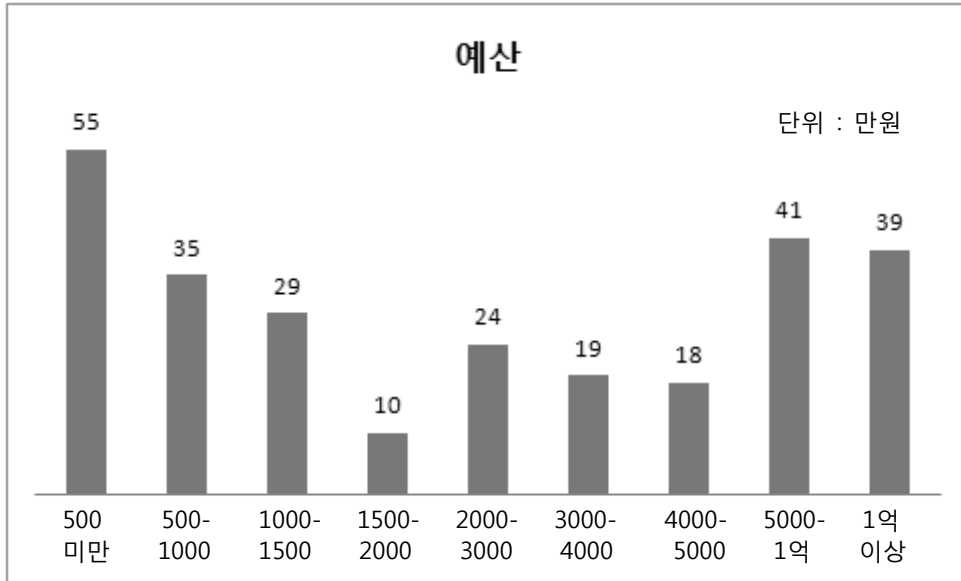


(응답자 263)

자원봉사자 수는 5명 미만이 72개(27%), 없다가 35개(13%), 8명-10명과 11명-15명이 각각 33개(13%), 5명-7명이 29개(11%), 41명 이상이 25개(9%), 16명-20명이 18개(7%)순이다.

자원봉사자 수를 기준으로 규모를 분류하면 7명 이하인 소규모 교회/기관이 51%, 8명-20명 중형 규모가 33%, 21명 이상인 대형 규모가 16%이다. 이는 실무자 숫자로 본 소형규모 53%, 중형규모 29%, 대형규모 18%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자 수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이루어져야 하는 조사는 자원봉사자의 지위와 범위에 대한 정의와 분석이다. 각 교회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범위를 임의로 설정하고 설문에 응하였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차량봉사를 하는 이들부터 전일제 교사까지 모두 자원봉사자로 분류가 되어있는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자 중 봉사료나 수당형태의 경제적 보상을 받는 유급자원봉사자와 무급자원봉사의 구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주민선교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얻고, 그들의 활용에 관한 로드맵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자와 자원봉사자가 비슷한 소규모 양상은 이주민 선교나 다문화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새로운 목회의 돌파구로 이주민 선교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9)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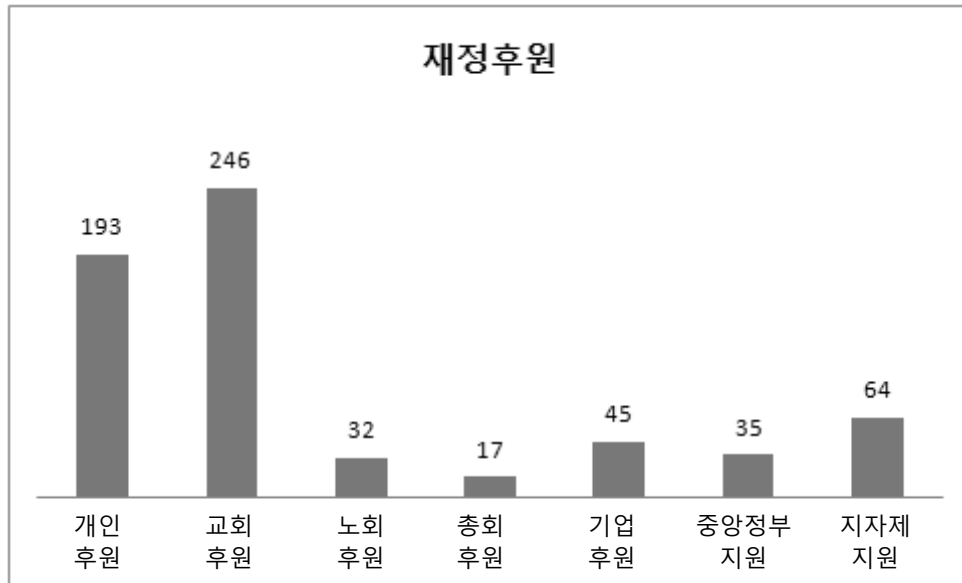


(응답자 270)

예산은 500만원 미만이 55개(20%), 5000만원-1억 미만이 41개(15%), 1억 이상이 39개(14%), 500만원-1000만원 미만이 35개(13%), 1000만원-1500만원 미만이 29개(11%), 2000만원-3000만원 미만이 24개(9%), 3000만원-4000만원 미만이 19개(7%), 4000만원-5000만원 미만이 18개(7%)순이다.

예산을 기준으로 교회/기관의 규모를 분류하면 2000만원 미만의 소형규모는 48%,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중형 규모는 23%, 5000만원 이상인 대형규모는 29%이다. 이는 실무자 숫자(53:29:18), 자원봉사자 숫자(51:33:16)를 기준으로 한 것과 약간 차이가 있다. 중형 규모가 작고, 대형 규모가 커졌다. 이는 대형규모 기관/교회들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대형프로젝트를 받기 때문일 것으로 추산한다. 그렇지만 이는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을 예외(50%:20%:30%)로 하고 이주민선교 실무자 숫자와 자원봉사자 숫자를 기준으로 규모를 추산하면 대략 소형규모 50%, 중형규모 30%, 대형규모가 20%로 볼 수 있다. 예산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조사는 예산 항목에 대한 세밀한 구분이다. 현재 이주민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들 상당수는 기존 예산을 이주민선교 행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주민선교만을 위해 예산을 독립적으로 배정하고 집행하는 교회는 소수의 대형교회와 이주민선교에 주력하는 일부 교회뿐 일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각 교회에서 이주민선교만을 위해 배정하고 집행하는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항목과 집행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층적인 조사에서 예산을 교회 재정과 개인후원, 교회후원, 기업후원, 지자체 지원, 그리고 중앙정부 지원으로 구별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10) 재정 후원



(응답자 267, 복수응답자 632)

재정 후원은 복수응답자 632개로 볼 때 교회후원이 246개(39%), 개인후원이 193개(30%), 지자체 프로젝트가 64개(10%), 기업 후원이 45개(7%), 중앙정부 프로젝트가 35개(6%), 노회/연회/지방회 후원이 32개(5%), 총회 후원이 17개(3%)순이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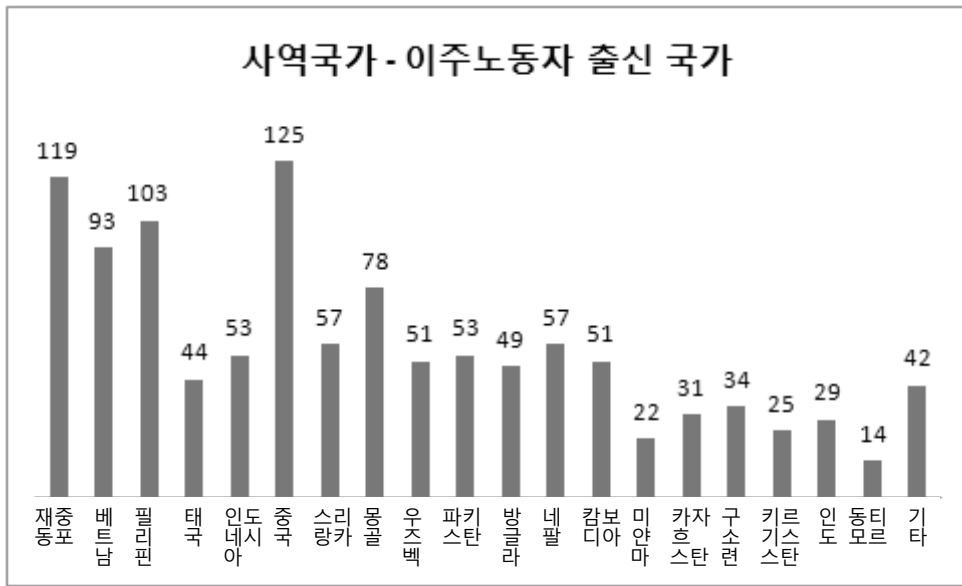
그런데 개인후원 중 기독교인의 비율을 알 수 없지만 적지 않은 비율이라고 볼 때 교회와 기독교인으로부터 오는 재정 후원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본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프로젝트를 받는 기관들도 16%가 된다. 이런 결과는 총회가 이주민선교 정책을 세울 때 더 이상 교회나 선교센터 중심만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부 프로젝트를 받는 기독교 기관들이나 기독교인이 대표인 법인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267개 응답자 중 92.1%가 교회 후원을 받고 있고, 72.3%가 개인후원을 받고 있다. 응답자 중 지자체 프로젝트를 받는 비율이 23.9%, 중앙정부 프로젝트가 13.1%로 정부 후원을 받는 비율이 37%이다. 기업 후원을 받는 비율은 16.9%이다. 반면에 노회/연회/지방회 후원을 받는 비율은 11.9%, 총회 후원을 받는 비율은 6.4%이다. 전체 응답자 중 37%가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 경우 이주민선교의 목적은 전도와 복음전도가 아닌 인권향상 및 삶의 질 개선 등이 될텐데 이러한 프로젝트 활동을 하나님의 선교 입장에서 보고 교회/노회/총회가 지지하며 연대와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의 흐름인 민간과 정부의 공치(公治)/가버넌스 개념이 유용할 것이다. 또한 총회의 후원이 적은 것은 총회가 사업을 하기보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주민선교를 활성화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노회/연회/지방회의 후원비율이 낮은 편인데 각 노회/연회/지방회별로 이주민선교의 부문별 모델교회나 기관을 발굴하거나 지원을 통해 활성화시키고 그 모델을 노회/연회/지방회에 속한 교회들에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응답자 267개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교회후원이 92.1%, 개인후원이 72.3%, 지자체 프로젝트가 23.9%, 기업후원이 16.9%, 중앙정부 프로젝트가 13.1%, 노회후원이 11.9%, 총회후원이 6.4%순이다.

교회 형태와 비교하면 정부 프로젝트를 받는 비율이 16%인데 이주민 기관(법인, 비영리단체)이 17%여서 근접해 있다고 본다. 반면에 교회부설 28%와 교회와 선교기관의 복합형태가 16%인데 이 둘을 합치면 44%이다. 교회 후원이 39%라는 것은 교회부설이나 복합형태에도 불구하고 교회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가 부설한 이주민선교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사역 현황

1) 이주노동자선교 사역국가



(응답자 225, 복수응답자 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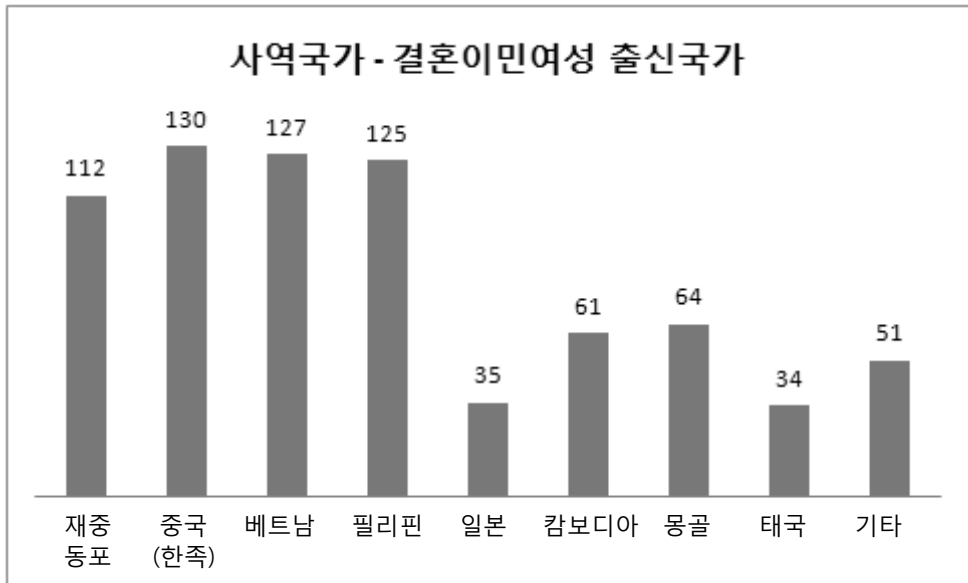
이주노동자선교의 사역국가(복수 응답)를 보면 중국 한족이 125개(11%), 재중동포가 119개(11%), 필리핀이 103개(9%), 베트남이 93개(8%), 몽골이 78개(7%), 스리랑카와 네팔이 각각 57개(5%),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이 각각 53개(5%), 우즈베크스탄과 캄보디아가 각각 51개(5%), 방글라데시가 49개(4%), 태국이 44개(4%), 구 소련지역 동포가 34개(3%), 카자흐스탄이 31개(3%), 인도가 29개(3%), 키르기스스탄이 25개(2%), 미얀마가 22개(1.9%), 동티모르가 14개(1%), 기타 국가가 42개(4%)이다. 중국 한족과 재중동포를 포함하면 22%로 이주노동자선교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필리핀,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와 네팔,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우즈베크스탄과 캄보디아 순이다. 응답자 225명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 한족 55.6%, 재중동포 52.9%, 필리핀 45.8%, 베트남 41.3%, 몽골 34.7%, 스리랑카와 네팔이 각각 25.3%,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23.6%, 우즈베크스탄과 캄보디아 22.7%, 방글라데시 21.8%, 태국 19.6%, 구 소련 지역 동포 15.1%, 카자흐스탄 13.8%, 인도 12.9%, 키르기스스탄 11.1%, 미얀마 9.8%, 동티모르 6.2%, 기타 국가 18.7%순이다.

2012년 11월 30일 현재 비전문취업자와 방문취업자를 국적별로 보면 재중동포와 중국 한족이 모두 244,782명, 베트남이 59,337명, 인도네시아가 26,340명, 우즈베크스탄이 24,832명, 스리랑카가 20,271명, 태국이 18,279명, 캄보디아가 18,116명, 필리핀이 17,029명, 네팔이

15,172명, 몽골이 9,393명, 방글라데시가 9,091명, 미얀마가 7,037명, 파키스탄이 4,106명, 러시아가 1,814명, 키르기스스탄이 1,360명, 티모르가 1,003명 순이다(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과 티모르는 체류자 숫자임). 전체 477,962명 중 중국 51.2%, 베트남 12.4%, 인도네시아 5.5%, 우즈베키스탄 5.2%, 스리랑카 4.2%, 태국 3.8%, 캄보디아 3.8%, 필리핀 3.6%, 네팔 3.2%, 몽골 1.96%, 방글라데시 1.9%, 미얀마 1.5%, 파키스탄 0.9%, 러시아가 0.4%, 키르기스스탄이 0.3%, 티모르가 0.2%순이다. 이주노동자선교 현황과 비교하면 중국 한족과 재중동포 대상으로 한 이주노동자선교가 절반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인들이 본국에서 교회를 접한 비율이 적고, 중국인들끼리 잘 뭉치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체류 숫자에 비해 이주민 교회/선교기관이 월등히 많은 나라는 파키스탄과 티모르가 5배, 몽골이 3.5배, 필리핀이 약 3배, 방글라데시가 2배, 네팔이 1.5배, 캄보디아가 1.3배, 구소련 국가 등이다. 파키스탄은 공동체로 잘 모이고, 한국어를 비교적 빨리 습득하고 이주민단체 활동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티모르는 가톨릭국가이기 때문에 다수가 교회에 잘 적응하고 티모르인들 스스로 모이기를 좋아하는 국민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몽골은 한국어와 언어체계가 비슷해 언어 습득이 빠르고 공동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모임이 빨리 형성되고 한국교회의 환대에 반응이 빠르고 또 한국인과 외모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이주민선교를 하는 교회/기관이 많다고 판단한다. 필리핀이 체류인 숫자에 비해 선교하는 교회/기관의 숫자가 약 세 배이고, 베트남보다 더 많은 것은 필리핀이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대다수가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와 친숙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방글라데시와 네팔은 이주민단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공동체를 빨리 형성한 국가들이다. 네팔인은 한국에 와서 자신들이 힌두교도임을 부끄러워하는 면이 있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을 오히려 선호하는 면이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는 현지에 있는 한국선교사가 적정 규모의 두 배가 넘는다. 단기선교로 자주 가는 나라여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체류 숫자에 비해 이주노동자선교 교회/기관이 적은 나라는 베트남으로 66.7%이다. 베트남의 경우 이주노동자선교로부터 결혼이민여성선교로 전환이 많은 경우가 아닌가 추정해본다. 나머지 국가들은 체류 숫자와 선교기관 비율이 비슷한 편이다.

2) 결혼이민여성선교 사역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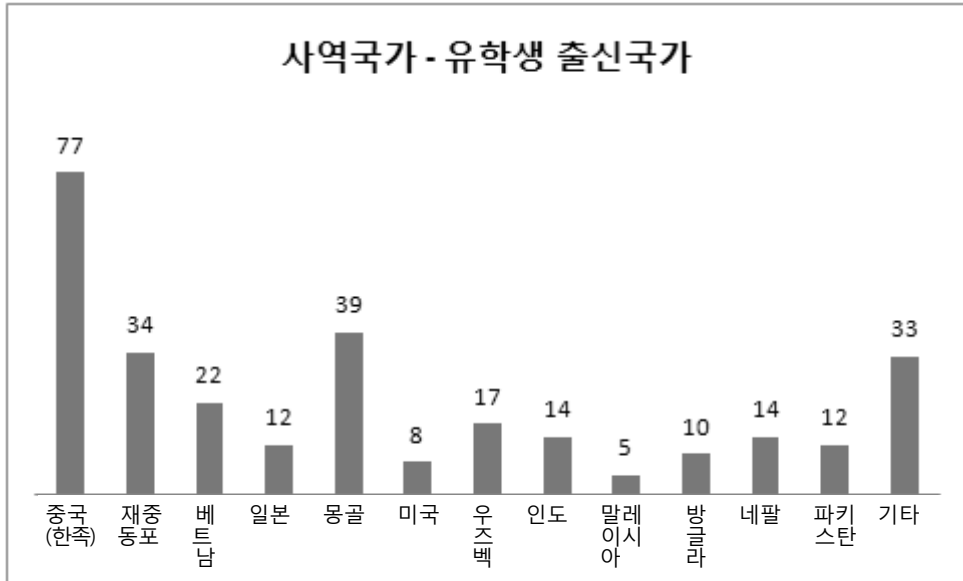
(응답자 199, 복수응답자 739)

결혼이민여성 출신국가를 중복응답 기준으로 보면 중국 한족 130개(17%), 베트남 127개(17%), 필리핀 125개(17%), 재중동포 112개(15%), 몽골 64개(9%), 캄보디아 61개(8%), 일본이 35개(5%), 태국 34개(5%), 기타 국가들이 51개(7%)다. 중국 한족과 재중 동포를 합치면 42%로 가장 많다.⁶⁾

결혼이민여성들의 국적별 분포도와 비교하면 2012년 11월 30일 현재 전체 127,424명 중 중국이 51,330명(40.3%), 베트남 38,643명(30.3%), 일본이 10,590명(8.3%), 필리핀이 9,272명(7.3%), 캄보디아가 4,570명(3.6%), 태국이 2,563명(2.0%), 몽골이 2,322명(1.8%)순이다. 결혼이민여성 숫자에 비해 선교하는 교회/기관이 몽골은 5배, 태국은 2.5배, 필리핀은 2.3배, 캄보디아가 2.2배이다. 이주노동자선교와 비교하면 몽골(언어체계, 공동체성, 환대에 적극 반응, 외모), 필리핀(영어, 기독교), 캄보디아(선교사 숫자와 단기선교)는 비슷한 이유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태국은 이주노동자선교는 비슷한 규모였기 때문에 결혼이민여성선교에서만 2.5배가 늘어난 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결혼이민여성선교 자체가 지닌 장점, 즉 우리나라에 반영구적으로 살고 자녀와 남편 등에게 전도가 가능하며, 한글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정부의 지원과 교회의 후원이 수월한 편이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한다. 반면에 베트남은 체류 숫자에 비해 선교하는 교회/기관이 56.1%, 일본은 60.2%에 불과하다. 일본 출신 결혼이민여성선교를 하는 교회/기관이 적은 것은 통일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선교가 적은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결혼이민여성선교에서 베트남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선교할 대상 국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 결혼이민여성들의 국적별 참여의 정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 같은 질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6) 응답자 199명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 한족 65.3%, 베트남 63.8%, 필리핀 62.8%, 재중동포 56.3%, 몽골 32.2%, 캄보디아 30.7%, 일본 17.6%, 태국 17%, 기타 국가 25.6%순이다.

3) 유학생선교 출신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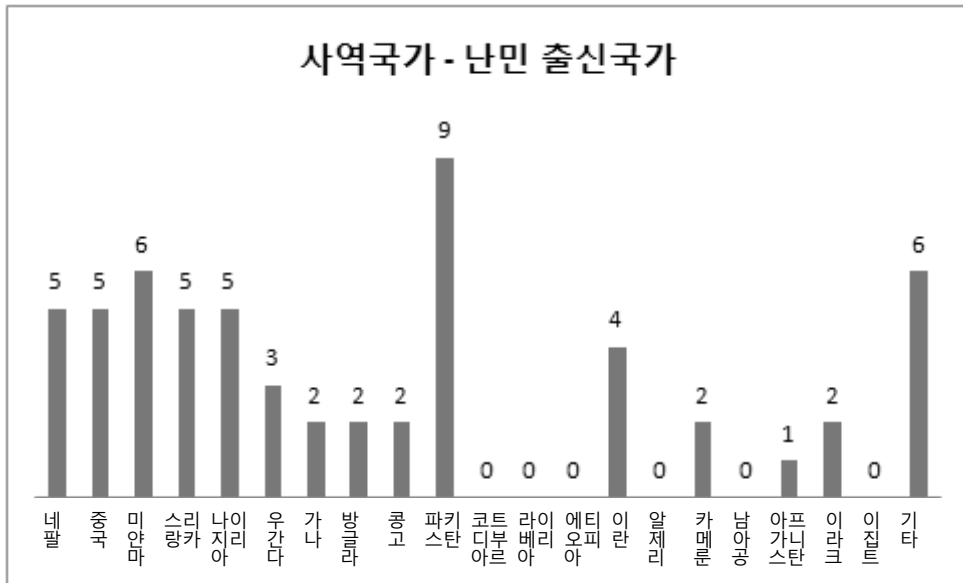


(응답자 111, 복수응답자 297)

유학생 선교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 복수응답자 297개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한족)이 77개(26%), 몽골이 39개(13%), 재중동포가 34개(11%), 베트남이 22개(7%), 우즈베키스탄이 17개(6%), 인도와 네팔이 각각 14개(5%), 일본과 파키스탄이 12개(4%), 방글라데시가 10개(3%), 미국이 8개(3%), 말레이시아가 5개(2%), 기타 국가가 33개(11%)이다. 중국 한족과 재중 동포를 합치면 37%이다.

2012년 11월 30일 현재 전체 유학생은 87,270명으로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58,256명(66.8%), 몽골이 4,930명(5.6%), 베트남이 3,271명(3.7%), 일본이 2,807명(3.2%), 미국이 1,236명(1.4%), 인도네시아가 828명(0.9%), 인도가 781명(0.9%), 우즈베키스탄이 710명(0.8%), 말레이시아가 655명(0.8%), 대만이 634명(0.7%), 필리핀이 588명(0.7%), 방글라데시가 567명(0.7%), 러시아가 535명(0.6%), 기타 9,949명(7.6%)이다. 유학생 숫자와 비교할 때 유학생 선교를 많이 하는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 7.5배, 인도가 5.5배, 방글라데시가 4.3배, 말레이시아가 2.5배, 몽골이 2.3배, 미국이 2.1배, 베트남이 1.9배이다. 네팔과 파키스탄은 공식 통계에는 기타에 분류가 되었는데 각각 5%, 4%를 차지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비중이 큰 것이다. 반면에 중국 유학생 숫자에 비하면 유학생 선교하는 교회/기관은 55.4%에 불과하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유학생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편이고, 귀국하면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인도와 네팔은 힌두교권, 동포가 많은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권, 베트남은 불교권 등 다른 종교가 지배적인 나라 출신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중국은 전체 유학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는데 반해 선교하는 교회/기관은 아직 적은 것을 볼 때에 전략적으로 더 늘릴 필요가 있다.

4) 난민선교 출신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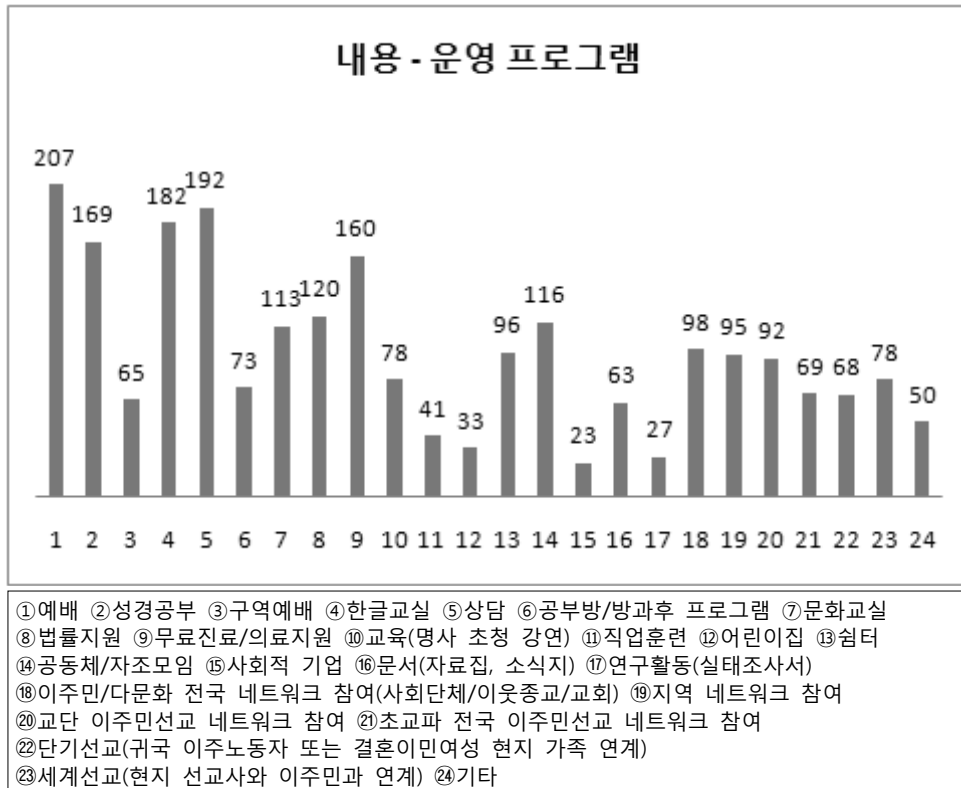


(응답자 35, 복수응답자 59)

난민선교에 참여한다고 복수응답한 59개 교회/기관들을 기준으로 하면 파키스탄이 9개 (15%), 미얀마가 6개(10%), 네팔, 중국, 스리랑카, 나이지리아가 각각 5개(8%), 이란이 4개 (7%), 우간다가 3개(5%), 가나, 방글라데시, 콩고, 카메룬, 이라크가 각각 2개(3%), 아프가니스탄이 1개(2%), 기타 국가가 6개(10%)이다.

난민 통계(신청, 인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회 등)만 있고 신청자 국적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교하여 분석할 대상이 없다. 앞으로 난민선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난민 관련 통계와 조사가 필요하고, 그에 기반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5) 이주민 선교 내용: 운영 프로그램



(응답자 270, 복수응답자 2,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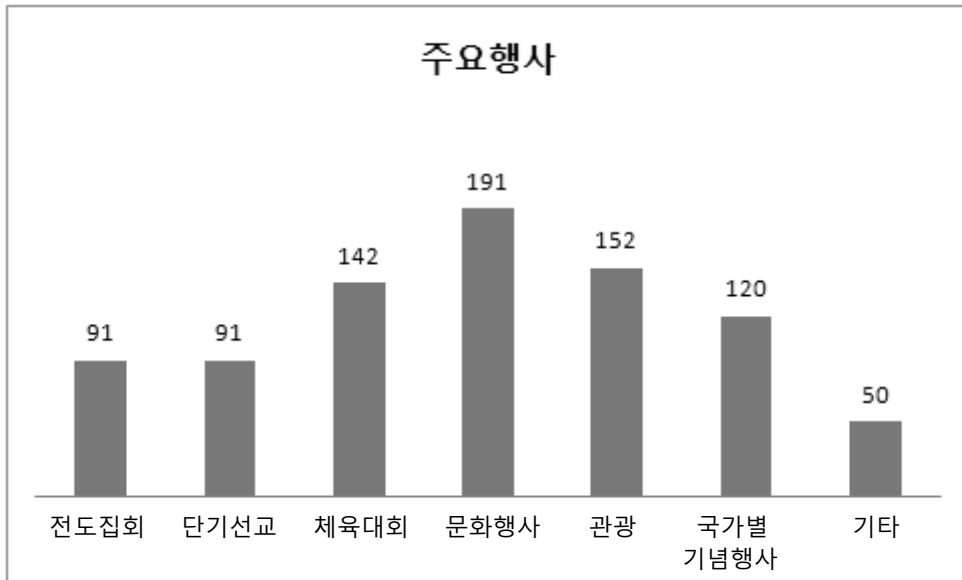
이주민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기관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복수응답자 2,308개를 기준으로 하면 예배 207개(9%), 상담 192개(8.3%), 한글교실 182개(7.9%), 성경공부 169개(7.3%), 무료진료/의료지원 160개(6.9%), 법률지원 120개(5.2%), 공동체/자조모임 116개(5.0%), 문화교실 113개(4.9%), 이주민/다문화 전국 네트워크 참여 98개(4.2%), 컴퓨터 96개(4.2%), 지역 네트워크 참여 95개(4.1%), 교단 이주민선교 네트워크 참여 92개(4%), 교육(명사 초청 강연)과 세계선교가 각각 78개(3.4%), 공부방/방과후 프로그램 73개(3.2%), 초교파 전국이주민선교 네트워크 참여 69개(3%), 단기선교 68개(2.9%), 구역예배 65개(2.8%), 문서(자료집, 소식지) 63개(2.7%), 직업훈련 41개(1.8%), 어린이집 33개(1.4%), 연구활동(실태조사서) 27개(1.2%), 사회적 기업 23개(1%), 기타 50개(2.2%) 등이다.

이주민선교 교회/기관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범주화하면 네트워크(공동체/자조모임, 이주민 전국 네트워크, 지역 네트워크, 교단 이주민선교 네트워크, 초교파 이주민선교 네트워크) 470개(20.4%), 교회적 프로그램(예배, 성경공부, 구역예배) 441개(19.1%), 문화(문화교실, 한글교실, 교육) 373개(16.2%), 복지(의료 진료, 공부방, 어린이집, 컴퓨터) 362개(15.7%), 인권(상담, 법률지원) 312개(13.5%), 세계선교(세계선교, 단기선교) 146개(6.3%), 연구 및 홍보(연구활동, 문서) 90개(3.9%), 경제(사회적 기업, 직업훈련) 64개(2.8%) 등이다. 이는 이주민선교가 무엇보다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주민선교는 교회의 선교목적에 지향하는 교회적 프로그램(19.1%) 못지않게 이주민의 관심사인 문화, 복지, 인권(셋을 합치면 45.4%) 등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연구하는 교회/기

관 숫자(3.9%)가 상당히 적은 것은 향후 연구작업이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을 보여준다. 전국적 단위로는 총회와 앞서가는 교회/기관들이 협력해서 전국적 규모의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고, 지역적으로도 협력하여 지역적 단위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주민의 경제적 필요성을 고려하면 경제 관련 프로그램(2.8%)이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프로그램으로 본다.

이러한 범주를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이주민선교 교회/기관의 목적이나 관심사인 교회적 프로그램, 세계선교, 그리고 공동체/자조모임을 제외한 네트워크, 이주민선교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홍보가 있다. 이주민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자조모임, 문화, 복지, 인권, 경제 등이 주관심사이다. 이주민선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의 범주별 프로그램에 대한 이주민선교 교회/기관들의 평가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 이주민 당사자 입장에서 교회/기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관련 비정부기구와 행정기관들의 평가를 총체적으로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6) 주요행사



(응답자 231, 복수응답자 837)

이주민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기관의 주요 행사를 복수응답자 837개를 기준으로 하면 문화행사가 191개(23%), 관광이 152개(18%), 체육대회가 142개(17%), 국가별 기념행사가 120개(14%), 전도집회와 단기선교가 각각 91개(11%), 기타가 50개(6%)이다.

교회/선교기관의 관심사인 전도집회와 단기선교가 21.7%를 차지하고, 나머지 행사들, 즉 문화행사, 관광, 체육대회, 국가별 기념행사 등은 72.3%를 차지한다. 이는 이주민선교가 이주민 당사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주민 당사자들의 욕구에 보다 더 적합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주민 스스로가 문화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그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특수성을 담고 있는 행사들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행사들을 제안하

고 한국인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III. 이주민선교 기초조사 결과에 나타난 이주민선교의 특징과 과제

1. 이주민선교의 주요 특징

1) 교회/기관/단체의 형태

이주민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기관/단체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교회부설 28%: 이주민기관 17%: 복합형태(교회+선교기관) 16%: 이주민선교센터 16%: 이주민교회 10%: 독립외국인교회 7%로 교회부설 형태가 제일 많지만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형태가 복합형태나 이주민선교센터 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프로젝트 지원 수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주민기관의 형태가 크게 성장하리라는 전망은 없다. 그렇지만 총회의 이주민선교 정책을 수립할 때 다원화된 이주민선교 형태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주민교회와 독립외국인교회와 한국교회와의 관계, 노회/연회/지방회 가입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2) 이주민선교의 목적

이주민선교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통전적 28%: 전도 25%: 세계선교 19%: 인권 및 삶의 질 개선 17%: 교회개척 8%로 통전적 입장이 다수이지만 복음주의 진영의 목적이라 할 전도와 세계선교, 교회개척을 합치면 에큐메니칼 진영의 목적이라 할 통전적 입장과 인권 및 삶의 질 개선 항목보다 7%가 많다. 통전적 입장은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정수라 할 로잔언약에도 나오지만 한국의 복음주의자들 다수는 통전적 입장보다는 전도, 교회개척, 세계선교를 지향한다고 본다. 이처럼 목적의 측면에서 볼 때 양 진영이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양 진영의 입장에 속한 이주민선교 교회/기관들이 선교신학적으로는 다른 입장에서 출발했지만 이주민선교 현장의 요구 때문에 이주민선교의 목적과 내용에서 어느 정도 수렴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양 진영의 선교신학을 지나치게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주민 선교 현장에서 볼 때 현실적합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선교신학을, 특히 복음주의 선교신학을 선교현장과 관련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이데올로기적 입장이나 편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이주민선교의 과제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3) 이주민선교의 부문

이주민선교의 부문과 관련해 보면 이주노동자선교 32%: 결혼이민여성선교 29%: 다문화가정자녀선교 19%: 유학생선교 15%: 난민선교 5%로 나타났다. 각 부문별 이주민 숫자와 비교할 때 이주노동자선교 교회/기관은 절반에 불과하고, 결혼이민여성선교는 1.7배, 다문화가정선교는 3배, 유학생선교는 1.3배, 난민선교는 50배이다. 난민선교는 난민이 처한 절박한 상황 때문에 비율이 높지만 난민 숫자가 적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정자녀는 신분이 안정되고 접근과 후원이 비교적 용이하고 전도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주민선교 교회/기관이 많다고 판단한다. 유학생선교는 대학생선교 노하우가 있고 접근이 용이하며 무엇보다 귀국하면 그 나라의 지도적인 지위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주로

종교권별로 대상국가를 선정해 상대적으로 많은 교회/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이주노동자선교는 노동상담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구하고, 힘들여 노력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귀국하기 때문에 점차 감소추세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한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부분을 포함한 이주노동자선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처럼 부문별로 상황이 다르고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을 전제로 총회는 이주민선교 각 부문에 적절한 중장기 전망 하에 정책을 수립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이주민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총회들이 이주민선교 교회/단체들과 연대해서 그동안의 이주민선교를 평가하고 중장기 전망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이주민선교의 지역분포

이주민선교의 지역분포를 보면 인구 대비 많은 곳은 광주·전남지역이 240%, 전북이 161%, 부산·울산·경남지역이 139%이고, 인구대비 적은 곳은 수도권이 82%, 충북이 58%, 강원도가 50%이다. 전략적으로 이주민선교를 집중해야 할 지역은 강원도와 충북지역이고, 수도권도 더 늘려야 할 지역이다. 이주민선교의 지역분포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

5) 이주민선교의 경향

이주민선교의 경향과 관련해서 이주노동자선교는 감소하는 추세로 보이고, 결혼이민여성선교는 발전 중이며, 다문화가정자녀선교는 초기단계이고, 유학생선교는 전략적으로 종교권별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에 난민선교는 절박한 상황을 반영해 난민 숫자 대비 50배에 달하지만 난민선교 발전을 위한 조사와 연구가 절실하다. 총회 정책 수립 시 이러한 경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7년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선교대회에서 이주민선교 분과가 모여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다. 교단과 이주민선교 단체들이 협력해서 이주민선교 경향을 분석하고 각 부문의 균형적 발전과 중장기 전망을 함께 모색하면서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6) 이주민선교의 규모

이주민선교를 규모(실무자, 자원봉사자, 예산 등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형규모 50%: 중형규모 30%: 대형규모 20%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양적 조사라는 한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심층조사를 통해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향을 토대로 총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단별, 지역별, 부문별, 목적별 모임 이외에 규모별 모임이 별도로 필요하다.

7) 이주민선교의 시작연도

시작연도별로 볼 때 2005년 이후 생긴 교회/기관들이 45%를 차지하는 만큼 앞선 경험을 나누고, 나중에 생긴 교회/기관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 매뉴얼 제작 시 위에서 언급했던 부문별, 규모별 문제와 과제를 식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예산 규모

예산 규모는 2000만원 미만의 소형 규모가 48%,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중형

규모가 23%, 5000만원 이상의 대형규모가 29%이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프로젝트 예산을 반영하여 중형규모보다 대형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심층조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재정후원과 관련해 볼 때 교회와 대부분이 교인이 개인 후원이 절반을 넘는다. 그렇지만 정부 프로젝트 비율도 16%에 달한다. 선교 중심의 교회/기관과 달리 법인 형태의 이주민기관이 이주민선교를 하나님의 선교와 가버넌스(governance, 官과 民의 公治)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이주민선교의 대상국가

이주민선교를 대상국가와 관련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이슬람권 국가들에 대한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베트남의 경우 이주노동자선교와 결혼이민여성선교가 적은 편이다. 세계선교와도 연계해서 좀 더 복합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10) 이주민선교의 프로그램

이주민선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예배와 기독교 프로그램이 일반 프로그램보다 많은 편이다. 전도 목적과 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의 한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11) 유학생선교

유학생선교는 이슬람권, 힌두교권, 불교권 등 종교권별로 선택과 집종의 원리를 통해 선교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중국인 대상의 유학생 선교가 중국 유학생 숫자에 비하면 작은 편이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12) 이주민선교 교회/기관의 운영 프로그램

이주민선교 교회/기관의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범주별로 볼 때 네트워크 모임이 가장 많다. 이는 이주민선교가 연대와 협력 속에 이뤄지는 것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이주민선교를 평가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기초조사에 나왔던 많은 문제점과 과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역시 여러 총회들과 이주민선교단체들과 이주민선교를 오랫동안 해왔던 교회/기관들이 연대하고 협력하여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청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교회적 프로그램이지만 문화, 복지, 인권 등 이주민의 욕구를 수립하는 프로그램들이 교회적 프로그램 보다 더 많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는 총회, 교회/기관 대표자와 실무자뿐 아니라 이주민 당사자들의 참여 속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실질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작업 역시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회와 교회/기관들, 신학교가 협력해서 함께 진행되고 연구 결과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 프로그램은 앞으로 갈수록 그 필요성이 더 강화된다고 본다.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발굴과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 주요 과제

1) 정책과 제도

총회는 본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민선교 형태, 목적, 부문, 경향, 규모, 예산과 재정, 대상국가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해 다양화된 이주민선교를 이해하고 평가하며

중장기 전망을 세워 각 부문과 형태, 규모, 예산과 대상국가에 따른 이주민선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총회는 정부 프로젝트 기관과의 협력의 바람직한 형태를 제시하며, 세계선교와 연계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해서 세계선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 이주민 정책과 지원센터 수립에 발맞춰 이주민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주민사회선교사 또는 이주민국내선교사 제도를 수립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민교회들이 노회/연회/지방회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되 이주민이 급증하는 시대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노회/연회/지방회 형태를 갖추도록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2) 교육훈련

총회는 다문화가정자녀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 및 커리큘럼을 단계별로 개발해야 한다. 노회/연회/지방회는 이주민선교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을 갖도록 이주민선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해하도록 노회/연회/지방회 세미나를 통해 노회원/연회원/지방회원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노회/연회/지방회는 이주민선교의 각 부문별 모델을 개발하여 집중 지원하고, 노회/연회/지방회의 다른 교회 및 기관에 그러한 모델이 확대하도록 실무자와 자원봉사자 양성과정 및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 재교육 과정을 통해 이주민선교에 대한 목회자들의 이해를 자신의 목회와 선교에 통합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주민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는 노회/연회/지방회가 주관하는 실무자와 자원봉사자 양성과정 및 훈련과정을 통해 이주민 사역자를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교회의 목회자는 이주민선교 부서나 관련 교인들 뿐 아니라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이주민선교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도 교인들에게 설교와 성경공부를 통해 이주민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고, 전체 교인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주민선교를 신학교 커리큘럼에 반영해 이주민선교, 다문화사회에서의 교회와 목회, 다문화사회와 성서 이해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다른 과목과 연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노회/연회/지방회들과 연계하여 목회자 재교육과 실무자와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훈련과정 교재를 개발하거나 실시해서 이주민 선교 사역자를 양성하고 목회자들의 목회에 이주민선교를 통합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프로그램

총회는 이주민선교 부문별로 매뉴얼을 제작하고, 실무자와 자원봉사자에 적합한 양성과정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총회는 노회/연회/지방회나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교회들과 나누게 해야 한다. 이주민선교의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 교회의 욕구 중심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이주민 욕구 중심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이주민 욕구조사는 앞으로 진행될 심층조사의 주된 목적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총회, 교회/기관 대표자와 실무자뿐 아니라 이주민 당사자들의 참여 속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실질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민의 취업과 관련한 경제적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보완하여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4) 조직

이주민선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주민선교를 지원하는 총회들 뿐 아니라 이번 기초조사를 주관하는 한국교회희망봉사단과 같은 기독교 NGO, 전국단위의 이주민선교단체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칭)의 이주민선교부서, 세계선교단체 등과 함께 심층조사, 정책수립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한국개신교이주민선교협의회(가칭)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직은 위에서 제기한 대로의 심층조사를 하고 이주민선교 포럼 등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 될 것이다. 이러한 조직은 한국선교신학회와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를 자문기관으로 하여 현장, 정책수립, 조사와 연구, 신학화 등이 선순환 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주민선교에 큰 관심을 갖는 교단은 총회 내에 이주민선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단이 크지 않거나 이주민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나 선교기관이 적은 교단은 지역별 이주민선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회이주민선교협의회는 총회로 하여금 이주민선교 정책을 수립하고, 실무자와 자원봉사자 양성과정 및 훈련과정을 제정하고, 이주민선교를 새로 시작하는 교회/기관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며, 노회로 하여금 총회의 정책과 훈련과정에 따라 목회자 재교육, 실무자와 자원봉사자 양성과정 및 훈련과정이 이뤄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지역별로 이주민선교를 하는 교회/기관들이 이주민선교의 협력과 연대, 사역자 양성과 훈련, 평가와 중장기 전망을 공유하기 위해 지역이주민선교협의회/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민선교협의회는 부문별 분과와 교육훈련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 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미 기초조사 과정에서 부분적이지만 광주·전남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대전·충북지역, 청주지역, 제주도 등에서 지역이주민선교대표자 간담회가 열려 지역이주민선교협의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기초조사에 적극 협조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이주민선교협의회는 이미 만들어져 이번 기초조사에 큰 도움을 줬다. 각 지역마다 지역이주민선교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전국적인 연대 조직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5) 재정

노회/연회/지방회는 자신에 속한 교회 및 선교기관에 이주민선교의 부문별 모델이 확대하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주민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는 이주민선교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6) 조사, 연구와 신학화

이주민선교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지역 단위로, 부문별로,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연구와 조사는 목적에 따라 한국개신교이주민선교협의회(가칭)나 지역이주민선교협의회가 주관하거나 총회와 교회/기관들, 신학교가 협력해서 함께 진행하고 연구결과와 조사 결과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주민선교의 성서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주민선교신학을 수립할 수 있다.

7) 이주민선교 현장과 교육훈련과 정책수립과 신학의 선순환

이번 이주민선교 기초조사 결과에 나타난 이주민선교 현장 이해를 토대로 총회는 이주민선교의 다양한 부문과 이주민선교 현장을 고려한 이주민선교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훈련과정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노회/연회/지방회는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목회자 재교육과 실무

자 재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며, 선교신학자들과 함께 이주민선교신학을 만들어간다. 이러한 신학적 토대 위에 정책과 선교활동과 교육훈련을 재점검하면서 이들을 심화시키도록 한다.

IV. 향후 이주민선교 심층 조사를 위한 제안

1. 주체 형성 및 준비과정

첫째 본 기초조사를 평가하고 다음 심층조사를 하기 위한 주체로서 이주민선교에 관심 있는 한국교회회망봉사단과 같은 기독교NGO,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 담당부서, 세계선교단체, 총회 이주민선교 담당부서 총무들, 총회이주민선교협의회 대표들, 이주민선교기관협의회 대표들, 이주민선교를 오랫동안 주도한 이주민선교 교회/기관 대표들, 지역이주민선교협의회 대표들, 선교신학 교수들로 이뤄지는 이주민선교 포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심층조사는 기초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난 20여년 이주민선교를 평가하고 향후 20-30년을 전망하면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기간 동안 지난 20여년 이주민선교에 대한 평가를 부문별로, 전체적으로 하고, 또 중장기 전망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심층조사를 할 주체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서구의 이주민선교 사례들(호주교회, 미국교회, 캐나다 교회, 영국교회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재원 마련도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본 기초조사의 성과와 한계, 문제점을 잘 정리하여 심층조사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기초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이후에 이주민선교 심층조사에 공감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총회, 교회/기관, 협의회/선교단체, 신학교 등) 중심으로 잠정적인 이주민선교 계속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계속위원회를 통해 심층조사의 주체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공식적인 조직으로 확대되면 될 것이다.

2. 심층조사 시 유의할 사항

첫째 기초조사에서 지적되었던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 뿐 아니라 설문 항목을 코딩과 해석과정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고급통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문을 만들어야 한다. 또 설문항목을 만들 때 새로 시작하는 교회/기관들을 위한 매뉴얼 제작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연구방법의 경우 양적 조사를 통해 이주민선교의 형태와 부문, 목적, 지역, 경향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와 조사결과들을 산출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방법으로 양적 조사에 근거한 질적 조사/입체적 조사가 보완되어야 한다. 이주민선교 대표자, 실무자, 당사자인 이주민들의 평가와 제안 등에 대해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하는 등 다각도로 의사가 수렴되어야 한다. 선교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국시 종교와 현재의 종교를 비교할 수 있는 항목도 추가되어야 한다. 심층면접 결과들이 이주민선교 매뉴얼 제작에 반영되도록 처음부터 기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20여년 진행되어온 이주노동자선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모델(교회부설 모델, 이주노동자교회 모델, 이주노동자센터 모델, 독립교회 모델, 자조모임 모델, 복음주의 모델, 에큐메니칼 모델, 상호수렴 모델 등)을 선정해 20년 동안의 변화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시작된 결혼이민여성선교와 다문화가정선교의 경우 정부의 다문화정책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이들 선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야 한다. 유학생선교와 난민선교는 기초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주민선교를 하다 그만 둔 교회/기관들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선교의 어려운 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접근방식으로서 이주민선교와 다문화, 디아스포라 등에 대한 학술적, 신학적 연구도 필요하다. 각 접근방식의 장단점, 그리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신학적 이해, 그리고 심층조사에서의 접근방식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이주민선교에 대한 문헌연구도 필요하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와 신학적 이해를 어떻게 통합시킬지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연구기간과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기초조사는 총회와 이주민선교단체들의 협력을 받았다. 심층조사는 여기에다가 총회와 지역의 이주민선교협의회들이 조직되어 협력한다면, 그리고 각 총회와 선교기관/단체들이 협력해서 총회별로, 지역별로, 부문별로, 심층조사 결과를 나누면 그만큼 예산분담과 역할분담으로 인해 총체적인 심층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심층조사 전체 계획은 주체들이 함께 만들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심층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과 행정 담당자가 분리되어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MEMO

MEMO

MEMO

MEMO

MEMO